

서울장학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학술연구

2014. 12

제출문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서울장학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학술연구용역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서울연구원 원장 김수현

연구진

- | | |
|------|---------------------------|
| 연구책임 | • 백선희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
| 공동연구 | • 김귀영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
| | • 이혜숙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국장 |
| | • 김소은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
| | • 박미현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
| 자문위원 | • 배은주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 | • 이숙원 삼성꿈장학재단 장학사업팀장 |
| | • 이지혜 한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 | • 유한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 | • 하봉운 경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목 차

I. 연구의 개요	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8
3. 연구 일정	19
4. 연구추진경과	19
II. 서울장학재단의 내부 환경분석	27
1. 장학재단 조례 및 규정	27
2.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사업 현황 및 분석	30
2_1 고유 장학사업 현황	30
2_2 자체 장학사업 현황	36
2_3 기탁 장학사업 현황	37
3. 내부 환경분석 종합	48
III. 서울장학재단의 외부 환경분석	61
1.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업 현황	61
1_1 서울시 교육협력국 장학사업	61
1_2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업	62
2. 서울시 자치구 장학사업 현황	66
2_1 장학기금 운영 자치구	66
2_2 장학회운영 자치구	80
2_3 장학재단운영 자치구	87
2_4 기타	99
3. 국내외 우수 장학재단 사례 분석	104
3_1 The Public Education Foundation	104
3_2 Georgia Student Finance Commission	107
3_3 The Scholarship Foundation of St. Louis	111

3_4 Scholarship Database 사례	114
3_5 한국장학재단	117
3_6 삼성꿈장학재단	123
4. 외부 환경 분석 종합	128
IV. 서울장학재단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	133
1.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133
2. 장학담당자 및 교사 의견 조사	157
3. 시사점	174
V. 서울장학재단의 중장기발전계획	179
1. 기본방향	179
1_1 비전 및 미션의 재정립	180
1_2 SWOT 분석	182
1_3 전략과제 도출	196
2. 비전 및 미션 체계도	204
3. 전략방향별 주요사업	205
3_1 미래지향적 장학사업 발굴·추진	205
3_2 장학자원 네트워크 구축	213
3_3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	220
4. 단계별 추진 계획	229
5. 정책제언	231
참고문헌	233
부록 _1 성과관리체계 구축 프로세스	237
_2 장학수혜자 대상 설문지	245
_3 장학담당자 대상 설문지	249

표 목차

표 1_ 연구 추진 경과	22
표 2_ 서울장학재단 연혁	27
표 3_ 서울장학재단 고유사업 현황(2014년 10월 현재)	31
표 4_ 하이서울장학금 대학원 분야 추진실적	32
표 5_ 하이서울장학금 대학교 분야 추진실적	32
표 6_ 하이서울장학금 공익인재 분야 추진실적	33
표 7_ 하이서울장학금 고등학교 분야 추진실적	34
표 8_ 하이서울장학금 하나고등학교 분야 추진실적	34
표 9_ 하이서울장학금 청소년 재능분야 추진실적	36
표 10_ 자체사업 현황	36
표 11_ 기탁 장학사업 현황	38
표 12_ 우리아이 희망장학금 지원분야	40
표 13_ 우리아이 희망장학금 추진 실적	40
표 14_ 푸른꿈 희망장학금 추진 실적	41
표 15_ 희망 파티쉐 장학금 추진 실적	41
표 16_ 시티-코스비 여성 CEO 장학금 추진 실적	42
표 17_ 청춘 Start 장학금 추진 실적	43
표 18_ 꿈나무 장학금 추진 실적	43
표 19_ 소나무 장학금 추진 실적	44
표 20_ H-Jump 스쿨 장학금 장학생 봉사활동 현황	44
표 21_ H-Jump 스쿨 장학금 장학생 교육 현황	45
표 22_ H-Jump 스쿨 장학금 추진실적	46
표 23_ 유영아 학업장학금 추진 실적	46
표 24_ Epson 글로벌 리더 장학금 선발대상	47
표 25_ 장학금 수혜대상별 사업현황	49
표 26_ 서울장학재단 재무구조	50
표 27_ 서울시 출연기관 조직 현황_1	55
표 28_ 서울시 교육협력국 연차별 추진계획	61
표 29_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예산	63
표 30_ 초·중학교 학습준비물 무상 지원 현황	64
표 31_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현황	65
표 32_ 교육기부단 운영을 통한 교육활동 지원활동 현황	66
표 33_ 중랑장학기금 장학금 지급 현황표	67
표 34_ 용산구 꿈나무장학기금 기금조성현황	70
표 35_ 용산구 꿈나무장학기금 지급 현황	70
표 36_ 도봉구장학기금 조성 및 지원 현황	72

표 37_ 강동구 교육지원기금 장학 사업 현황	78
표 38_ (재)강서구장학회 장학금 지급 현황	81
표 39_ (재)구로구장학회 장학금 지급 현황	83
표 40_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현황	88
표 41_ 노원교육복지재단 사업내용	89
표 42_ 마포구 인재육성장학재단 2014년 상·하반기 장학 현황	97
표 43_ (재)은평구민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현황	98
표 44_ 서울시 자치구 장학기금 현황	100
표 45_ 서울시 자치구 장학회 현황	102
표 46_ 서울시 자치구 장학재단 현황	103
표 47_ The Public Education Foundation 사업영역	107
표 48_ Scholarship Database 종류와 특징	117
표 49_ 한국장학재단 주요사업현황	120
표 50_ 삼성꿈장학재단 사업추진현황	126
표 51_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인지 경로	135
표 52_ 장학금별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인지 경로	136
표 53_ 서울장학재단 장학 수혜자 인식	137
표 54_ 장학금별 장학재단 개최 프로그램 참여 여부	139
표 55_ 서울장학재단 개최 참여 프로그램	140
표 56_ 장학금별 서울장학재단 개최 참여 프로그램	141
표 57_ 서울장학재단 참여 프로그램 선호도	142
표 58_ 장학금별 참여프로그램 선호도	144
표 59_ 참여 프로그램 만족도	145
표 60_ 장학금별 서울장학재단 개최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145
표 61_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147
표 62_ 장학금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148
표 63_ 서울장학재단에 바라는 점	150
표 64_ 장학금 관련 사항	151
표 65_ 참여 희망 프로그램	153
표 66_ 장학금별 희망 프로그램 선호도	155
표 67_ 서울장학재단 장학사업 인지도	159
표 68_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만족도	161
표 69_ 장학금 중요도	162
표 70_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지원방법 및 운영에 대한 의견	169
표 71_ 서울장학재단 내부환경에 대한 인식	170
표 72_ 서울장학재단 미래장학사업 관련 의견	172
표 73_ 서울장학재단의 비전 및 미션의 재정립	182
표 74_ 서울장학재단 이사진 명단	184
표 75_ Five-Jump 전략 및 11개 주요 추진과제	189
표 76_ 서울인재창조교실 프로그램 운영방안 예시	210
표 77_ 장학사업 연구기획팀의 기능 및 역할	211

표 78_ 마케팅전략 수립방향	219
표 79_ 서울장학재단 조직 확대 방안	221
표 80_ 서울장학재단 조직재구성안	222
표 81_ 역량평가의 구분별 의미와 평가항목	242

그림 목차

그림 1_ 연구일정	19
그림 2_ 2014년 두산임직원과 함께하는 멘토링	43
그림 3_ H-Jump 스쿨 인문학 특강	45
그림 4_ 서울장학재단 최근 5년간(2009~2013) 예·결산 추이	51
그림 5_ 서울장학재단 조직도	53
그림 6_ 서울시 출연기관 조직도	57
그림 7_ 중랑구 111기부운동 기탁식	68
그림 8_ 2014년 용산구 꿈나무장학기금 전달식	69
그림 9_ 성북장학회 2010년 장학증서수여식	76
그림 10_ 길음2동 통장장학회 2014년 장학금 전달식	76
그림 11_ (재)강서구장학회 2014 장학금 수여식	81
그림 12_ (재)금천미래장학회 2014년 제8기 장학증서 수여식	84
그림 13_ 2014 관악장학회 장학증서수여식	86
그림 14_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2014 장학증서 수여식	88
그림 15_ 노원교육복지재단 2013년 꿈 장학금 전달식	93
그림 16_ 꿈나무키움 2014년도 재능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94
그림 17_ (재)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2014 상반기 장학증서 수여식	96
그림 18_ 2014년 상반기 (재)은평구민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98
그림 19_ We R Community 로고	104
그림 20_ Teacher EXCHANGE™ 로고	105
그림 21_ InterAct™ 로고	106
그림 22_ NV pie 로고	106
그림 23_ Georgia Student Finance Commission의 사업영역	111
그림 24_ Scholarshipchart 홈페이지 메인	115
그림 25_ Upromise의 포인트 적립 방식	116
그림 26_ 한국장학재단 조직도	118
그림 27_ 응답자 일반현황	133
그림 28_ 응답자 수혜 장학금	134
그림 29_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인지 경로	136
그림 30_ 장학재단 개최 프로그램 참여 여부	138
그림 31_ 장학금별 장학재단 개최 프로그램 참여 여부	139
그림 32_ 서울장학재단 개최 참여 프로그램	140
그림 33_ 장학금별 서울장학재단 개최 참여 프로그램	141
그림 34_ 서울장학재단 참여 프로그램 선호도	143
그림 35_ 장학금별 참여 프로그램 선호도	144
그림 36_ 참여 프로그램 만족도	145

그림 37_ 장학금별 서울장학재단 개최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146
그림 38_ 장학금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149
그림 39_ 참여 희망 프로그램 선호도	153
그림 40_ 장학금별 희망 프로그램 선호도	155
그림 41_ 응답자 일반현황	158
그림 42_ 서울장학재단 장학사업 인지도	159
그림 43_ 장학금 만족도	160
그림 44_ 장학금 중요도	163
그림 45_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만족도 및 중요도 비교	164
그림 46_ 비전 및 미션의 도출	181
그림 47_ 가계소득수준과 교육비지출 비교	187
그림 48_ 서울장학재단 4대 부문 8대 추진 전략	198
그림 49_ 시장포지셔닝(SO) 전략	199
그림 50_ 국면적(ST) 전략	200
그림 51_ 사업다각화(WO) 전략	201
그림 52_ 방어(WT) 전략	202
그림 53_ 서울장학재단의 비전·미션 달성을 위한 3대 전략방향	203
그림 54_ 비전, 미션 및 사업 전략 체계도	204
그림 55_ 하이서울장학금 리프로그래밍	205
그림 56_ 서울재단 브랜드 장학사업 구상안	207
그림 57_ 서울인재창조교실 구상안	208
그림 58_ 장학토탈지원시스템 개념도	212
그림 59_ 서울형 인재육성 시스템 개념도	213
그림 60_ 장학협의체 구성안	214
그림 61_ 서울장학재단 서포터즈 개념도	215
그림 62_ 나눔포털 홈페이지	217
그림 63_ 서울장학정보시스템 개념도	220
그림 64_ 기탁장학금 유형화 방안	224
그림 65_ 스칼러 샵 오프라인 이벤트 일정 및 SNS	226
그림 66_ Upromise.com 홈페이지 사업 안내	228
그림 67_ 서울장학재단 중장기 발전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230
그림 68_ BSC의 기본 관점	238
그림 69_ 전략실행 프로세스	239
그림 70_ 경영전략 수립과정	240
그림 71_ 경영목표와 평가지표의 전략적 설계 프로세스	240
그림 72_ 근무성적 평가요소	241
그림 73_ 평가 프로세스 (예시)	243
그림 74_ 평가 Framework (예시)	244

I. 연구의 개요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울장학재단은 2009년 출범한 이래 하이서울장학금을 비롯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서울의 미래세대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양성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며, 양성하며, 특히 경제적으로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지원에 앞장서 왔다.

출범 당시에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던 여러 장학사업의 전문적, 체계적 운영이 목적이었으나, 교육환경 변화의 수용과 장학기금 다변화 노력에 따라 사업이 크게 다변화되었다. 이에 2014년 현재 약 120억 원의 예산으로 20여 개 장학사업, 18,000천여 명의 장학생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서울장학재단 출범 후 5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교육환경과 장학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여 왔으며, 무상교육 추진 등과 함께 앞으로 더욱 급속히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미래 변화방향을 고려한다면 서울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새로운 사업들이 필요할지, 그리고 현재의 경영구조가 이러한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에 적절한지 평가해볼 시점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서울장학재단의 중장기발전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즉,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울장학재단의 정체성과 방향성 수립 및 운영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서울장학재단이 서울시의 명실상부한 우수인재 육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장학재단의 내·외부 환경분석, 기존 사업 평가, 사례연구, 이해자 조사, 관계자 인식조사, 전문가 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재단의 새로운 비전과 미션 수립,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형 장학사업 발굴,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조직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서울장학재단의 중장기 발전전략은 재단의 비전과 미션 재정립,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추진전략체계 및 조직기반 구축방안, 그리고 미래지향형 장학사업 제안으로 구성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계획과 과제]

- 서울장학재단의 비전과 미션 제시
- 비전과 미션 달성을 위한 단계별 전략과제 수립

[사업]

- 기존 사업의 내실화 및 운영성과 제고방안
- 서울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사업 발굴

[조직]

- 효과적인 재단 조직 운영방안
- 기금확충 및 운영방안

이 연구에서는 특히 중장기 계획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계획과 과제] 및 [사업] 부문 제시에 초점을 두었으며, 제시된 내용들을 실현가능하게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조직] 부문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장학재단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였다. 먼저 장학재단의 조례 및 기존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내부환경을 살펴보았다. 외부환경의 경우, 서울시 및 서울교육청의 장학사업, 자치구 등 공공부문의 장학사업 및 국내외 우수 장학재단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장학재단 전 직원과의 워크숍을 통해 재단 내부의 문제 의식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장학수혜자 및 관계자(교사 등)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서울장학재단 장학금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내·외부 환경분석과 의견수렴결과를 토대로 장학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장학재단의 미래 발전방향과 신규사업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내용들을 종합하여 서울장학재단의 SWOT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전과 미션 및 추진전략들을 제시하였다.

3. 연구 일정

본 연구는 2014년 8월 18일 착수하여 12월 17일까지 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주요 연구진행 일정은 아래와 같다.

- 9월 1일 착수보고
- 9월 24일 직원 내부 간담회
- 10월 15일 전문가 자문회의
- 11월 3일 ~ 12일 수혜자 설문조사
- 11월 10일 중간보고
- 11월 18일 ~ 25일 관계자 설문조사
- 12월 15일 최종보고



그림 1_ 연구일정

4. 연구추진경과

우선적으로 서울장학재단의 사업 검토 및 내·외부 환경 분석을 위하여 서울장학재단 내부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는 이사장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장학재단 내부 조직원의 업무관련 의견을 청취하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간담회의 주요 안건은 ① 장학사업 운영 부문(담당 장학사업 별 문제점 및 제안사항, 기탁금 사업 운영상 문제점 및 제안사항, 장학금 선정 절차상의 문제점 및 제안사항, 장학수혜대상 다각화·다양화에 대한 의견), ② 조직 운영 부문(비상임 이사, 시파견 국장 제도관련 제안사항, 총무, 회계, 예산 부문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인력확충 필요업무, 향후 필요 조직 등 제안사항), ③ 재단 총괄 부문(미션과 비전에 관한 의견, 재단의 성격에 대한 의견,

유사 장학재단 중 벤치마킹할만한 사례 등), ④ 기타(내부 조직원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필요성, 기타 사업제안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원의 사업성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안 제시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수집하였고, 조직 발전방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장학분야, 교육분야, 재정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그간 진행된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주요 이슈는 ① 서울장학재단의 방향성 정립의 필요성, ② 서울장학재단에서 지원해야 할 장학금 지급 대상 문제, ③ 장학금 지급 방식의 문제, ④ 장학사업 운영 재원의 문제, ⑤ 조직운영 계획 수립 등이다. 또한 진행된 유사 장학재단의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을 토론 주제로 활용하였다. 그 시사점으로는 ① 장학지원 성격의 변화: 학비지원→ 생활비 지원, 직업 멘토링, 진로코칭, 재능육성 등, ② 교육소외대상 장학에서 교육복지 장학으로; 저소득층, 차상위층→ 성적우수, 재능우수 등 재능지원으로 ③ 장학수혜 대상자의 다양화 및 세분화 추세: 학교 재학생 중심→ 학교밖 청소년,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여성, 경력단절여성, 미혼모 등, ④ 수요자 중심의 장학서비스 제공 추세, ⑤ 장학기탁금 모집방법의 다각화 추세: 현금→ 유가증권, 시간, 재능, 상품 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① 서울장학재단의 지향점(서울형 인재란?, 서울 장학재단의 독특한 사업영역 발굴 필요성이 있는가?, 서울장학재단의 독특한 사업영역 제안), ② 장학금 지급 대상과 방법(장학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계층은?, 장학금 지급 방법의 사례: 장학 프로그램 포함), ③ 운영재원 확충방안 등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 수혜 대상자 7,3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서울장학재단 장학금의 인지도 및 만족도, 장학관련 행사의 참여도와 수요, 서울장학재단에 바라는 점 등이다.

중간보고에서는 이를 반영한 장학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 장학사업 아이디어 제시(브랜드 장학사업 기획, 하이서울장학금 발전 방안, 장학협의체 구축, 온라인 장학정보 제공 사업 등), 장학

재단 내부분석을 통한 조직 확충 방안, 서울형 인재 육성 방안 모색 등과 관련한 사안이 공유되었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장학 수혜자의 의견과 중간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설문문항은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인지도 및 만족도, 중요도, 내부 환경 분석, 미래 장학사업 발굴, 기존 장학사업의 운영 및 프로세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 설문은 서울장학재단 장학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신규 장학사업에 반영하였다.

최종보고는 현재 서울장학재단의 진단을 바탕으로 서울장학재단의 비전과 미션의 재정립, 신규 사업방향, 조직 확대운영 방안 등과 관련한 사안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표 1_ 연구 추진 경과

착수보고	
일시	2014년 9월 4일 10시
장소	서울장학재단 회의실
참석자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및 전 직원
주요내용	재단 내부 사업 분석 조직 분석, 장학사업 관련 이슈, 장학재단 사업의 지향 점 등 향후 연구방향에 관한 논의
내부직원간담회	
일시	2014년 9월 24일 14시~17시 30분
장소	서울장학재단 회의실
참석자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및 전 직원
주요내용	① 장학사업 운영 부문(담당 장학사업별 문제점 및 제안사항, 기탁금 사업 운영상 문제점 및 제안사항, 장학금 선정 절차상의 문제점 및 제안사항, 장학수혜대상 다각화·다양화에 대한 의견) ② 조직 운영 부문(비상임 이사, 시파견 국장 조직 수장 관련 제안사항, 총무, 회계, 예산 부문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인력확충 필요업무, 향후 필요 조직 등 제안사항), ③ 재단 총괄 부문(미션과 비전에 관한 의견, 재단의 성격에 대한 의견, 유사 장학재단 중 벤치마킹할만한 사례 등), ④ 기타(내부 조직원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필요성, 기타 사업제안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전문가 자문회의	
일시	2014년 10월 15일 10시~12시
장소	서울연구원 회의실
참석자	배은주(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부 연구위원), 유한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이숙원(삼성꿈장학재단 사업1팀 팀장), 이지혜(한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하봉운(경기대학교 교직학과 교수), 최준근(서울장학재단 부장) 및 연구진
주요내용	① 서울장학재단의 지향점은(서울형 인재란?, 서울장학재단의 독특한 사업영역의 발굴 필요성, 서울장학재단의 독특한 사업영역 제안) ② 장학금 지급 대상과 방법(장학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계층, 장학금 지급 방법의 사례: 장학 프로그램 포함) ③ 운영재원 확충방안 등
장학수혜자 설문조사	
일시	2014년 11월 03일 ~ 11월 12일(총 10일)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e-mail 발송)
대상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수혜자
주요내용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수혜자를 대상으로 장학금 만족도, 서울장학재단에 대한 인식 및 서울장학재단의 향후 방향성 도출에 관한 의견을 수렴

표 계속_ 연구추진경과

중간보고	
일시	2014년 11월 10일 15시~17시
장소	서울장학재단 회의실
참석자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및 전 직원
주요내용	장학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 장학사업 아이디어 제시(브랜드 장학사업 기획, 하이서울장학금 발전 방안, 장학협의체 구축, 온라인 장학정보 제공 사업 등), 장학 재단 내부분석을 통한 조직 확충 방안, 서울형 인재 육성 방안 모색 등
전문가 의견조사	
일시	2014년 11월 18일 ~ 11월 25일(총 8일)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e-mail 발송)
대상	고등학교 교사, 교육 관련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주요내용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인지도 및 만족도, 중요도 내부 환경 분석, 미래 장학사업 발굴, 기존 장학사업의 운영 및 프로세스의 문제 점과 개선방향 등
최종보고	
일시	2014년 12월 15일 15시~17시
장소	서울장학재단 회의실
참석자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및 전 직원
주요내용	서울장학재단의 비전과 미션의 재정립, 현 사업 진단 및 해결방안, 미래 사업방 향, 전략추진 방안, 조직 확대운영 방안 등을 포괄한 중장기 발전계획 제안

II. 서울장학재단의 내부 환경분석

II. 서울장학재단의 내부 환경분석

2008년 서울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조례가 공포된 이후, 2009년 설립 등기 당시에는 서울시 학교지원과 장학사업팀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였다. 대학원분야 장학생 선발, 고교분야 장학생 선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년 2월 사무국직원 3명 채용과 함께 재단을 독립적으로 운영, 현재에 이르렀다.

장학사업은 서울시 출연금 사업의 확대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고등학교 분야 장학업무 영역 확대를 위해 행정과에서 추진해 온 장학금 지급 및 관리(반납, 추가 지급 등) 업무를 장학재단으로 이관하고, 신규 장학사업으로 대학분야, 재능장학금, 다솜학교 장학금 등을 운영하였다. 또한 민간 지정기탁금 확보하여 우리아이희망장학금, 씨티코스비여성CEO장학금, 푸른꿈희망장학금 뿐만 아니라, 희망파티쉐장학금 등 민간부문과 협력을 통한 틈새 장학사업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다.

표 2_ 서울장학재단 연혁

2007. 11. 7	서울장학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2008. 5. 29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공포.시행
2008. 12. 8	장학재단 설립허가 승인(시교육청)
2008. 12. 24.	장학재단 창립총회
2009. 1. 8	재단 설립 등기
2009. 1. 13	재단 사업자 등록
2010. 2. 1	재단 사무국 개소 및 재단 직원 채용(3명)
2010. 3. 1	재단 독립 운영 개시
2010. 12. 1	재단 직원 채용(1명)

1. 장학재단 조례 및 규정

서울장학재단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설립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서울장학재단은 ①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② 서울시로부터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받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르면, 서울장학재단의 운영 목적은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것에 있다. 또한 이러한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은 1.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 학비지원 사업, 2. 우수한 대학생·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 3.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특정 지어져 있다. 또한 장학금 지급대상은 “서울시 거주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차상위 계층이거나,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정된다.

이는 재단의 조례가 기존 학비지원사업을 근거로 제정됨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만큼 유연성을 갖추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즉 포괄규정 삽입 등을 통한 해결책의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 중도포기자, 유학생, 학교밖 청소년 등 서울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대상들을 파악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단발성 장학금 수혜기간의 문제점 해결방안(지속지원과 매학기 신규선발 문제 등)을 위한 근거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7. 1] [서울특별시조례 제4847호, 2009.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 학비지원 사업
2. 우수한 대학생·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
3.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2.5.22)

1.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 계층의 자녀인 자
 2.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인문학, 기초과학, 기초연구분야의 전일제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재학생(진학예정자 포함) 중에서 지도교수 또는 대학총장이 추천한 자(개정 2009.09.29)
 3.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재학생(휴학생 포함) 중에서 사회봉사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이 추천한 자(개정 2009.09.29)
 4.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 중 지역균형발전 및 교육격차 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또는 지정된 고등학교의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신설 2009.09.29)
 5. 실직, 파산, 질병 등 기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또는 총장이 추천한 자(신설 2012.5.22)
-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한 지급기준 등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09.29, 2012.5.22)

2.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사업 현황 및 분석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은 기금 출연 형태에 따라 하이서울장학금을 운영하는 고유 장학사업 영역과 자체 장학사업 영역, 그리고 기탁 장학사업 영역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고유 장학사업 영역인 하이서울장학금의 경우 대학원, 대학교, 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 청소년, 공익인재 등 6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다. 2004년 서울시의 「사회복지기금조례」에 따라 지원되던 하이서울장학금은 2009년 서울장학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재단의 주요 사업으로 편성되었다.

자체 장학사업영역에는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금과 대학생 멘토링 강연사업이 있다.

기탁 장학사업 영역에는 우리아이 희망, 푸른꿈희망(에코시티 서울), 희망파티쉐(신세계SVN), 시티-코스비여성CEO(중소기업연구원), 청춘 START장학금(두산), 꿈나무(두산동아), 소나무(파인원커뮤니케이션즈), H-Jump 스쿨(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유영아(KSEC), EPSON 글로벌 리더(EPSON) 등이 있다.

2_1 고유 장학사업 현황

서울장학재단은 하이서울장학금 고등학교 분야의 경우 2005년부터, 하이서울장학금 대학원 분야의 경우 2004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표 3_ 서울장학재단 고유사업 현황(2014년 10월 현재)

(단위: 명, 천원)

구분	하이서울 장학금					
	대학원	대학	공익인재	고등학교	하나고	청소년 재능
지원 자격	기초학문분야 미취업 박사과정생	차상위계층 대학생	사회공인분야 리더십 활동경험 대학생	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 고교생	사회적배려 계층 고교생	예체능분야 재능이 있는 중고교생
연인원	4	3,700	50	13,000	81	100
지원액 (1회)	인문학 2,500 과 학 3,000	1,000	3,000	학비전액	5,400	3,000
사업 기간	2005년~ 2013년	2012년~현재	2013년~현재	2004년~현재	2010년~현재	2012년~현재
'14년 예산액	11,500	3,708,250	376,476	6,009,500	324,000	310,000
비고	출연금	출연금	출연금	출연금 50억 + 민간지정기탁 금 10억원	출연금	출연금

하이서울장학금 대학원 분야

하이서울 대학원 분야 장학금은 기초 학문분야의 핵심 연구 인력 육성으로 기초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기초 학문을 통한 미래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학문(과학, 인문학)분야의 미취업 박사과정생이 지원대상이며, 연 2회 대학원 등록금(입학금, 기성회비 포함)이 지급된다. 장학생 관리를 위해 성적, 학기등록 여부, 매학기 연구활동 보고, 봉사활동(7시간 이상) 참여 등을 확인하고 있다.

2012년 이후 신규 장학생 선발이 중단된 상태로, 기존 장학생에 한하여 잔여 지급기간 내 장학금을 지원 후 사업 종료 예정이다.

표 4_ 하이서울장학금 대학원 분야 추진실적

(단위: 천원, 명)

연도	지급액	선발인원
2013년	273,000	100
2012년	1,695,500	619
2011년	3,262,500	1,189
2010년	4,883,000	1,778
2009년	4,668,500	1,696
2008년	4,984,500	1,809
2007년	4,896,000	1,769
2006년	3,659,000	1,294
2005년	1,401,000	467
총계	24,663,000	8,960

* 2009년 이후 서울장학재단 추진 실적

하이서울장학금 대학교 분야

하이서울 대학교 분야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미래인재로 성장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규모는 3,708,250천원(서울시 출연금)이며, 서울지역에 재학하는 차상위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대학별 계좌 입금을 통해 장학금이 지원되며, 장학생 관리를 위해 장학금 지급 관련 성적, 학기등록 여부, 장학금 이중지원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표 5_ 하이서울장학금 대학교 분야 추진실적

(단위: 천원, 명)

연도	지급액	선발인원
2013년	3,700,000	3,700
2012년	4,000,000	4,000
총계	7,700,000	7,700

하이서울장학금 공익인재 분야

하이서울 공익인재분야 장학금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지역 공동체에서 나눔과 성장을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관을 가진 서울의 미래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지역 사회와 공공부문의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천하는 서울의 우수 사회적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376,476천원(서울시출연금, 하나투어기부금, 자체운

용소득포함)이며,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으로서 사회공익분야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활동한 경험을 가진 대학생(전문대 및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연간 50명, 학기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분야는 사회복지, 사회창의, 공익이슈 등 세 분야이다. 공익 활동기여도, 미래성장가능성, 가정환경, 성적 등 종합평가를 통해 선발되며, 대학별 계좌 입금을 통해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생 관리를 위하여 오리엔테이션(장학증서 전달, 공익워크숍), 공익 프로젝트 운영, 장학생 온라인 카페 운영, 해외봉사(제3세계 국가를 방문하여 봉사활동 및 현지 문화 체험 추진, 하나투어 기탁금 활용), 장학생 MT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표 6_ 하이서울장학금 공익인재 분야 추진실적

(단위: 천원, 명)		
연도	지급액	선발인원
2013년	250,850	50
총계	250,850	50

하이서울장학금 고등학교 분야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고교생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서울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학금이다. 일반고 9,770명, 특성화고 3,000명, 평생고 110명, 다솜학교 120명 등 연간 4회에 걸쳐 13,000명(330개 고등학교 3,250명)의 고등학생을 선발한다. 지원 규모는 약 59억원(서울시 출연금 50억원 + 민간지정기탁금 9억원, 2014년 현재)이며, 학비 전액(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특성화고의 경우 학교운영비만 지급)을 지원하게 된다. 특성화고의 경우 수업료를 국가에서 지원하므로, 일반고 중심으로 인원 배정하고 있다.

교육전문가, 고교장 등으로 구성된 하이서울장학위원회를 개최하고, 장학생 선정 심의 과정을 통해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생 관리를 위해서 졸업생 현황(대학진학률, 취업률)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2004년 71억 원으로 시작하였으나, 2012년 이후 지원대상과 규모가 약간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예산의 경우 서울시 일반예산 출연금과 민간기탁금을 확보·활용하여, 저소득층 자녀 장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7_ 하이서울장학금 고등학교 분야 추진실적

(단위: 천원, 명)

연도별	지급액	선발인원
2013년	5,927,717	14,472
2012년	5,915,227	14,730
2011년	9,966,514	25,214
2010년	9,998,444	21,481
2009년	9,929,943	21,418
2008년	9,918,130	21,555
2007년	9,032,692	19,843
2006년	9,095,911	20,975
2005년	9,009,774	21,525
2004년	7,157,910	18,006
계	69,784,578	159,688

하이서울장학금 하나고등학교 분야

하나고등학교에 입학한 저소득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학교생활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의 우수한 서울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하나고 설립 당시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원의 15%를 의무적으로 사회적배려자로 선발하고 장학금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현재 81명으로 하나고등학교 사회적배려 대상자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학금은 학교지정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장학생 개인별 장학금 지급내역을 관리, 잔액이 있을 경우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학생 관리차원에서 장학금 수혜자(졸업생)의 진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표 8_ 하이서울장학금 하나고등학교 분야 추진실적

(단위: 천원, 명)

연도	지급액	선발인원
2013년	486,000	90
2012년	483,300	90
2011년	324,000	60
2010년	162,000	30
계	969,300	180

[사회적배려대상자]

- 사회적배려대상자 중 경제적배려대상자

우선순위	선발 대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2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3	차차상위계층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학생
4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 장이 판단. 추천한 자 ⇒ 추천기준(표1)

- 사회적배려대상자 중 비경제적배려대상자 : 조손가정자녀, 다자녀가정의 자녀, 환경미화원의 자녀, 순직군경·교원·공무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경찰자녀, 소방공무원, 군인 자녀, 다문화가정의 자녀

하이서울장학금 청소년 재능 분야

예체능 분야에 재능을 가진 저소득가정의 자녀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경제적 어려움 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고교 재학생중 음악¹⁾, 미술²⁾, 체육³⁾, 무용⁴⁾ 분야 장학생 100명 내외를 선정하여, 연 300만원 이내의 재능개발 장학금(재능개발 실기 지도비, 학원비, 훈련참가비 등 영수증 증빙이 가능한 경우)을 지원한다.

학교 행정실 계좌로 지급 후 학교에서 학생에게 2회(4월, 9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있으며, 장학생 근황보고서를 취합하여 학생 현황파악 및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또한 장학생 근황보고서 및 장학금 만족도 설문조사를 연 1회 시행하고 있다.

- 1) 국악, 기악, 성악, 작곡분야 전공자
- 2) 회화, 조형, 공예, 디자인분야 전공자
- 3) 학교 내 운동부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자(단, 운동부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최근 3년 이내 시·도 단위 이상 공인된 기관에서 주최한 대회 수상자는 지원가능)
- 4) 전통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실용무용분야 전공자

이 장학금의 특징은 분야별 멘토와의 만남 실시 등 재능 개발 관련 멘토 특강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재능 개발을 돕는다는 점이다.

표 9_ 하이서울장학금 청소년 재능분야 추진실적

(단위: 천원, 명)		
연도	지급액	선발인원
2013년	293,079	104
2012년	290,092	110
총계	223,400	214

2_2 자체 장학사업 현황

자체사업은 하이서울 장학금이 서울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서울장학재단의 기본재산 운영소득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자체사업으로는 대학생 멘토링 강연사업과 글로벌 인재 장학금이 있다.

표 10_ 자체사업 현황

구 분	대학생 멘토링 강연사업	글로벌 인재 장학금
지원대상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수혜 하는 장학생 등	- 서울지역 대학생(휴학생 지원가능) - 해외에서 진행되는 국제교류 활동 참가가 확정된 자
지원인원	회차별 30~50명 내외	60명 내외
추진내용	대학생이 관심 있는 진로 분야 현장에서 활동하는 3·40대 직장인, 전문가, CEO의 강연	장학생 오리엔테이션, 장학생 커뮤니티 운영, 결과발표회 및 결과보고서 제작/배포
사업예산	23,000천원	185,400천원 아시아국가(250만원) 구외 국가(350만원)

대학생 멘토링 강연 사업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이 건강한 미래 진로를 설계하도록 분야별 선배와 함께 소통하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불확실한 미래로 고민을 가진 대학생이 더 이상 묻지마 취업이 아닌 자신의 삶의 자리를 찾도록 사회 선배의 경험을 공유하여 서로 실질적인 고민을 나누고 일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소통의 장을 제공한다.

2014년 분기별로 진행되었으며, 회차별 30~50명 내외 서울장학

재단의 장학금을 수혜 하는 장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강연은 대학생이 관심 있는 진로 분야 현장에서 활동하는 3·40대 직장인, 전문가, CEO 등으로 진행된다.

글로벌 인재 장학금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에게 관심분야에 대한 해외탐방기회를 제공하고, 해외인턴십, 해외문화 체험 등을 통해 저소득 학생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 기회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185,400천원으로, 신청자격은 서울시역 대학생, 해외에서 진행되는 국제교류 활동 참가가 확정된 자(최저생계비의 200% 이내, 전체 성적 평점 80점 이상)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장학금은 아시아 국가 250만원, 그 외 국가 350만원이 지원된다. 장학생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 오리엔테이션(해외탐방 관련 세부내용 협의), 장학생 커뮤니티 운영, 장학생 결과발표회, 결과발표 보고서 제작, 배포 등이 진행된다.

2_3 기탁 장학사업 현황

2014년 현재 서울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탁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1,191,812천원 규모이다.

표 11_ 기탁 장학사업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우리아이 희망	푸른꿈 희망	희망파티쉐	Citi-KOSBI 여성CEO	청춘 Start	꿈나무	소나무	H-Jump 스쿨	유영아 학업	Epson 글로벌 리더
지원 대상	위기가정 자녀 (중·고·대학생)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초·중·고교생	제빵에 재능 있는 고교생	소녀가장 조손가정 전문계 고교생	대학신입생 및 시설 생활 학생	저소득가정의 초등학생 (차상위계층 및 위기가정)	서울소재 대학생	서울4년제 대학생/멘토링이 가능한 자	서울소재 4년제 대학 재학생	서울지역 고교 및 대학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 인원	240	40	40 (1기 20 2기 20)	6	28	50	23	125	25	130
지원 금액	긴급분야 -150,000 희망분야 -50,000	초등학생 200 (1회 지급)	300 (분기별 지급)	500 (연2회 지급)	6,000원 (학기당 3,000)	26,000 (1인당 500)	6,000 (학기당 3,000)	2,500	연간 4,000	고교생 2,000/ 대학생 5,000
시작 연도	2010년	2010년	2011년	2010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3년	2013년	2014년
'14 사업 예산	201,970 (전기이월금)	8,131	42,000	5,000	119,373	26,000	125,424	197,019	51,895	440,000
기탁자	개인 및 법인 기부자	서울시 SR센터	(주)조선호텔 베이커리	써티-코스비 여성기업아카데미 여성기업인 수강생	(주)두산	(주)두산동아	(주)파인윌커뮤니케이션즈	(주)현대자동차 (주)기아자동차	KSEC 대표 유영아 지원	한국엠손 청소년 육성재단
비고	초·중·고교 폐휴대폰 매각수익금 활용				교육 출석담보금 활용			네트워킹 활동활발		

우리아이 희망 장학금

보호자의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러운 가정의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 자녀(중·고·대학생)와 수업료 외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등 공교육에서 정규수업 외에는 교육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고교생에게 학업보조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 대처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과 공교육의 복지사각지대 및 틈새영역을 지원하며, 자치구와 연계하여 긴급위기가정의 생활비 지원 및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등 특기적성 지도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분야는 긴급분야와 희망분야로 나뉘며, 연간 240명에게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긴급위기가구로 선정된 가구의 중·고·대학생(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소득, 재산기준 13,500백만원, 금융자산 500만원 이하)이 대상자이다. 한부모의 경우 「한부모가정지원법」에 근거하여 법정 한부모 가정으로 선정된 가구에서 갑작스러운 가장의 사망, 질병(4대 중증질환)으로 소년소녀가장이 되거나 가구소득이 없는 긴급한 위기 상황인 경우가 해당된다. 희망분야는 학업 보조비 지원 자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지정된 수급자 가정의 고교생(고 3수험생 우선) 가운데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논술지도비 등이 미납되어 결식을 하고 있거나 진학을 위한 정규수업시간 외 학교의 특기적성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그 대상이다.

장학금은 자치구 계좌 및 개인 계좌를 통해 지급되며, 장학수기 공모를 통해 사례 발굴하여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취지를 다지고 있다.

표 12_ 우리아이 희망장학금 지원분야

(단위: 천원, 명)

구분	긴급분야		희망분야
	긴급복지	한부모	
자격	긴급위기가정 자녀 (긴급복지지원법근거)	법정한부모가정 가장의 사망, 중증질병	수급자 가정의 고3 수험생으로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미납자
대상	중·고·대학생	중·고·대학생	고등학생
선발	자치구 추천	재단 자체접수	자치구 추천
장학금	중·고교생-1,000 대학생-2,000	중·고교생-1,000 대학생-2,000	고교생-500
인원	중·고교생-125 대학생-5	중·고교생-5 대학생-5	고교생 100
예산	135,000	15,000	50,000

표 13_ 우리아이 희망장학금 추진 실적

(단위: 천원, 명)

연도	지급액	선발인원
2013년	187,000	159
2012년	123,000	123
2011년	48,800	77
2010년	51,600	80
총계	358,800	359

푸른꿈 희망 장학금

학교에서 수거된 폐휴대폰 수익금으로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손가정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중단의 위기에서 벗어나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결손가정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습동기와 정서적인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해 자치구와 학교의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 참여율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2014년도의 경우 8,131천원, 2013년도 하반기 휴대폰 수거 캠페인 미진행으로 인해 2013년 전기이월금 내에서 장학사업이 운영된다. 선발대상은 저소득 결손가정(한부모, 조손, 위탁가정)의 초등학생으로 학습보조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이중수혜가 가능한 장학금이다. 2014년 1학기 40명을 선발할 계획 중에 있다.

표 14_ 푸른꿈 희망장학금 추진 실적

(단위: 천원, 명)		
연도	지금액(천원)	선발인원(명)
2013년	87,500	483
2012년	119,241	732
2011년	31,000	64
2010년	51,600	80
총계	237,741	1,359

희망 파티쉐 장학금

제빵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고교생에게 전문 제빵 기업과 공동으로 전문실습교육에서 취업까지 지원하는 진로연계형 장학금이다. 제빵에 재능을 가진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기술교육과 장학금을 지원하고 제빵분야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단계별 교육시스템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지원규모는 18,000천원으로 서울소재 제빵에 재능을 가진 고등학생이 그 대상이다. 분기별로 300,000원의 학습지원비가 지원되며, 3년 과정의 실기교육(학기 월1회, 방학 주2회)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주)신세계SVN의 기탁사업으로 매년 기탁의사에 따라 사업규모의 차이가 있다.

표 15_ 희망 파티쉐 장학금 추진 실적

(단위: 천원, 명)		
연도	지금액	선발인원
2013	43,200	37
2012	39,900	39
2011	18,000	20
총계	101,100	96

씨티-코스비 여성 CEO장학금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소년가장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중단의 위기에서 벗어나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녀가장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습동기와 정서적인 안정감을 부여하고자, 특성화고교 소녀가장 및 위탁가정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2010년부터 특성화고(중소기업연구원 수강생지정기탁)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2014년 경우 지원규모는 9,389천원으로 7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기부자와 장학생이 직접 대면하여 자발적인 멘토링 유도를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마련한다.

표 16_ 시티-코스비 여성 CEO 장학금 추진 실적

연도	지급액	(단위: 천원, 명)
		선발인원
2013	5,000	7
2012	4,000	6
2011	9,500	11
2010	12,000	12
총계	30,500	36

청춘 Start 장학금

대학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앞둔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이 높은 등록금으로 배움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주)두산의 기탁금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소재 대학 입학예정자 중 저소득 소외계층(수급자, 차상위, 복지시설 거주) 학생에게 첫 학기 등록금 지원하고, 기금 기탁기업과 연계를 통한 멘토링, 문화활동, 봉사활동 등 장학생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4년 지원규모는 119,373천원으로 저소득 소외계층 대학 신입생뿐만 아니라, 그룹홈, 쉼터, 보육원 등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연간 6,000천원(학기당 3,000천원 * 2개 학기)이 지원되며, 멘토 특강(직업과 진로, 리더십, 대학생활에 대한 초청 특강), 선배와의 만남(1기 장학생 사례 발표 및 대학생활 자립계획 수립 조언), 두산 Home-coming day를 통한 임직원의 1일 멘토 프로그램 기획 진행, 장학생 대학생활 수기 작성 등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그림 2_ 2014년 두산임직원과 함께하는 멘토링

표 17_ 청춘 Start 장학금 추진 실적

(단위: 천원, 명)		
연도	지급액	선발인원
2014	-	14
2013	5,000	13
총계	5,000	27

꿈나무 장학금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생을 선발하여 (주)두산동아의 기탁금으로 지원되는 장학금이다. 저소득가정 초등학생 50명에게 학업보조 장학금이 지원되며, 지원규모는 26,000천원(학생 1인당 50만원 1회 지원)이다.

표 18_ 꿈나무 장학금 추진 실적

(단위: 천원, 명)		
연도	지급액	선발인원
2013	26,000	51
2012	25,000	50
총계	51,000	101

소나무 장학금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지역 공동체에서 나눔과 성장을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관을 가진 서울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장학금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의 사회를 위한 공익적 가치관 및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인재를 지원하여 미래의 우수한 사회적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주)파인원커뮤니케이션즈의 기탁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원규모는 125,424천원으로, 연 23명(신규선발 10명, 계속지원 인원 13명)에게 학기당 3,000천원이 지급된다. 장학생 관리 프로그램으로 오리엔테이션(장학증서 전달, 장학생 네트워크), 장학생 온라인 카페 블로그 운영(장학생 활동 공유 및 네트워킹), 장학생 운영진 구성 및 운영(기획팀, 홍보팀), 장학생 공익활동 보고서 제작 및 공유 등이 운영된다.

표 19_ 소나무 장학금 추진 실적

(단위: 천원, 명)		
연도	지급액	선발인원
2013년	39,000	13

H-Jump 스쿨 장학금

‘H-점프스쿨’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서울장학재단 및 청년 사회적기업 ‘점프’와 함께 진행하는 미래 인재양성 프로젝트로,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점프(Jump)’가 가능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소외계층 청소년에게는 양질의 교육을 지원하고 대학생에게 장학금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리더십, 봉사정신, 인문학적 소양, 글로벌 감각을 갖춘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대차의 기탁장학금이다.

표 20_ H-Jump 스쿨 장학금 장학생 봉사활동 현황

구분	내용	비고
활동기간	2014. 9 ~ 2015. 7	1년(두 학기)
활동시간	1일 평균 4시간 * 주3회 =>주당 12시간	학습+식사+체험학습 시간은 센터와 협의하여 구성
활동장소	지역 아동센터 및 복지관	15개 연계기관
담당인원	장학생 1명당 청소년 3~5명	세부인원은 센터와 협의

2014년 지원규모는 197,019천원으로 125명(1기 50명, 2기 75명)을 선발, 연간 2,500천원 지원(선발 후 50%, 1년 활동 종료 후 50% 지급)하고 있다. 향후 5년간 500명의 대학생을 대한민국 미래 핵심인재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2천명의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학습지도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선발된 장학생은 현직 종사자들과의 진로 연계 멘토링, 역사, 예술, 철학 등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인문학 특강, 우수 장학생을 선발하여 해외탐방 기회 및 해외봉사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받는다. 장학생 관리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이 월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표 21_ H-Jump 스쿨 장학금 장학생 교육 현황

구분	내용	비고
진로 멘토링	학업, 진로분야 상담제공	점프&현대자동차그룹 멘토단
인문학특강	철학·역사·문학·예술	인재로서의 기본자질 교육
해외탐방	아이비리그 대학 및 국제기구	청소년 5명과 함께 1:1 인솔
해외봉사	글로벌 청년봉사단 참가기회	현대자동차 해피무브

* 해외탐방 및 해외봉사는 활동 우수 장학생에게만 기회제공



그림 3_ H-Jump 스쿨 인문학 특강

2013년 1기 '장학샘(장학생과 선생님의 합성어)'의 경우, 50명 모집에 1000여명이 지원해 2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총 62,500천원이 지원되었다.

표 22_ H-Jump 스쿨 장학금 추진실적

(단위: 천원, 명)		
연도	지급액	선발인원
2013년	62,500	50

유영아 학업장학금

학업의지가 강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에 쏟는 시간을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업장려비를 KSEC 대표 유영아가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성적향상을 보인 학생들에게 학문적 성취감과 학업을 지속하는 동기 부여를 하는 것이 당 장학금의 목적이다.

2014년의 경우 지원규모는 51,895천원으로 서울소재 4년제 대학 재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최근 세 학기 연속적으로 학업성적 향상을 보인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5명(1기 12명 / 2기 13명)을 선발, 학생 1인당 2,000천원 2회 지원한다.

표 23_ 유영아 학업장학금 추진 실적

(단위: 천원, 명)		
연도	지급액	선발인원
2013	24,000	12

Epson 글로벌 리더 장학금

저소득가정의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미래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주)에pson의 기탁장학금이다.

지원규모는 440,000천원(한국에pson청소년육성재단 기부금)으로 연간 130명(고교생 70명, 대학생 60명)을 선발하며, 고교생 2,000천원, 대학생 5,000천원이 학교별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글로벌 리더 가능성을 살피기 위한 장래 계획과 가정환경(건강 보험료, 국가 장학금 수혜율 등), 학교생활(추천서, 성적, 사회활동 등)의 심사기준을 통해 선발된다.

장학생 관리를 위해 고교생의 경우 장학생과 함께하는 문화 활

동, 학생 수기,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장학증서 수여식, 장학생 오리엔테이션이, 대학생의 경우 장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해외 교환학생 소식 소개), 장학생 수기, 교환학생 결과발표회 개최, 장학증서 수여식, 학생 오리엔테이션 등이 진행된다.

표 24_ Epson 글로벌 리더 장학금 선발대상

구분	고교생	대학생
대상	- 기존장학생: 20명(저소득가정) - 신규선발장학생 50명 · 최저생계비 200%이내 가정 · 다문화, 외국인 대상의 사회봉사 동아리활동에 참여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글로벌 인재로서의 자질을 갖춘 학생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4~5분위 학생 중 학교주최 2014년 2학기 해외교환, 파견프로그램의 참여가 확정된 학생 - 학교성적 3.5(4.5)/3.3(4.3)이상

* 고교분야 기존장학생 장학금 지원은 한국애플소년육성재단의 장학금 기탁시 서울장학재단과 사전 협약된 내용으로 한국애플소년육성재단의 기존장학생 20명(2학년 10명, 3학년10명)에게 학교졸업시 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함

3. 내부 환경분석 종합

장학금 수혜대상별 사업현황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을 크게 자체 장학사업(하이서울 장학금 + 자체 장학사업)과 기탁 장학사업으로 구분하여 수혜대상별 지급현황을 살펴보았다.

현재 서울장학재단의 사업은 하이서울 장학금 중심의 사업구조로, 고교/대학교 학비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고등학생은 자체 장학금의 경우 인원수에 있어 79.3%, 지급금액에서 58.9%를 차지하며, 기탁장학금의 경우 인원수에 있어 37.6%, 지급금액에서 1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은 자체 장학금의 경우 인원수에 있어 20.5%, 지급금액에서 41.0%를 차지하며, 기탁장학금의 경우 인원수에 있어 15.8%, 지급금액에서 3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탁장학금의 경우 장학금 규모면에서 자체장학 사업의 11% 수준이지만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수혜대상의 폭이 보다 넓음을 알 수 있으며, 인당 수혜금액 또한 자체 장학금에 비해 2~3배가량 높다.

장학금 지급대상은 차상위 계층 고등학생- 인문학, 기초과학, 기초 연구 분야 대학원생, 사회봉사 실적 우수 대학(원)생, 지역 균형 발전 및 교육격차 해소사업 지정 고등학교 학생, 기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으로 경제적인 기준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표 25_ 장학금 수혜대상별 사업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자체			기탁		
	인원수	지급금액	인당지급금액	인원수	지급금액	인당지급금액
초등학교				534 (47.4%)	101,523 (8.0%)	190 (2.2%)
고등학교	14,666 (79.3%)	6,796,000 (58.9%)	463 (10.1%)	44 (3.9%)	67,472 (5.3%)	1,533 (18.0%)
대학교	3,785 (20.5%)	4,740,000 (41.0%)	1,252 (27.3%)	178 (15.8%)	453,573 (15.8%)	2,548 (30.0%)
중~대학교				240 (21.3%)	201,970 (16.0%)	842 (9.9%)
고~대학교				130 (11.5%)	440,000 (34.8%)	3,385 (39.8%)
대학원	40 (0.2%)	11,500 (0.1%)	2,875 (62.6%)			

※ 괄호안 전체대비 비중

무상교육 및 국가 장학금이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경제적 기준 이외에도 서울의 인재육성 차원에서 보다 다차원적인 기준 발굴이 요구된다.

특히 하이서울 장학금의 경우 장학재단과 수혜자간 교류 없이 고등학교나 대학의 행정실을 통해 학비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를 통한 등록금 지원이 서울시 우수 인재 양성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뿐만 아니라 장학 수혜 지원 대상이나 지원 기간 등에 대한 고민 등 장학재단 사업의 전반적인 진단 및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장학 수혜대상임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인 현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 장학사업(멘토링 강연 사업 등)이 시행 중이나 사업구조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또한 기존 사업성과 검증 및 환류체계가 부재한 상황으로 이의 검토를 통한 발전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사업을 통해 본 재무구조

서울장학재단의 재무구조는 크게 서울시 출연금(SH공사 기탁금 포함), 민간지정기탁금, 기본재산 운용소득으로 구분된다. 현재 서울장학재단은 출연금 수입이 85.4%로, 출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서울시, 서울시 의회 등의 정책 변화에

장학사업이 종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출연금 운용목적 제한으로 사업다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기부금 모집에 제한이 있다. 즉 찾아오는 기탁자 외에는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적극적인 장학사업 영역 개발에 한계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기탁금 운영의 경우 9개 장학금 15억원 규모로, 전체 장학사업의 8% 규모이나, 사업규모에 비해 높은 행정 운영비용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장학기탁 견인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장학사업 연계 등 장학사업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의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6_ 서울장학재단 재무구조

(단위: 천원)

연도	계	보통재산출연금	민간기탁금	기본재산운용소득
2009년	6,230,286	6,229,500	10	776
2010년	16,883,908	6,779,000	186,802	70,106
2011년	15,269,264	15,585,244	61,980	141,040
2012년	22,974,109	13,696,000	5,598,488	144,621
2013년	12,266,281	11,118,336	594,147	483,798
2014년	11,927,430	10,187,856	1,548,481	191,093

* 2010년, 2011년 SH공사 기탁금 서울시 출연금 처리
2014년 시출연금; 예정입금액, 민간지정기탁금: 9월말 기준, 장학사업비: 사업예산서상 금액

지난 5년간 예·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출연금 수입은 2009년 62억원에서 2011년 155억으로 급증했다, 2014년 현재 120억원 수준이다. 2010년 이후 고유/자체 장학사업 영역에 쓰이는 예산이 출연금 규모를 상회하고 있다.

기탁 장학금의 경우 2010년 1.8억에서 2011년 5억, 2012년 3.1억, 2013년 3.4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사업예산에 있어 1% 이하의 규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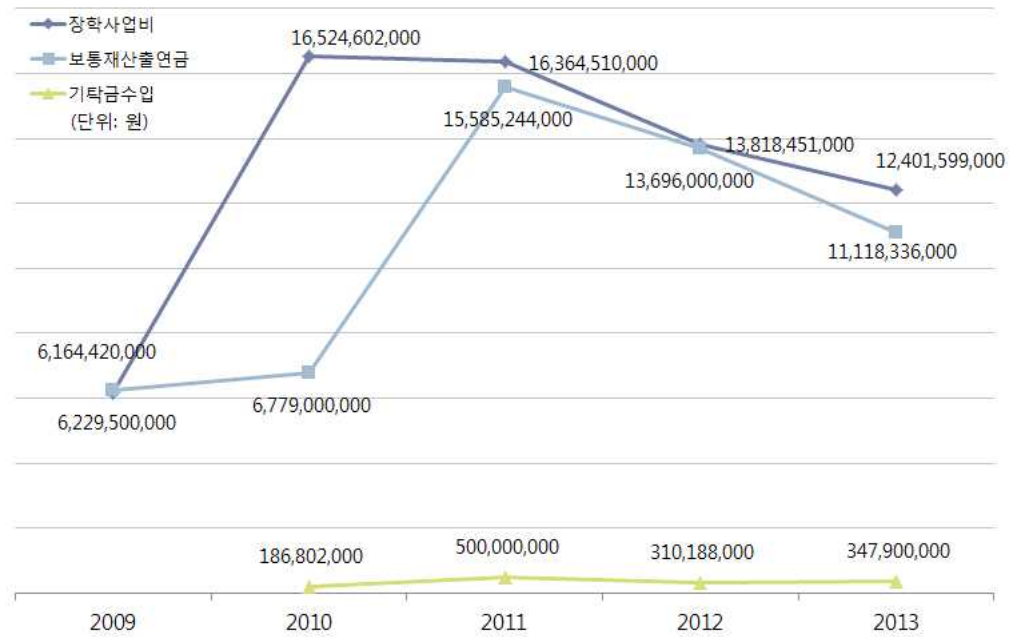


그림 4_ 서울장학재단 최근 5년간(2009~2013) 예·결산 추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략>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중략>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중략>

4.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중략>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중략>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조직운영

서울장학재단은 비상근 이사(이사장) 체제 유지와 최소의 실무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장학재단은 독립된 법인체의 운영 기능과 역할 뿐 아니라 서울시 출연사업 및 민간 부문과 연계한 장학사업 등 매우 다양한 사업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하기 힘든(업무순환 등의 이유로) 공익 법인 업무를 비롯하여 공익분야 장학사업 개발, 사업관리방법, 전문가 네트워크 등 장학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연간 운영예산도 약 16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업무에 비해 조직규모는 매우 열악하다. 이사장(비상근)과 사무국장(서울시 파견직)하에 5명의 인원이 모든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 부장의 총괄아래 장학사업 운영 담당자 2명, 총무, 회계, 예산 담당자 1명, 장학사업, 정보화, 기타 행정업무 담당자 1명으로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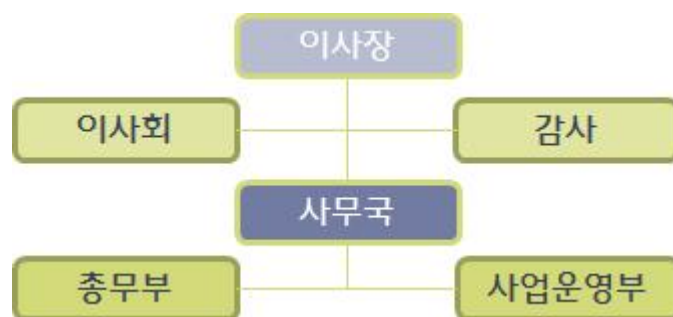


그림 5_ 서울장학재단 조직도

실제로 서울장학재단은 서울시 출연기관 중 가장 작은 조직,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서울시 출연기관이 기획, 경영, 홍보, 시설관리(전산) 등 조직이 세분화 되어 있고, 직원의 수가 최소 30여명 이상이다. 비슷한 예산규모를 가진 서울시 출연기관의 조직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현재 서울장학재단의 조직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2014년 예산 규모가 가장 비슷한 서울시립교향악단(약 174억원)은 교향악단을 제외하면 1본부 4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1본부는

경영본부이고, 그 안에 경영관리팀, 공연기획팀, 문화사업팀, 홍보마케팅팀으로 구분되어 있다. 4팀의 총 인원은 28명이다. 서울시복지재단(약 187억원)의 조직은 1보좌관, 2실, 1센터, 3본부 12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성사업부분을 담당하는 곳은 지역복지본부와 공공협력본부 등 2본부 7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략경영본부는 기획조정팀, 행정지원팀, 재무팀으로 세분화 되어 23명의 직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서울장학재단보다 예산규모가 작은 두 조직을 살펴봐도 서울장학재단보다 더 세분화 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올 해 예산이 약 24억원으로 가장 적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조직도는 1국 3부 5팀이다. 3부는 경영기획부(경영지원팀), 협력사업부(전략홍보팀/지역협력팀), 조직지원부(공공전략팀/조직지원팀)로 구성되어 있고, 총 인원은 26명이다. 다음 올 해 예산 약 97억원인 여성가족재단은 3실 1센터 5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3실은 경영기획실(기획행정팀/공간운영팀), 정책연구실(정책1팀(여성가족)/정책2팀(보육아동, 청소년)), 사업운영실(네트워크팀)이고, 총 인원은 52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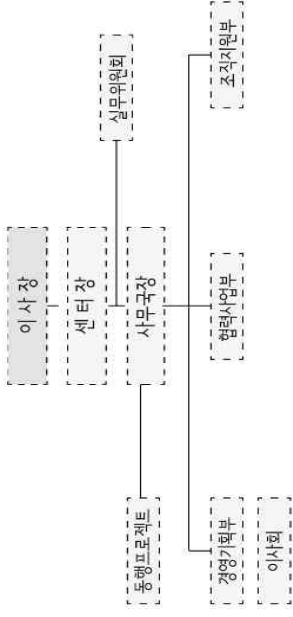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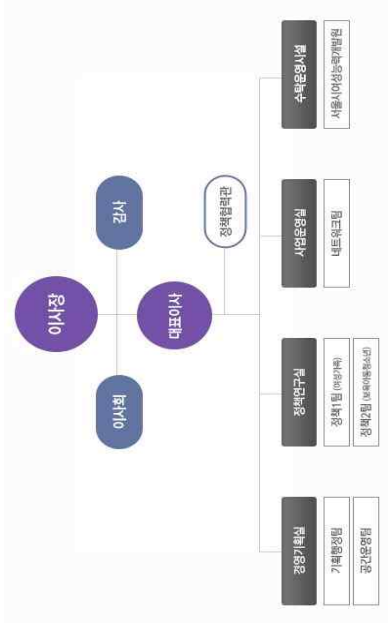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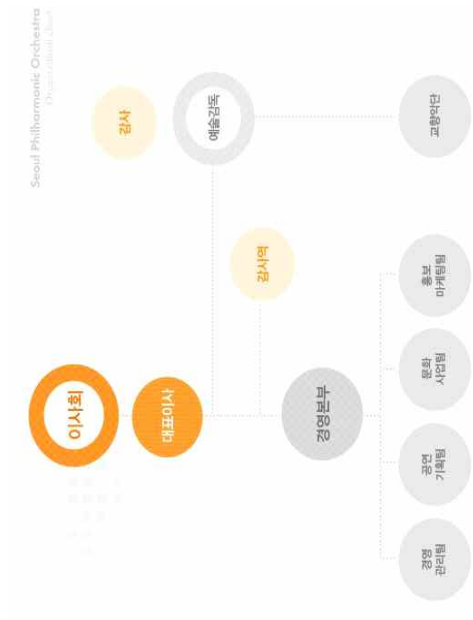
서울장학재단의 출연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사업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기관이 효과적 운영을 위한 업무설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모의 조직 확충이 필요하다.

표 27_ 서울시 출연기관 조직 현황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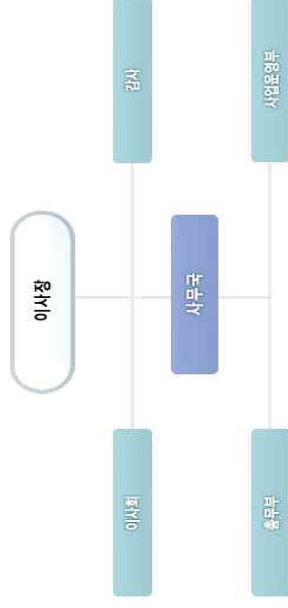
구분	(사)자원봉사센터	여성가족재단	시립교향악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강화재단	서울연구원	서울문화재단	디자인재단	서울의료원	산업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설립 목적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문화 고양, 시민의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정 육성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서울시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복지증진	시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문화 도시로서의 역량 강화	시민의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우수인재양성 핵심인재양성	주요 시책 과제 조사, 분석 및 정책 연구 개발	서울 문화 육성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서울 디자인산업 진흥 및 디자인문화 확산	서울시 중소기업 종합 지원 및 서울시 전략산업 육성	서울시 중소기업 종합 지원 및 서울시 전략산업 육성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채무보증,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복지증진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4조	민법32조,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민법32조,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재단설립조례	지자체출연연구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연구원육성조례	민법32조,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재단설립조례	지병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의료원설립조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재단설립조례	지역산업보증재단법, 재단설립조례
설립일	06.01.18	02.01.10	05.06.01	03.12.31	09.01.08	92.10.01	04.03.15	08.12.16	82.09.30	99.07.01	99.06.07
대표이사	박윤애 (12.04.01~14.03.31)	이숙진 (13.1.1~15.12.31)	박한정 (13.02.01~16.01.31)	임성규 (12.02.13~15.02.12)	문미란 (14.04.26~15.03.06)	김수현 (14.08.20~15.02.16)	조선희 (12.03.26~15.03.25)	백종원 (12.03.05~15.03.04)	김민기 (12.06.01~15.05.31)	이전영 (12.05.14~15.05.13)	강진섭 (~15.02.09)
미션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 실현	세계로 향한 비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공동체 서울	서울의 미래세대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양성기여	선도적 아젠다 발굴, 다양한 연구과제 포트폴리오 구성, 상시적 연구인프라 네트워크 강화	예술로활기찬서울 문화로행복한시민	창조경제 활성화, 시민생활의 품격향상, 선진 경영 인프라 확립	시민의 건강증진을 실현하는 최고의 공공병원	산업진흥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에 공헌	효율적인금융지원 체계적인경영지원 시민중심사회혁신 업무효율제고 지속성장기반확충
비전	언제 어디서나 모두가 참여 가능한 자원봉사 전문플랫폼	서울시 여성, 가족의 싱크탱크, 서울여성의 네트워크 허브, 여성 시민소통과 공유의 성평등 테마공간	-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 플랫폼, 서울시 복지재단	학생에게 행복한 미래를 설계해 주는 꿈과 희망의 멘토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의 미래	문화가 꿈, 문화가 꿈	시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디자인, 시민디자인	최상의 치료 나눔과 봉사, 즐거운 일터 연구교육	서울신성장 산업진흥 및 강소기업 육성 선도기관	서울의 성장을 돕는 재단
핵심 가치	인문정신, 개방성, 자기주도성, 신뢰	현강밀착, 소통과 공유, 동반성장	-	참여, 공유, 혁신	학생, 미래설계, 꿈과 희망, 멘토링	-	성찰과 도전, 소통과 협력, 존중과 책임	-	고객중심 협력과소통 교육연구 창조경영	창조·혁신 융복합 고객지향 공익	고객중심 공인인증 실사구시 역량강화
조직	1국 3부 5팀 1위원회	3실 1센터 5팀	1본부 4팀, 1감사, 1예술단	1보좌관, 2실, 1센터, 3본부 12팀	1사무국 2부	1본부, 5실, 4센터, 2위원회	1감사실, 1위원회, 4본부 12팀, 14단위조직	1감사팀, 1연구소, 2단 3본부 11팀, 1센터	4부 1사업단 8센터 24진료과	5본부 22팀, 1센터 3팀	2부문 2실 6부, 4지역본부 17개지점

표 계속_ 서울시 출연기관 조직 현황_2

구분	(사)자원봉사센터	여성가족재단	시립 교향악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강학재단	서울연구원	서울문화재단	디지털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의료원	산업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총원	36명	72명	134명	123명	5명	242명	216명	172명	440명	1,163명	253명	406명
정원	24명	40명	142명	88명	8명	108명	98명	152명	351명	1,074명	236명	292명
현원	24명	39명	129명	81명	5명	94명	69명	84명	265명	972명	118명	287명
무기	0명	11명	3명	18명	0명	20명	42명	13명	33명	51명	64명	0명
기간제	11명	22명	2명	24명	0명	126명	34명	73명	142명	140명	56명	119명
외단시간	1명	0명	0명	0명	0명	2명	71명	2명	0명	0명	15명	0명
이사	25명	11명	9명	10명	11명	10명	12명	12명	13명	7명	9명	7명
감사	1명	2명	1명	2명	2명	2명	1명	2명	2명	1명	2명	1명
2014년 예산	24억	97억	174억	187억	160억	236억	289억	546억	380억	1,195억	1,145억	1,970억
2014 서울시 출연금	23억	47억	110억	137억	100억	157억	100억	199억	198억	190억 (서울시 보조금)	174억	505억
주요 사업	시민참여 활성화, 자원봉사 네트워크 강화, 조직경쟁력 강화, 선도역할 제고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 교육사업, 동반자형 여성 거버넌스강화, 여성을 위한 공간조성,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프라강화	공익목적 공연, 해외공연, 문화예술 교육사업, 음반녹음 발매, 우리동네 음악회	복지정책 및 모델연구, 개발, 사회복지시설 역량강화,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지원, 맞춤형복지 지원체계구축	하이서울강학사업, 대학생 멘토링 강연사업, 글로벌 인재 장학사업, 민간기탁 장학사업	시장정책개발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시장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및 학술활동수행, 국내외 연구기관 간 연구 및 정보교류, 협력	시민생활 속 문화향수 기회 확대, 예술교육을 통한 시민의 미적 감수성 증진,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 공간운영	DDP 운영관리, 서울 디자인 산업지원, 시민디자인 정책연구, 시민서비스 디자인사업	예술단 창작활성화, 공연예술의 허브, 복합문화 공간조성, 예술프로그래밍 개발, 청소년 예술 활동 활성화	경영효율성 향상, 양질의 공공 의료서비스제공	서울형 전략산업의 지원육성, 중소기업 판로개척의 국내외 마케팅지원, 창업활성화 지원 해외 통상 및 해외투자유치 지원	신용보증, 서울시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양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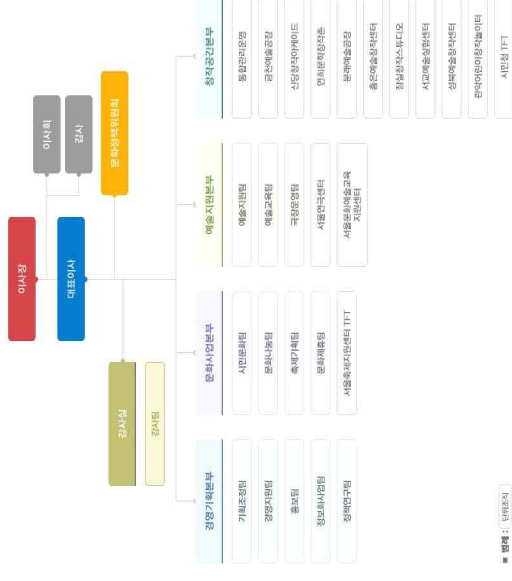
서울여성가족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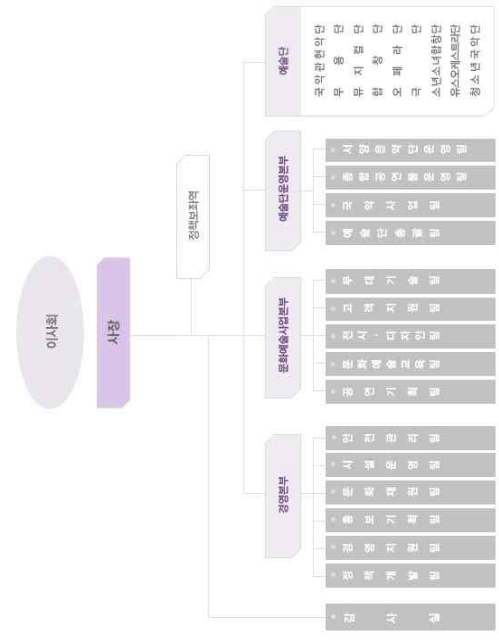
서양사
양공
구경
양공

그림 6 서울시 출생지별 외국인 주민의 분포

서울시립교향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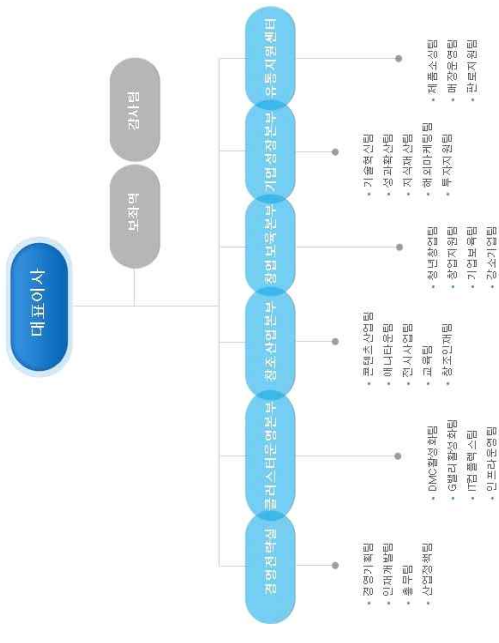
서울름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의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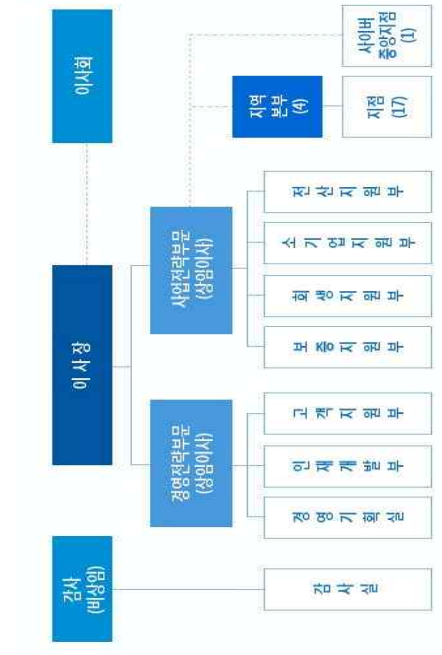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산업진흥재단

그림 계속_ 서울시 출연기관 조직도

Ⅲ . 서울장학재단의 외부 환경분석

Ⅲ. 서울장학재단의 외부 환경분석

1.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업 현황

1_1 서울시 교육협력국 장학사업

현재 서울시 교육협력국의 장학관련 사업은 하이서울 장학사업,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 추진 사업 등이다. 이중 하이서울 장학사업은 서울장학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협력국의 자체 사업은 대출이자 및 반값등록금 사업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표 28_ 서울시 교육협력국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사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 (2020)
	2012	2013	2014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16,042	16,000	13,000	10,000
시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지원	소요예산지원	소요예산지원	소요예산지원	소요예산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경제적 환경이 열악한 일정 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재학 중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으로 서울에 주소를 두고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서울고교 출신으로 서울지역 외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이다. 일정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에게 이자 발생액 전액을 지원하며, 2014년의 경우 총 12억 3,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서울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 추진

서울시립대학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도부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을 1/2로 감액하여 대학등록금 인하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중에 있다.

1_2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업

서울시는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라는 비전아래 공정한 교육 기회의 마련을 위해,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 여건을 마련하여 교육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⁵⁾.

서울시교육청의 장학금 지원 관련 사업(2014년 서울특별시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교육비, 학비, 급식비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과 특별배려대상자나 위기청소년,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다양한 주체들과의 나눔 교육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대별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 교육청은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위기학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서울학습공동체 구축·운영, 위기 단계 및 유형별 상담 지원을 위한 Wee 프로젝트 운영, 초·중학교 학습준비물 무상 지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교육기부단 운영을 통한 교육활동 지원 등의 단위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보건진흥원에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실 신규 설치 등을 통해 학생 복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공립 초등학생, 중2학년 학생까지 무상급식 지원(648,033명, 2,441억원),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연 2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조), 학생식당 설치 27개교(초 8교, 중 13교, 고 6교) 등 사업을 진행하였다.

특별배려학생에 대한 지원체제 확립

특별배려학생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 상담연계망을 구축하고,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예산 규모 1,515억 500만원),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및 거점학교 17개교 운영 지원, 탈북학생 멘토링 지원(행복멘토링 119교 334팀, 대학생 멘토링 284팀), 특수교육 질 제고를 위한 특수학급 48학급 신·증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5) 서울시교육청(2014). 서울교육방향과 해설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강화

학업중단 학생 지원 시스템 구축-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도움 정보 제공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가사, 부적응, 품행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조사와 지원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학업중단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학업중단 학생이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마련하고 있다. 학업중단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및 프로그램 정보 제공, 학업복귀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한다(대안학교 등 교육기관 안내, 검정고시절차, 편입학 절차 안내 등).

또한 학업중단 학생에게 필요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및 도움 정보 공유, 여성가족부 및 지역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드림센터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가정 등 교육 소외 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 복지 지원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비가 지원되며, 초·중·고 학생에게는 급식비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이 연간 134,439,629천원이 지원된다.

표 29_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예산

(단위: 천원)		
사업명	지원 내용	예산
고교 학비 지원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49,765,679
급식비 지원	학기 중 평일 및 토·공휴일 중식비	40,228,991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1인당 연 60만원)	31,400,925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	7,299,855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등	5,744,179
계		134,439,629

위기학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학습부진학생 지도 전담강사 지원(공립초 555교), 2013 Summer 학습도움캠프(11개 지역교육청, 110학급, 1,765명), 서울

학습도움센터의 찾아가는 개인별 ‘맞춤학습상담’ 실시 등을 통해 위기학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

서울학습공동체 구축·운영

대학, 기업, 공공기관, 단체 등과의 MOU 체결 확대(154개 기관), 분야별 교육활동 및 체험활동 지원 확대(335,841명), 교육기부 및 교육기부 활성화, 매칭시스템 운영(12,995명, 520건) 등을 통해 서울학습공동체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기 단계 및 유형별 상담 지원을 위한 Wee 프로젝트 운영

단위학교 전문 상담 지원을 위해 Wee클래스 654교 설치, 전문 상담(교)사 672명 배치하며, 지역교육청 단위의 위기 상담 지원 : Wee센터 1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위기 유형별 상담·치유 지원을 위한 특화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위기유형에 따라 긴급·복합 위기학생 서울Wee센터, 학교폭력 피해학생 마음이랑Wee센터, 학업중단 위기학생 남산Wee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다.

초·중학교 학습준비물 무상 지원

학부모의 시간적·심리적 부담 경감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해 초·중학교 학습준비물을 지원하고 있다.

표 30_ 초·중학교 학습준비물 무상 지원 현황

구 분	(단위: 천원)	
	2013	2014
학교수	초 555교, 중 382교	초 559교, 중 383교
지원단가	초 1인당 35 중 1인당 10	초 1인당 30 중 1인당 10
예산액	19,582,120	16,110,00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직업교육에 재능이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한다. 장학금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학비 면제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우수 산업인력 육성 및 직업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1년 ‘서민희망 3대 과제⁶⁾’로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이 시작되었다.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특성화고 학생 전원에게 교육비(입학금,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장학금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학비 면제를 통해 정부의 취업중심 고교 직업교육 혁신 정책 의지 확산 및 학생·학부모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특성화고 71교 및 서울로봇고 3학년 재학생과 고등기술학교인 청암예술학교(3년제) 재학생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가 지원(1인당 지원액, 입학금 14,100원, 수업료 연간 1,450,800원)된다.

표 31_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현황

구 분	(단위: 명, 천원)		
	2011	2012	2013
학교 수	76교	74교	74교
총인원 수	55,555	53,203	50,827
지원자 수	47,273	45,650	43,786
금 액	62,687,442	62,725,992	60,188,237

교육기부단 운영을 통한 교육활동 지원

개인, 서울교육가족 교육기부단, 서울교육멘토 교육기부단, 대학생 동아리 교육기부단의 운영을 통해 단위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기부단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 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에는 교육기부매칭시스템 ‘서울교육기부천사⁷⁾’를 활용해 단위학교-기부자간 매칭 절차를 간편화하고, 교원 교육기부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초·중·고 교육기부 담당 교원 1,300명)가 진행되었다.

6)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안 가운데 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을 별도로 다루어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비 전액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확대 등으로, 먼저 월 소득 450만원 이하인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비 면제, 전문계 고등학생에게 연간 120여만원에 달하는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 다문화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유치원 보육비를 면제받는다.

7)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서울창의체험배움터 사이트 내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교육기부단의 활동상황을 알리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http://crezone.sen.go.kr>)

표 32_ 교육기부단 운영을 통한 교육활동 지원활동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개인 기부자	2,152명	2,500명	3,000명	3,500명
서울교육가족 교육기부단 ⁸⁾	50팀	50팀	60팀	70팀
서울교육멘토 교육기부단	303명	500명	500명	500명
대학생동아리 교육기부단	30팀	50팀	60팀	70팀

2. 서울시 자치구 장학사업 현황

서울시 자치구 장학사업은 장학기금운영(중랑구, 강북구, 용산구, 도봉구, 영등포구, 강남구, 성동구, 성북구, 광진구, 강동구, 동대문구), 장학회운영(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서대문구, 종로구, 관악구), 장학재단운영(송파구, 노원구, 강북구, 중구, 서초구, 마포구, 은평구)등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이 중 종로구와 관악구의 장학회는 민간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고, 강북구의 장학기금은 구의 기금으로 운영되지만 재단은 구민성금으로 운영되어 나누어 분류하였다.

한편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장학사업을 하지 않는 곳은 동작구와 양천구 두 곳이다.

2_1 장학기금 운영 자치구

서울시내 자치구 중 장학기금을 조성해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현재 중랑구, 강북구, 용산구, 도봉구, 영등포구, 강남구, 성동구, 성북구, 광진구, 강동구, 동대문구 총 11곳이다.

중랑구

중랑구는 2008년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랑장학기금’ 장학사업을 시작하였다.

중랑장학기금은 2008년 20억원, 2009년 10억원, 2013년 5억원

8) 교육청 소속 교직원 및 서울학생이 동일하거나 소속을 달리하여 동아리를 구성한 후 동아리 단위로 예술 공연, 연주회, 학습지도 등 다양한 기부활동을 하는 단체

등 총 35억원의 구 출연금과 ‘중랑장학기금 111기부운동(1가정 1년에 1만 원 기부)’, 민간기부금 17억 2,800여만원, 예치이자 8억 6,000여만원 등 총 60억 900여만원의 장학기금을 적립하였다.

또한 그간 적립한 약 46억원은 정기예금으로, 76억원은 이자율이 높은 국공채 등 금융상품으로 관리해 앞으로 구 출연금 없이 이자수입과 기부금만으로 지역의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현재 중랑구의 장학기금은 123억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고의 장학기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랑장학기금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088명에게 총 14억 5,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14년 하반기 262명에게 총 3억 9,000여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교육명문구’를 추구하는 중랑구는 교육환경만족도 조사에서 2005년에는 서울 지역 자치구 중 25위였지만, 이러한 장학사업을 바탕으로 2011년 급상승하여 9위를 차지했다. 중랑구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20년 서울 5위권 교육특구를 목표로 중랑교육사업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표 33_ 중랑장학기금 장학금 지급 현황표

(단위: 천원, 명)

연도	지급액	지급대상					비고
		초	중	고	대	계	
2008	-	-	-	-	-	-	○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2009	-	-	-	-	-	-	○ 장학금 지급 세부기준 결정
2010	369,700	-	94	169	21	284	
2011	387,100	-	114	187	23	324	
2012	354,600	-	86	172	20	278	
2013	335,100	-	-	187	15	202	○ 중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따라 중학생 제외
2014	399,300	24	3	218	17	262	○ 예·체능특기장학생 대상을 고등학생에서 초·중·고등학생으로 지원 확대 ○ 2014년 현재 총 지원: 1,350명 18억 4,580여만원 지급
계	1,845,800	24	297	933	96	1,350	

중랑장학기금 111기부운동

중랑장학기금은 수입 감소로 장학금 지원 축소가 우려되던 2012년, 구민들이 큰 부담 없이 장학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1가정이 1년에 1만 원 이상의 중랑장학기금 기부’를 의미하는 111기부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10억 원을 모금하였고, 2014년 현재 13억원이 넘는 돈이 모금되었다. 중랑구는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중랑교육종합포털 명예의 전당에 기부금액에 따라 클럽을 만들어 기부자의 이름을 게시하고 있다.



그림 7_ 중랑구 111기부운동 기탁식

용산구

용산구 꿈나무장학기금 사업은 성장현 구청장의 핵심 공약 사업 중 하나다. 2010년 ‘용산구 장학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이어 2011년에 10억, 2012년 15억, 2013년에 10억 규모의 기금을 출연해왔다. 2013년 말까지 조성된 기금은 총 35억원으로 이자 수익만 한해 1억원이 넘는다. 현재 용산구는 100억원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학기금 종류는 꿈나무(생활곤란), 예체능 특기자, 성적우수, 지역사회봉사 4가지 분야로 나뉘며 용산구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생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단, 초등학생의 경우 ‘꿈나무’와

‘예체능 특기자’ 분야에만 지원할 수 있다. 꿈나무 장학생은 한부모 가정, 장애우 가정,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꿈나무장학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예체능 특기, 지역 봉사 우수생, 성적 우수생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는 면에서 이색적이다.

각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꿈나무 장학생은 동장이 인정하는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녀로 품행이 바른 모범학생이며 동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은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증빙서류와 동장의 추천이 있어야 하고, 예체능 특기 장학생은 음악, 미술, 체육 등 재능이 탁월하여 최근 2년 내 수상경력이 있거나 기타 입증 자료가 있으며 학교장이 인정해야 한다. 성적우수 장학생의 경우 입학성적 또는 직전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 이내에 해당되어야 하며 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하다.

꿈나무장학기금은 2013년 초등학생 96명, 중학생 91명, 고등학생 78명 등 총 265명에게 처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올해에는 초등학생 90명, 중학생 80명, 고등학생 83명 등 253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였다.



그림 8_ 2014년 용산구 꿈나무장학기금 전달식

표 34_ 용산구 꿈나무장학기금 기금조성현황

(단위: 천원)

구분	적립액	이자수익	예치기간	비고
계	30억	140,627	-	-
2011	10억	54,540	2011.07.20. ~ 2012.11.22	구출연금
		10,571	2012.11.22. ~ 2013.02.22	
2012	10억	42,014	2012.02.21. ~ 2013.02.21	구출연금
	5억	16,750	2012.11.22. ~ 2013.11.22	상회원
2013	5억	16,750	2013.01.16. ~ 2014.01.16	구출연금

표 35_ 용산구 꿈나무장학기금 지급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계		초등학생 (1인 30만원)		중학생 (1인 40만원)		고등학생 (1인 50만원)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총계	270	10,600	100	3,000	90	3,600	80	4,000	
일반	꿈나무	121	4,590	55	1,650	36	1,440	30	1,500
	예체능 특기	83	3,070	45	1,350	18	720	20	1,000
성적 우수생	47	2,080	-	-	27	1,080	20	1,000	
지역봉사 우수생	19	860	-	-	9	360	10	500	

강북구

강북구 장학금 사업은 1995년 경제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 생활이 어려운 모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구의 기금으로 시작된 교육복지사업이다. 2014년 현재 75명의 고등학생에게 분기별 수업료(법정 기준 362,700원)를 지원하고 있다.

장학종류는 복지장학생, 우등장학생, 특기장학생, 유공장학생 4개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복지장학생은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법정학비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다음 우등장학생의 경우 저소득주민의 자녀로 전 학기 재학 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상위 2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기장학생은 예·체능 및 기타 기능에 소질이 뛰어난 자로, 세계, 전국, 서울시 강북구 대회 등에서 전년도 수상경력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유공 장학생은 지역사회에 성실히 봉사하고 특히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의 자녀, 통·반장 자녀와 전년도 1,000시간이상 자원봉사 실적이 있어 강북구로부터 자원봉사인증을 받은 자원봉사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도봉구

도봉구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999년 구에서 출연한 기금과 지하철 승차권 판매수입의 일부 기부금, 도봉미술협회 기부금, 내고장 도봉사랑 카드(국민은행) 기부금 등으로 도봉구장학기금을 조성하였다.

장학 대상은 도봉구에 3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녀 중 모범장학생, 효행·선행 장학생, 특기장학생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고등학생으로 한다. 2014년 모범장학생 31명, 특기장학생 2명 등 총 33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구체적인 장학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범장학생의 경우 가정형편이 어렵고 품행이 바른 모범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효행 선행 장학생은 효행이나 선행으로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 20인 이상이 효행 또는 선행 학생으로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기장학생은 예·체능 등 기타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구의 명예를 높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표 36_ 도봉구장학기금 조성 및 지원 현황

2013.12.31. 기준(단위: 명, 천원)

연도	기금 조성내역				장학기금지급		연도 말 조성액
	출연금	기타수입	이자수입	계	인원	지원금	
계	1,500,000	103,396	596,537	2,199,933	270	390,512	1,809,421
1999 ~ 2008	800,000	30,896	250,700	1,424,465	175	142,710	1550920
2009	300,000	50,000	68,020	418,020	20	35,328	1,321,579
2010	400,000	-	73,651	473,651	30	57,294	1,737,936
2011	-	-	73,752	73,752	23	51,445	1,760,243
2012	-	22,500	69,964	92,464	22	50,546	1,802,161
2013	-	-	60,450	60,450	33	53,189	1,809,421

* 기타수입 : 지하철승차권 판매수입, 도봉미술협회 기부액 및 내사랑 도봉카드 적립금

영등포구

영등포구는 2010년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을 전년도 34억에서 50억으로 증가시켜 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다. 영등포구 장학기금 또한 이 시기에 조성되어 관내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시 타구로의 전출을 막기 위해 장학기금조례를 제정하고, 장학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2010년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73명에게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총 1억 3천여만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엔 140명의 고등학생에게 2억5,200만원의 지역인재육성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2013년도엔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여 총 193명의 성적우수 고등학생에게 3억 4,700여만원을 지급하였다.

장학금 종류는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특기 장학금,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금 4가지이다. 장학생 선발요건은 먼저 지역인재육성장학금의 경우 관내 소재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자 또는 진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석차연명부에 의한 백분율의 5% 이내여야 하고, 고교 진학 후 해당 2, 3학년 전체 석차 상위 10% 이내인(3년간 조건 유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성적우수 장학금은 선발직전 학년 성적이 평균석차 백분율의 5% 이내에 해당되는 고등학교 2학년 및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특기 장학금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예체능, 기타 분야에서 소질과 재능이 우수한

자로서 국내·외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여 구의 명예를 높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금 대상은 관내 해당년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주요 대학에 입학한 자(입학예정자), 생활이 어려운 모범 학생, 효행 또는 자원봉사 등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은 지역인재육성장학금으로, 4월 각 고등학교에서 지급요건에 맞는 학생을 추천받아 심의회(지급대상, 지급금액 심의)를 거쳐 확정 후 지급하고 있다.

한편, 2014년 7월 영등포구는 교육발전과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교육발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한 상태이다.

강남구

강남구는 학비 마련을 위해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비수급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사례를 예방하여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학기금은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 지원 사업’ 예산으로 확보한 10억원과, 민간 후원금으로 마련되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한 장학 사업은 2010년까지 저소득층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그 이후부터는 대학생 대상 상·하반기 2회 등록금 50% 범위 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013년에는 648명에게 총 997,364,000원을 지원하였다.

자격조건은 강남구 거주 1년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내 가구의 대학생이다.

성동구

성동구 장학사업은 2003년 장학재단 설립을 기점으로 하여 2007년 장학기금으로 재탄생하였다. 처음 4억원으로 시작한 장학

기금은 해마다 1억 원씩 출연한 구 예산, 성동구 직원들이 받는 시 인센티브 성과급, 구민들의 지정기탁금을 모아 2013년 33억원의 기금을 적립하였다. 적립한 기금운용으로 성동구 장학기금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289명에게 5억 8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장학기금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학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 및 학습 장려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180%이내 가정의 자녀로서 전국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에서 직전 학기 평점 B학점 이상을 받은 비장애인 또는 사이버대, 방송대 재학 중인 24세 이하 장애인이며, 특히 다둥이, 한부모, 장애인 가정의 경우 우선 선발한다. 2014년부터는 몸이 불편해 대학을 통학할 수 없는 우수한 중증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 만 24세 이하 중증 장애인에 한하여 사이버대와 방송대까지 장학금 혜택을 넓혔다.

장학 종류는 일반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특기생 장학금 3가지이고,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구민의 고등학생·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장학금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반 장학금의 경우 저소득층·다자녀세대·근로자의 자녀로서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으로 동장이 인정하는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성적우수 장학금은 입학성적 또는 재학 중 성적이 학년 정원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 특기 장학생은 예능·체육·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성동구는 구에서 운영하는 장학기금 외에도 2011년 17개 전동에서 동 별 풀뿌리 장학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존 관에서 주도했던 장학사업을 마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만원, 이만원씩 적은 돈이지만 주민 스스로 돈을 모아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직접 동네의 어려운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300여명의 학생에게 3억 4,886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다음은 일부 동의 풀뿌리 장학회 사업 내용이다.

1) 마장동 마주보고 장학회

2014년 7월 장학회를 발족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생 3명을 선정해 개인당 3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한다. 장학기금은 2013년 9월 마장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커뮤니티 공간인 마주보고 카페 운영 수익금의 40%를 적립해 조성한다. 장학회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상·하반기에 3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2) 옥수동 알뜰미용카페

옥수동 주민센터 지하 1층에는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의 일환인 알뜰미용카페가 있다. 이웃 주민들이 파마와 커트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다. 매주 월요일엔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자원봉사자들이 6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파마와 커트를 실비에 제공하기도 한다. 알뜰미용카페의 수익금은 옥수장학회 장학기금으로 기부된다.

성북구

성북구에는 성북구청이 운영하는 저소득주민 장학금과 민간 주도의 장학회인 성북장학회, 길음2동 통장장학회가 있다.

1) 저소득주민 장학금

저소득주민 장학금은 성북구청 기금의 이자수입만으로 운영되는 장학사업이다. 2008년을 1회로 시작하여 한해 매년 30~35명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최대 230만원까지 지원한다.

2) 성북장학회

성북장학회는 1978년 운보 김기창 화백, 변종하 화백, 일중 김충현 화백 등 성북구에 거주하는 미술인들이 중심이 되어 본인들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통해 모은 기금을 기반으로 설립한 민간 장학회다. 현재는 21명의 미술인들이 그 뜻을 이어 성북미술전을 개최하고, 판매수익의 50%를 장학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장학대상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며 품행이 단정한 성북구내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인 2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까지 성북장학회는 1,405명에게 5억 6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4억 8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적립하였다.



그림 9_ 성북장학회 2010년 장학증서수여식

3) 길음2동 통장장학회

1979년 길음2동 통장협의회가 창설한 장학회로 당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가정 자녀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통장회의 참석수당 중 일부를 장학금으로 적립하면서 시작되었다.

1980년 중·고등학생 8명에게 각 3만원씩 지급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는 대학생, 2011년에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까지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였고, 지금까지 총 598명에게 1억 428만원을 지급하였다.

현재 장학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상자 2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계좌로 입금되고 있다.



그림 10_ 길음2동 통장장학회 2014년 장학금 전달식

광진구

광진구장학회는 광진구 장학기금으로 1996년부터 운영되어 2006년 장학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현재 구청장을 포함한 26명의 재적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장학생은 1년 이상 광진구에 전 가족이 거주하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2011년엔 19명의 고등학생에게 총 3,42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외에도 광진구는 각 동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장학회가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2013년 광진구는 지역 내 장학회의 주관으로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2013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총 3,000여만원을 전달하였다.

특히 2014년에 6회째를 맞이한 화양귀목장학회는 기부문화 정착과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화양동 지역주민 13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매월 일정액의 후원금을 납부하고 있다. 2014년엔 고등학생 12명에게 총 6백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한편 광장동 광나루장학회는 재능과 소질은 있으나 여건상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지역 내 저소득층 자녀 및 모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0월 설립되었다. 2014년엔 70여명의 광나루장학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장학금 6백만원을 관내의 모범학생 10명에게 전달하였다.

아울러 지난 1997년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 미래의 꿈과 희망을 펼치는데 보탬이 되고자 설립된 중곡3동 상록수 나눔회는 지난 1994년 7명의 어머니가 모인 것을 시작으로 현재 200여명의 회원으로 성장하여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곡4동의 경우 종교단체와 동 주민센터가 장학사업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민간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여 민간지원의 혜택이 저소득가정의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동구

강동구 교육지원기금은 1998년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 등에게 지급할 장학금 재원확보를 위해 강동구의 출연금으로 설치되었다. 현재 장학기금은 구 출연금, 이자수입금, 자발적 후원의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2014년 현재 강동구 장학기금은 872,382천원이다.

장학금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50%), 성적우수자(30%), 특기생(10%), 지역사회봉사자(10%) 장학금 4종류이다. 매년 초(3-4월경) 학교장 추천을 받아 강동구 장학생 선발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선발 인원은 기금예탁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평균 25명 내외이고, 장학 지급액은 연간 수업료 전액(1,450,800원)이다. 2014년 9월까지 강동구 장학금은 총 516명에게 483,955만원을 지급하였다.

표 37_ 강동구 교육지원기금 장학 사업 현황

구 분	지급금액	(단위: 천원, 명)
		선발인원
1999-2011년	385,301	473
2012년	29,016	20
2013년	33,368	23
2014년	36,270	25
계	447,685	516

동대문구

동대문장학기금은 동대문장학회가 해산하면서 동대문구에 기부한 기금과 구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동대문장학기금은 관내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학력신장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은 관내 중학교 성적 2%이내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경우 성적우수 장학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일반장학생 46명을 선정하고, 중학생은 25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특히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부모의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가로부터 학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자녀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2013년도에 37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 6,965만원을 지원하였다. 이로써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성적우수학생 69명에게 1억 3,800만원, 저소득가정 학생 117명에게 1억 3,000만원 등 총 186명의 학생들에게 2억 6,8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구는 앞으로도 기존의 성적우수 장학생은 물론 일반(저소득)장학생과 특기장학생, 지역사회봉사 장학생 등 장학금 종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동대문구는 장학기금 이외에, 지역사회에서도 인재양성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동장학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총 6개동에서 장학회가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단위 6개 장학회에서는 2013년도에 32명에게 2,680만원을 지원하였다.

2_2 장학회운영 자치구

서울시내 자치구 중 장학회를 조성해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현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서대문구, 종로구, 관악구 총 6곳이다.

강서구

(재)강서구장학회는 강서구 인재육성을 위해 지역 인사 및 기업체의 뜻을 모아 2001년 출범한 이래, 성적이 우수하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지급, 1인(기업체) 1계좌 갖기 운동, 내고장 강서사랑카드 가입 운동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는 고등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品行이 단정하고 모범적이며 최근 1년간 학업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2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생계곤란자를 대상으로 하되, 장래성을 감안하여 성적우수 여부를 반영, 순위를 선정한다. 고등학생에게는 100만원, 대학생에게는 200만원을 지원하며, 2014년 현재 총 13회, 646명에게 7억 7,97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1인(1기업체) 1계좌 갖기 운동은 구민 1인이 매월 원하는 금액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하거나 관내 1기업체가 10만원이상 매월 장학기금을 기탁하는 강서구장학회의 장학기금모금 운동이다.

강서구의 또 다른 장학금 중 하나인 '황금자 장학기금'은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정부보조금 등을 아껴 모은 1억 7천여만원을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에 기탁한 故황금자님을 기리기 위한 장학기금이다.

황금자장학기금은 "황금자 여사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2007년부터 14명의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표 38_ (재)강서구장학회 장학금 지급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2002	25	33,800	10	6,800	10	12,000	5	15,000
2003	53	57,000	20	11,000	20	17,000	13	29,000
2004	35	46,000	10	5,000	17	17,000	8	24,000
2005	55	56,500	11	6,000	34	25,500	10	25,000
2006	71	63,000	10	5,000	47	32,000	14	26,000
2007	50	50,000	16	8,000	16	16,000	18	26,000
2008	58	66,400	14	7,700	21	18,700	23	40,000
2009	59	71,000	16	8,000	23	23,000	20	40,000
2010	45	55,000	8	4,000	23	23,000	14	28,000
2011	51	61,000	10	5,000	26	26,000	15	30,000
2012	40	60,000	-	-	20	20,000	20	40,000
2013	39	60,000	-	-	18	18,000	21	42,000
2014	65	100,000	-	-	30	30,000	35	70,000
계	581	679,700	125	66,500	275	248,200	181	365,000



그림 11_ (재)강서구장학회 2014 장학금 수여식

구로구

(재)구로구장학회는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 2000년도에 설립되었다. 2006년 이후 잠시 활동이 주춤하였다가 2013년 김경훈 이사장과 박종평 사무총장, 14명의 임

원진을 구성해 장학회를 재정비하였다.

장학회를 재정비한 (재)구로구장학회는 2013년 12월 기준 기본 재산 5억원과 보통재산 1억 8,800만원으로 총 6억 8,800만원의 장학기금을 2017년까지 총 21억으로 확충할 것으로 목표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구 예산으로 2014년부터 매년 1억원씩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장학금의 종류는 인재육성 장학생, 성적우수 장학생, 구로구 장학생, 특기 장학생, 지정 장학생 등이 있다. 이외 별도로 일반 장학금과, 중학생 대상 영어연수 장학금도 있다. 장학조건은 다음과 같다.

인재육성 장학생은 구로구 소재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중 중학교 3학년 전 과목 평균성적이 상위 3%이내인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다. 단, 인재육성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장학금 지속지원을 위해서는 계속하여 상위 3% 이내의 성적을 유지하여야 한다.

성적우수 장학생은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직전학년 전 과목 성적 평균이 상위 5%이내인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다.

구로 장학생은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고, 특기장학생 역시 중·고등학생 중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 단, 특기장학생은 개인분야 성적(체육, 문화예술, 수학, 과학)에 한하여 선발한다.

마지막 지정 장학금은 이외 장학금 기탁자의 의사에 따라 기탁자 명의로 수여하는 장학금 또는 업무협약이나 ‘재단 속의 재단’ 등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기탁자 또는 협약 상대방 등이 장학생 수혜 범위를 정하여 맡길 때에는 장학생의 장학증서에 그 뜻을 명시함으로써 지원할 수 있다.

(재)구로구장학회는 지금까지 중학생 27명, 고등학생 118명 등 총 187명에게 1억 7,932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도 장학생간 친목도모와 단결을 위한 여름 장학캠프, 후배들에게 공부 노하우를 전수하는 장학생 멘토링 제도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재)구로구장학회는 다양한 후원방법을 통해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일반적인 정기후원, 일시후원과는 다른 “내 생애 가장 기쁜날”은 (재)구로구장학회만의 특징적인 기금모금 방법이다. 내 생애 가장 기쁜 날’은 결혼, 출산, 첫 돌, 입학, 졸업 등 기념이 되는 특별한 날에 기부에 동참하도록 하는 기부 캠페인이다. 결혼식을 거행하는 커플을 대상으로 (재)구로구장학회에서 주례를 서주며, 주례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구로구에서는 구 장학회와 별도로 관내 15개 모든 동에서 자원봉사협력단 등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동별 장학회가 활발하다. 동별 장학회에서는 2013년 한 해 동안 신도림동 27명, 구로4동 10명, 고척2동 10명 등 총 93명에게 1,88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표 39_ (재)구로구장학회 장학금 지급 현황

(단위: 천원, 명)

연도	지급액	지급대상			비고
		계	중학생	고등학생	
계	179,320	137	19	118	
2001	17,417	19	9	10	1년 학비
2002	17,250	30	10	20	2학기 학비
2003	23,347	15	-	15	1년 학비
2004	20,296	13	-	13	“
2005	14,731	9	-	9	“
2006	15,206	9	-	9	“
2010	71,073	42	-	42	“

* 2007~2009, 2011~2012년 장학금 미지급, 이후 자료 없음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는 2007년 11월, 지역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명품 교육도시 건설을 만들고자 설립되었다. 장학회의 비전은 ▲미래를 선도해 나갈 우수한 인재육성 ▲배움의 기회로부터 소외된 이웃 지원 ▲배움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제일의 명품 교육도시 건설 ▲장학사업 사후관리와 장학회 활성화를 위한 장학생 관리 및 진로지원 교육이다.

장학금의 종류는 성적우수 장학금, 특기 장학금, 선행 장학금,

복지 장학금, 기탁 장학금, 멘토링 장학금이 있고,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014년 선발된 (재)금천미래장학회 장학생은 성적우수 중학생 20명(각 100만원)과 고등학생 20명(각 100만원), 예체능 특기자 고등학생 5명(각 100만원), 저소득 멘토링 고등학생 20명(각 200만원), (사)보험개발원 기탁 장학금 5명(각 120만원) 등 총 70명이다. 성적우수 학생은 상위 5%이내인 자이며 중학생의 경우 3학년 중 관내 고등학교 진학자에 한해서 선정된다.



그림 12_ (재)금천미래장학회 2014년 제8기 장학증서 수여식

서대문구

서대문구의 (재)안산장학회는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청소년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설립되었다. 1990년부터 2013년도까지 관내 고등학생과 대학생 총 703명에게 6억 3,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올해 2014년도엔 고등학생 5명에게 180만원씩, 대학생 3명에게는 200만원씩 1,500만원을 수여하였다.

(재)안산장학회 장학생 선발 기준은 장학금 지급규정 제3조에 의거 서대문구 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과 진학 예정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이며, 자질이 우수한 저소득층 자녀이다. 학업성적은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5/100 이내에 해당되어야 한다.

한편 안산장학회는 기업은행과 후원 협약을 맺어 ‘내 고장 사랑카드’를 출시했다. 개인 및 법인 회원으로 카드 발급 시 사용금액의 0.2%가 장학기금으로 적립된다.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구장학회는 2004년 2월 종로토박이 故최형규 동신운수 이사장이 70억 원의 개인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단체로, 현재 자산 총액은 110억원에 이른다. 종로구장학회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재단 설립 이래 장학회는 매년 상·하반기 2회씩 총 21회에 걸쳐 2,446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41억 5,000여만원을 꾸준히 지급해왔다. 2014년엔 126명의 학생들에게 2억 2,800만원을 수여하였다.

장학조건은 종로구 거주 1년 이상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90만원) 및 대학생(200만원 이내)으로, 성적우수 장학생, 예체능 장학생, 일반 장학생으로 나뉜다. 성적우수 장학생은 고등학생의 경우 전학기 성적이 전체 50%이내여야 하고, 대학생의 경우 전학기 성적이 평균 4.5만점에 2.5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장학금이 연 2회 지급되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도 기준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

장학금의 재원은 2004년 故최형규 이사장이 안정적인 장학금 재원 마련을 위해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매입한 재단건물과, 2005년 종로구에 기탁한 시가 40억원에 달하는 화양동 주차장의 임대수익금으로 마련되며, 겉치레보다는 실제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알뜰한 장학회로 운영하고자 매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 행사는 생략하고 있다.

관악구

관악구청에 따르면 현재 관악구의 예산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없다. 다만, 구청 내에서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관악구직원장학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구의 직접적인 예산으로 운영되는 장학 사업은 아니지만, 관악구 구민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악장학회는 자발적인 장학사업의 좋은 선례로 보인다.

1994년 시작된 (재)관악장학회는 초대 윤주홍 이사장과 뜻있는

구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자는 1차 목표 외에도 대부분 저소득층이었던 구민들에게 우리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의식과 긍지를 심어보자는 취지에서 1계좌 1,000원으로 모금을 시작해 만여 명이 참여한 범 구민차원의 장학회다.

관악구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아 장학금을 모아, 관악구 거주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늘리고,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시작된 (재)관악장학회는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현재까지도 관악산을 등산하는 할아버지들이 선뜻 내어주는 2, 3만원, 학생들이 천 원씩, 또 그림을 팔아 그 수익금을 기탁하는 사람 등 적은 돈이 모여 장학기금이 마련되고 있다.

장학생은 우등 장학생, 효행 장학생 등 지역사회가 추천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지난 1994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중·고교생 1,527명에게 4억 9,582만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매년 2월에는 관내 중·고교 31개교 졸업식에서 모범 졸업생을 표창하고 있다. 2014년도엔 우등 장학생 6명, 효행 장학생 20명에게 1,842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그림 13_ 2014 관악장학회 장학증서수여식

2_3 장학재단운영 자치구

서울시내 자치구 중 장학재단을 조성해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현재 송파구, 노원구, 강북구, 중구, 서초구, 마포구, 은평구 총 7곳이다.

송파구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전신인 (재)송파장학회는 1994년 가정 경제 위기에서 비롯된 학업중단만을 반드시 막자는 송파구민의 뜻을 모아 기본재산 3억원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2008년 (재)송파장학회를 확대·개편하여 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2020년까지 장학기금 5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

장학대상은 송파구 거주 1년 이상 거주한 고등학생 및 2년 이상 대학생이며, 일반·우수·특기 장학생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일반 장학생은 저소득가정, 긴급위기가정의 자녀로 학업에 의욕을 보이는 고등·대학생이고, 우수 장학생은 성적이 전교 상위 10%이내인 학생 중 근면,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특기 장학생은 예체능 및 영·수·과학 등 각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나 수상실적이 있는 고등학생이다.

장학금은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이며, 연 2회 상·하반기 2회 지급한다.

이외에도 2014년 처음으로 올바른 역사의식을 지닌 글로벌 인재발굴을 위해 해외문화체험 장학생을 선발하였다.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0명을 선발하여 여름방학기간(4박 5일)동안 중국을 방문,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체험, 현지 도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왕복항공권 및 숙식, 여행자 보험 등 비용 전액을 지원하였다.

한편 송파구는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송파구 구민 한사람이 만원씩 10명이 힘을 합쳐 송파구 학생 1명의 학업 중단을 막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범구민차원의 장학기금 마련 캠페인으로 소액다수의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후원운동이다.

표 40_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현황

(단위: 천원, 명)

연도	지급액	지급대상				
		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기타
계	1,529,069	1,804	388	1,210	74	132
1994	13,332	50	18	32	-	-
1995	33,372	60	30	30	-	-
1996	31,050	45	13	32	-	-
1997	59,836	86	27	39	-	20
1998	53,913	57	12	40	-	5
1999	52,560	60	20	40	-	-
2000	63,814	65	19	46	-	-
2001	27,476	53	19	34	-	-
2002	26,701	50	22	24	-	4
2003	22,655	36	10	25	-	1
2004	15,990	25	-	25	-	-
2005	20,142	30	-	30	-	-
2006	22,118	32	-	32	-	-
2007	21,964	26	-	26	-	-
2008	37,000	37	-	17	-	20
2009	293,500	333	79	237	-	17
2010	293,500	338	86	224	-	28
2011	132,500	152	33	113	-	6
2012	116,771	105	-	67	24	14
2013	122,421	102	-	54	36	12
2014*	68,454	62	-	43	14	5

* 2014년은 상반기만 포함



그림 14_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2014 장학증서 수여식

노원구

노원구의 노원교육복지재단은 노원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실천을 중시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배려계층의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2011년 출범하였다.

아울러 2011년10월 ‘꿈과 희망 나눔 행복공동체’를 구현하는 교육복지재단을 설립해 노원구청에서 주관하던 ‘노원구장학기금’과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등을 위탁받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꿈과 희망, 그리고 행복”이라는 슬로건을 건 노원교육복지재단의 미션은 참여와 나눔을 통한 더불어 행복한 노원형 복지공동체이고, 구체적인 비전은 ▲나눔과 순환의 생태적 복지공동체 ▲지역사회와 꿈과 희망을 소통하는 복지공동체 ▲교육·복지의 선도적 브랜드를 지향하는 복지공동체 ▲자치와 공생에 기반하는 복지공동체이다.

또한 ▲틈새계층의 촘촘한 제3차 복지안전망 구축 ▲교육·복지 사각지대 틈새계층 발굴 및 통합적 지원 ▲지역 활동가의 전문역량 및 지역네트워크 강화 ▲나눔문화 정착을 통한 자원 인프라 구축이라는 목표 및 추진과제를 갖고 있다.

교육과 복지가 노원교육복지재단을 통해 실현되는 만큼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자세한 사업내용은 표로 정리하였다.

표 41_ 노원교육복지재단 사업내용

구분(사업 종류)		사업 내용
연합모금 사업	등지 모금	유산기부운동 “착한나눔 DNA”
		사후에 땅, 건물, 저금 등 개인 재산을 사회로 환원하는 나눔 실천 캠페인
		희망 리더스 클럽
	풀뿌리 모금 (소액기부 나눔문화 운동)	기업사회공헌
		기업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사회공헌활동
		문화공연 기부행사
		틈새계층과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지원사업 기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연 개최
		매월 1,000원 이상의 소액기부로 어려운 이웃에게 든든한 후원자이자 이웃이 되는 동반자 희망천사 운동
		월급우수리 기부
		학교, 공공기관, 기업 등 협약을 통해 월급우수리 소액을 기부하는 나눔문화운동

지원사업	(희망나눔 저금통 사업)	공공이 칭찬저금통	어린이에게 칭찬을 통한 경제교육으로 기부 와 나눔문화 습득
		공공이 학교저금통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 모 으기 기부행사로 어릴 적부터 나눔 습관 형성
	(노원동행 프로젝트)	희망나눔day	희망나눔의 날을 정하여 홍보대사와 함께 다채로운 기부와 나눔 행사, 문화 공연 진행
		튼튼한 이웃 희망1004 걷기대회	튼튼한 이웃 노원구민의 참여행사로 희망손수건과 함께하는 희망1004 걷기 대회
	(특별한 날의 기부day)	특별한 날 기부day	생일, 승진, 결혼기념일 등 의미 있는 날 기 금 기부
		종교단체와 함께하는 행복 밥상 차리기	종교기념일에 종교단체와 함께하는 기부행사
	틈새계층 지원사업	생계비 희망살림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위한 지원사업
		의료비 희망천사	저소득 가구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긴급비 희망사이렌	위기가정 긴급개입을 위한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교육복지 지원사업	롯데 장학사업	성적우수 학생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드림점프	학업부적응 및 학업을 중도포기한 청소년의 학습지, 교구비, 기술훈련비, 희망멘토 지원
		행복나무 우체통	환경적 어려움으로 소망성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인적·물적 자원연계
	기획 및 테마 사업	따뜻한 명절 함께 보내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 지내기 지원사업
		사랑의 가족 김장 축제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유관기관과 노원주 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노원김장 나눔연합축제
		어린이날 선물꾸러미 프로젝트	대형마트업체와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 루어지는 어린이날 선물 꾸러미 만들기 프로젝트
		대형 베풀장터	관내 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와 노원주민들 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베풀장터 축제
		희망나눔사업	민·관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복지공동체 사업 지원
배분사업	우수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교육과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 지역사회 파급효과 및 모델링 효과가 있는 사업대상 지원
	기획사업		노원구의 현안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교육·복지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성 및 추진 사업 지원
	복지공동체 지원사업		지역활동을 하고 있는 소그룹 자치모임, 임의 단체의 지역자치활동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교육복지 관련활동 지원
연구·조사 사업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정책제안 연구		노원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문 제를 진단하고 노원구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문제해결방안 및 노원구에 맞는 맞춤형 정책 제안
아동·청소년 교육복지 욕구조사		노원구의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원구 아동·청소년의 교육복지 욕구조사 지속 실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통통메카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제안 idea' 접수 및 직접 참여 코너
	희망천사 day	노원천사들의 정기적 모임을 통해 복지사각 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현안문제 논의
	노원지역 복지포럼	복지네트워크 위원, 복지 수혜자 및 주민과 함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나눔문화 운동 전개 워크숍 개최
	지역복지 아카데미	복지네트워크 위원, 동주민 복지협의회 대상 지역사회복지 교육

* 노원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 내용 발췌

이 중 장학사업과 관련한 내용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롯데장학금

롯데백화점 노원점에서 기탁한 성금으로 조성된 청소년 장학금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정의 청소년들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170%이내,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학년 석차 60%이내이거나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 한하여 심사 후 최종 선정된다. 선정인원은 110명, 총 90만원을 지원한다.

재단은 장학금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를 위해 관리카드기재 및 진로희망캠프 운영, 장학금 설명회 및 간담회,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한 공연관람 등을 제공하고 장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 드림점프

드림점프는 교육환경 지원을 통한 재학청소년 및 학업중도 포기 청소년들의 교육기회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장학 대상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특계층의 아동·학업중도 포기 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이다. 연 1회를 원칙으로 재학생은 학교운영비, 교재비, 급식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교통비용으로, 학업중도 포기 학생은 학교복귀비, 교통비, 기술훈련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20만원 내외로 지원한다.

3) 행복나무 우체통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꿈을 실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 및 단체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장학 사업이다.

장학 대상은 꿈과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개인에게는 1회에 한해 30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단체 역시 1회에 한해 100만원 이내를 지원하며, 공통적으로 지역자원 네트워크를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4) 꿈 장학금 지원사업

취약계층 저소득 가정 자녀에게 2012년부터 지역 사회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학업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이다.

장학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를 기본으로 하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가구 중 학업에 열의가 있고 학교생활에 모범적인 고등학생으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유관기관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다.

2014년에는 100명에게 총 1억, 1인당 1백만원을 2회 분할(9월, 11월)하여 지급하였다. 장학 예산은 강북 메가스터디학원과 희망천사(기부자 지칭 이름)의 도움으로 마련된다. 꿈 장학금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부모 역할을 하는 꿈멘토’를 연결해주고, 월 1회 이상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청소년대상 인문학 강좌, 지역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림 15_ 노원교육복지재단 2013년 꿈 장학금 전달식

강북구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은 2012년 공식출범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문화·예술·체육 등 각 분야에 뛰어난 소질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재능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학기금 전액이 구민성금으로 이루어져 그 의미가 더 큰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은 2014년 11월 기준, 구민 960여명의 성금이 모여 9억 1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장학생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기를 통해 선발되며, 1인당 연 300만원 범위 내에서 학원 수강료, 대회 참가비, 관련 물품 구입비 등 재능계발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지원받는다. 지원은 1년을 기본 단위로 하고, 매년 재심사를 통해 계속지원여부가 결정된다. 2013년 첫 1기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현재 계속지원 장학생 3명, 2014년 2기 신규 장학생 6명, 총 9명의 장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꿈나무키움은 장학금지원뿐만 아니라 멘토 선생님들과 협력을 통해 학생들을 돕고 있다. 학생들 역시 꾸준한 소질계발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그림 16_ 꿈나무키움 2014년도 재능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중구

(재)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은 학생이 아닌 학교를 지원한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중구는 2012년 2월, 낙후된 교육경쟁력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중구를 떠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 구의 출연금 5억원 외에 기업체 및 단체와 사회공헌 사업을 연계해 인재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81개 기업체에서 8억 1,300만원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모금된 장학기금은 공모를 통해 시범학교로 선정된 대경중과 금호여중, 장충고에 명문학교 육성사업비로 지원되었다. 사업 내용은 방과후학교 수준 향상, 우수교사(강사) 확보와 우수학생 유치, 보조교사(코디네이터) 지원 등을 통한 자율학습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이다.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는 명문학교 육성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평가를 통해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다. 또한 평가를 통해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초구

서초다산장학재단은 출산율 제고와 서초구 핵심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되었다. 구체적인 비전은 ▲서초구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우수인재 발굴 지원 ▲대학등록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을 제고 유도이다.

장학금은 서초구에 만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로서, 당해년도 국내 소재 대학(전문대학포함)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2012, 2013년도 2년 동안 총 100명의 대학생에게 2억 5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2013년 9월 장학재단의 예산 문제로 인해 서초구청과 서초구의회가 조례안 개정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결국 수정된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나, 2014년도에는 장학생을 선발하지 않았고 2015년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마포구

마포구는 지난 2009년부터 장학기금 80억원을 조성해 그동안 총 796명의 학생들에게 12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장학기금 운영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학사업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 보다 많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포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설립하였다.

마포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비전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양성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 ▲경제적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의 면학 장려 ▲예능·체육 등에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육성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살고 싶은 교육문화 도시 조성이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마포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기반으로 현재 80억원 규모인 장학기금을 2021년까지 300억원으로 키울 예정이다. 장학재단의 재원은 기존의 장학기금 80억원과 이자수입을 기본재산으로 전액 출연하고 이외 2,500만원을 보충재산으로 출연해 재단 운영비 등 장학사업비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집안의 경제사정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장학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교육 양극화를 해소해간다는 계획이다.

장학재단 운영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로 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선발기준에 적합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예술·체육 분야의 국내 전국 규모 또는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중·고

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1월 출범한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14년 상반기 처음으로 153명의 장학생을 배출하고 총 2억 1,9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2014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분야는 인재육성·성적우수·마포·특기 장학생 등 4개 분야이다.

인재육성 장학생은 성적 우수자 가운데 마포구 소재 중학교를 졸업하고 마포구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에 입학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지급된다. 이 장학금은 관내 우수학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국가에 필요한 인재로 키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지역인재육성 장학생 18명에게 1인당 200만원이 지급된 것을 비롯해 일반계 고등학교 성적우수 장학생 27명에게는 150만원, 예·체능, 기능, 수학과학 분야의 특기장학생 2명에게는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또 성적과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선발하는 마포장학생으로 선발된 중학생 53명에게는 50만원, 고등학생 29명에게는 150만원, 대학생 24명에게는 300만 원 등 총 153명에게 약 2억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선발기준은 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대학교 재학생이다.



그림 17_ (재)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2014 상반기 장학증서 수여식

표 42_ 마포구 인재육성장학재단 2014년 상·하반기 장학 현황

(단위: 명, 천원)

장학생 종류	장학금 지급액			비고
	인원	지급액(1인)	소계	
마포장학생 (중학생)	88	500	44,000	장학금 지급액은 재단이 정한 장학금에서 개인별 타 장학금 등 기 수혜금액 제외한 액수 지급
마포장학생 (고등학생)	36	1,500	54,000	
마포장학생 (대학생)	47	3,000	141,000	
인재육성장학생 (고등학생)	19	2,000	38,000	
성적우수장학생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33	1,500	49,500	
성적우수장학생 (관외 고등학교 재학생)	3	1,500	4,500	
특기장학생 (중·고등학생)	4	2,000	8,000	
합 계	226		331,000	

은평구

(재)은평구민장학재단은 2007년 9월에 발족한 공익법인으로, 은평구에서 출연한 기금과 구민이 기탁한 후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으로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장학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까지 모두 12번에 걸쳐, 총 997명의 학생에게 13억 3,829만 3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재단은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확충해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학금 종류는 일반, 특기, 관학봉사, 소액 4가지이고, 모두 관내 2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 장학생의 경우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등학생은 2분기 등록금 최고 2백만원, 대학생은 1학기 등록금 범위 내 최고 백만원을 지원한다.

특기 장학생은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예술·체육·기능·문학 등에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발휘하여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초등학생은 30만원, 중학생은 40만원, 고등학생은 2분기 등록금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관학봉사 장학생은 은평구와 대학교 상호 협약사업에 참여한 재학생 중 평점 4.5점 만점에 2.0점 이상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학기 등록금 범위 내 최고 2백만원이다.

소액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상환대출금을 대출받은 대학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표 43_ (재)은평구민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인원	장학지급액
계		997	1,338,290
2007	1기	61	30,000
	2기	31	28,000
2008	3기	25	27,400
	4기	44	56,400
2009	5기	46	52,070
	6기	92	96,340
2010	7기	47	93,140
	8기	65	121,840
2011	9기	70	146,990
	10기	68	110,630
2012	11기	113	144,880
	12기	100	129,010
2013	13기	126	154,610
	14기	109	146,980



그림 18_ 2014년 상반기 (재)은평구민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2_4 기타

이상의 장학기금, 장학회, 장학재단 등 자치구에서 직접적인 장학사업을 하지 않는 곳은 양천구와 동작구 2곳이다. 양천구는 현재 장학사업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으며, 동작구는 장학사업 운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천구

양천구에는 재정상의 이유로 현재까지 설립된 장학기금이나 장학재단은 없으나, 현재 준비 단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장학사업은 없지만, 양천구의 각 동에서 장학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양천구 신정3동 장학회는 장학사업에 관심이 많은 신정3동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 5월 신정3동 장학회로 발족하여 매년 신정3동 청소년들의 장학사업과 함께 홀몸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에게 50~100만원 상당의 쌀을 전달해 왔다.

신정1동 역시 지난 1989년 주민장학회로 발족하여 장학회원과 주민들의 기금으로 7천 5백만원을 마련하고 기금의 운용을 통한 이익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20년 동안 모범 중·고등학생 및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 53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이 외에도 각 동에서 통장과 주민자치회 주도로 다양한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행정적으로 문서화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작구

동작구청에 따르면 현재 구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장학 사업은 없다.

표 44_ 서울시 자치구 장학기금 현황

장학 기 금					
자치구	명칭	수혜대상	장학금 종류	기금조성	연혁 및 비교
중랑구	중랑장학기금	중랑구 거주 및 중랑구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명문대 진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저소득자녀 장학금 -예·체능 특기 장학금 -기타 장학금	1. 구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민간 기부금 (11기부운동 등) 4. 기타 기부금	-2008년 조성 -2010 ~ 2013년까지 1,088명에게 총 14억 5천여만원 지급 -2011년 교육환경만족도 조사 9위 -2014년 서울시 자치구중 최고 장학기금(123억원) 확보
용산구	꿈나무장학기금	관내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꿈나무(생활 관련) -예체능 특기자 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지역 사회봉사 장학금	1. 구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2010년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2011년 10억 기금 출연 -2012년 15억 기금 출연 -2013년 10억 기금 출연, 총 265명에게 첫 장학금 지급 -한부모, 장애, 다문화, 조손 가정 등 다양한 사회특성계층 장학생 지원
강북구	강북구장학금	관내 1년 이상 거주자의 고등학생 자녀	-복지장학금 -운동장학금 -특기장학금 -유공장학금	구의 기금마련 (자세한 내용 없음)	-1995년 조성 -입학금을 제외한 연간 수업료(분기별) 지원
도봉구	교육지원과 장학기금	관내3년 이상 거주자의 고등학생 자녀	-모범장학금 -효행선행장학금 -특기장학금	1. 구 출연금 2. 지하철 승차권 판매수입 중 일부 기부금 3. 도봉미술회화 기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1999년 구 출연금 및 기타 기금으로 조성 -2009년 조례제정
영등포구	영등포구장학기금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지역인재육성장학생 제외)	-성적우수장학금 -지역인재육성장학금 -특기장학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금	1. 구의 출연금 2. 구의 타 기금 또는 회계에서의 전입금 3. 기금 예탁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2009년 영등포구장학기금 조례 입법 -2010년 첫 장학금 지급 -2014년 7월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 지원사업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50%이내 가구 대학생	-강남구 장학금	1. 구 출연금 2. 민간 후원금 3. 그 밖의 수입금	-2004년 조성 -2013년 648명에게 총 997,364,000원 지원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함
성동구	성동구장학기금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구민의 고등학생·대학생	-일반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특기생장학금	1. 구 출연금 2. 구의 타 기금 또는 회계에서의 전입금 3. 지원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의 지정 기탁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2007년 장학기금 조성 -2008년 ~ 현재까지 총 289명에게 5억 8천만원 지원 -17개 동에서 풀뿌리장학회 구성 및 운영

장 학 기 금					명칭	수혜대상	장학금 종류	기금조성	연혁 및 비고
성북구	자치구	저소득주민 장학금	저소득 주민 자녀 대학생 및 입학 예정자	저소득주민 장학금	구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영	-2008년 조성 -연 1회 30-35명에게 최대 230만원 지급 -이 외 성북구 민간이 운영하는 성북장학회와 길음2동 통장학회를 비롯해 동별 장학회가 운영되고 있음			
광진구	자치구	광진구 장학위원회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구민의 고등학생	광진구 장학금	1. 구 출연금 2. 민간기탁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1996년 광진구 장학기금 운영 -2005년 조례 폐지 -2006년 광진구 장학위원회 구성 -이 외에 광진구 각 동의 자치적 장학회 활동이 활발함(화양귀목장학회, 광나루장학회, 상록수나눔회, 중곡4동장학회 등)			
강동구	자치구	강동구 교육지원기금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고등학생	-일반장학생(50%) -성적우수장학생(30%) -특기장학생(10%) -지역봉사장학생(10%)	1. 구 출연금 2. 이자수입금 3. 자발적 후원의 기부금	-1998년 강동구 출연으로 조성 -2014년까지 총 541명에게 96,791만원 지급			
동대문구	자치구	동대문구장학기금	1년이상 거주 고등학생 대학생	-저소득 자녀 장학금 -상위2% 성적우수 장학금	1. 구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2010년 동대문장학회 해산 후 그 기금을 바탕으로 동대문구장학기금 조성 -틈새계층 지원 -2013년도 186명에게 2억 6천여만원 지급			

표 45_ 서울시 자치구 장학회 현황

자치구	명칭	수혜대상	장학금 종류	기금조성	연혁 및 비교
장학회	강서구	관내 1년이상 거주하는 구민의 고등학생, 대학생	-강서구장학금 -황금자 여사 장학금	1. 구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재단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2001년 10월 장학회 창립 총회 개최(발기인 27명) -2001년 12월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 법인설립허가 -2001년 12월 26일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 발족 -2014년 현재 총 13회, 646명에게 7억7,970만원의 장학금 지급
	구로구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진학 예정자	-인재육성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구로구장학금 -특기장학금 -지정장학금	1. 기본재산 5억 2. 보통재산 1억8,800만원 3. 재단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2000년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설립 -2006년 이후 주출 -2013년 장학회 재정비 -현재까지 187명, 1억 7,932만원 지급 -2017년까지 21억원 기금 확충 목표 -기념일 기부 캠페인 등 기부문화 조성
	금천구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성적우수장학금 -특기장학금 -선행장학금 -복지장학금 -기탁장학금 -멘토링장학금	1. 구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재단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2007년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
	서대문구	관내 거주 고등학생·대학생	-안산장학금	1. 구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1990년 출범 -2013년도까지 총 703명에게 6억 3,100만원 지원
	종로구	재산세 납부금액 50만원 미만이고 1년이상 종로구 거주자의 자녀 고등학생, 대학생	-성적우수장학금 -예체능장학금 -일반장학금	1. (재)종로구장학회 건물과 주차장 임대 수익 2. 그 밖의 수입금	-2004년故최형규 이사장의 사재로 출연. 민간 장학회 -2012년 조례 제정 -현재까지 21회에 걸쳐 2,446명에게 41억 5,000여만원 지급
	관악구	관내 중·고등학생	-우등장학금 -효행장학금	1. 민간 기부금 2. 재단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1994년 출범 -2014년까지 1,553명에게 5억 1,424여만원 지급 -관악구민의 기부로 운영되는 민간 장학회

표 46_ 서울시 자치구 장학재단 현황

자치구	명칭	수혜대상	장학금 종류	기금조성	연혁 및 비교
송파구	송파인재육성 장학재단	관내 1년이상 거주 고등학생 관내 2년이상 거주 대학생	-일반장학금 -우수장학금 -특기장학금	1. 구 출연금 2. 구민의 장학기금 후원 (인 1계좌 갖기 운동)	-1994년 (재)송파장학회 설립 -2008년 (재)송파장학회 확대 개편 -2010년 장학재단 정관변경 승인 -2011년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2014년 해외문화체험 장학생 최초선발 -2020년 50억원 장학기금 조성 목표
노원구	노원교육 복지재단	사회배려계층	-롯데 장학사업 -드림점포 -행복나무 우체통 -꿈 장학금	1. 구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2011년 출범, 노원구장학기금 위탁 -다양한 장학, 복지사업 추진 중
강북구	강북구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최저생계비 170%이내 저소득가정 자녀	- 재능장학생(음악 미술 무용 체육 연구 학습)	1. 구민 성금	-2012년 창립 -2013년 첫 장학생 선발 -2014년 현재 9명 지원, 3월 약 8억 5000여만원 적립
중구	(재)중구인재육성 장학재단	관내 중·고등학교	-명문학교 육성사업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금 2. 재정출연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등	-2011년 조례 제정 -2012년 2월 23일 출범 -학교 등의 단체 대상 장학재단
서초구	서초다산장학재단	관내 만 10년 이상 거주가구의 셋째이상 자녀 중 대학재학생	-다산장학금	1. 구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2011년 조례 공포 -2012년 9월 재단 설립허가(서울특별시교육청) -2012-2013년 100명에게 2억 5,000여만원 지급 -2013년 개정된 조례안 통과
마포구	마포인재육성 장학재단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중·고등학생, 대학생	-마포장학금 -특기장학금 -인재육성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1. 구 출연금 2. 기본재산의 운용수익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 4. 그 밖의 수입금 등	-2009년까지 마포구장학기금으로 운영 -2013년 12월 서울시 교육청 마포구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허가 -2014년 1월 사무국 출범 -2014년 첫 장학생 153명 배출, 2억 1,980만원 장학금 지급
은평구	(재)은평구민 장학재단	관내 2년 이상 거주 초·중·고·고등학생 및 대학생	-일반장학금 -특기장학금 -관학봉사장학금 -소액장학금	1. 구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3. 기금이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2006년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2007년 장학재단 발족 -2014년 상반기까지 997명에게 13억 3,829만원 지원

장 학 재 단

서울시 자치구 장학사업을 살펴보면 장학기금, 장학회 중심에서 최근 장학재단 설립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7개 자치구 중 장학재단 6개가 2012년 이후 설립되었다.

이처럼 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장학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장학대상과 장학수요가 다양화·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들 장학재단은 자치구 특성을 반영하여 장학사업을 특성화, 전문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 선행 장학금 → 재능 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등)

3. 국내외 우수 장학재단 사례 분석

3_1 The Public Education Foundation

비영리 네바다 주 법인 The Public Education Foundation은 학교 단독으로 공교육을 수행하기에는 어렵다는 신념하에 1991년 설립되었다. 초기 재단의 주요사업은 남쪽 네바다 주 인구와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미래 가능성을 정의하는 것이었다. 이후 교육자, 기업, 지역사회단체, 시민과 협력하여 학교 개선 전략, 프로그램 개발, 장학금과 지원금 수여, 공교육의 성장을 위한 이사회를 설립하였다. 현재 재단은 공교육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방법과 대담하고 새로운 생각으로 네바다 주의 공교육을 인도해 나가고 있다.

재단의 미션은 Ready for Life으로, ‘모든 젊은 사람은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우리의 미션은 네바다 주 청소년이 ‘인생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함축하고 있다. 현재 재단의 총 자산은 \$14,656,853로 우리 돈으로 약 157억원이며, 25명여의 직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재단은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장학사업은 고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현재까지 \$6,900만 이상



그림 19_ We R Community 로고

을 지원하였다.

We R Community는 2008년 시작된 10대를 위한 새로운 자원 봉사 프로젝트이다. 고등학교 한 반에 \$5,000를 지원하면, 학생들은 비영리 기관을 선택하여 봉사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리더십과 서비스정신, 봉사의 중요성을 스스로 학습한다.

선생님을 위한 사업도 있다. Teacher EXCHANGE™는 학교 교사들의 학습 도구 준비를 돕기 위한 기프트카드 또는 사용가능한 물품을 기부하는 프로젝트로 환경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그린 캠페인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에서 쓰이는 사무용품, 전자제품 등을 교사에게 기부함으로써 교사들은 수업준비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었고 주 내 낭비되는 물품 및 쓰레기의 양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림 20_ Teacher EXCHANGE™ 로고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위한 리더십 연구소(Leadership Institute)는 공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학교, 기업, 교육자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운영된다. 실무자, 학자, 사업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 리더십 회담을 개최하는 Education Leadership Summit과 교육자를 위한 전문 리더십 아카데미인 Executive Leadership Academy를 운영한다.

이외에도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사업이 있다. Clark County READS는 2001년 Clark County의 어린이를 위한 독서 프로그램이자 가정의 문맹 퇴치 프로그램이다. Family Literacy Program은 학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 초기 단계에서의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과 학력수준이 낮은 부모의 지식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다. Library Enhancement Program은 학교의 오래된 책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다. Reading Is Fundamental Program은 학문적으로 낙후된 학교의 학생들에게 책을 제공하는 사업이고, Reach Out and Read은 유아를 위한 독서 프로그램으로 책의 중요성과 소리 내어 책을 읽는 독서의 중요성을 교육한다.

독서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외에 예술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Artists 4 Kids는 학생들의 예술경험 촉진과 Las Vegas 예술 커뮤니티의 연계를 목표로 한다. A Tribute to the Arts Concert Series는 학생, 교사, 교수, 음악 전문가가 함께 하는 예술 콘서트 시리즈이고, Boot Camp for the Arts는 재능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클리닉이다. Shakespeare in the Schools은 셰익스피어 극장 인턴 프로그램이고, Summer Arts Institute는 공공교육재단의 모금행사에서 공연할 학생을 위한 리허설 및 워크샵이다.

이 외에도 교수진, 학생, 관리자의 교육 강화, 지식 공유, 협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재단의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인 InterAct™과 교사 혁신, 학생 능력 향상, 모범 사례를 장려하기 위한 Grant Programs, 어린이의 치아 건강을 위한 Project Smile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21_ InterAct™ 로고

마지막으로 재단의 사업 중 하나는 공공교육개혁 프로그램이다. 네바다 주는 다양한 인종의 학생,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특수 교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학생 등 학생 간 교육 격차가 심한 상태이다. NV pie(NEVADA Partnership for Inclusive Education)는 Learning is not “One Size Fits All”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이러한 학생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교육개혁 프로젝트이다. Empowerment Schools은 학생에게 권한부여를 함으로써 학생, 파트너, 지역사회 구성원, 학교 직원 등을 포함한 협업을 통해 학생의 학습과 수행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Centers of Excellence는 뛰어난 학습 결과를 보이는 학교를 “Great Schools”로 선정하고 그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아카이빙 센터의 역할을 한다.



그림 22_ NV pie 로고

이상 재단의 현황과 사업 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네바다 주의 공공교육재단은 기부자와 수혜자에게 편리한 장학재단이다. 기부자가 원하는 다양한 장학펀드 조성 여건을 마련하여 수혜자는 원하는 방식의 장학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또한 자선행사 개최를 통한 기부 참여를 유도, 기부자를 위한 행사와 장학 수혜자간의 교류 행사, 교

육 영웅상, 교육 성취상과 같은 시상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끊임없는 교류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즉, 공공교육재단으로서 학생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사, 학부모, 영·유아, 기업 등 지역사회 전반의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고,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장학재단의 미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47_ The Public Education Foundation 사업영역

구분	내용
장학금	Scholarships_140개 종류의 장학 지원 Grant Programs_교사, 상담사, 관련 직원, 관리자를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
학습지원	Leadership Institute_교육 지도자를 위한 프로그램 We R Community_청소년을 위한 학습 지원, 자원 봉사 프로젝트 Teacher EXCHANGE ™ _교구비 지원을 위한 \$20 기프트 카드 발행
지역자원 연계	Clark County READS_클락 카운티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문학 프로그램 Artists 4 Kidz_아이들을 위한 풍부한 예술 교육 경험 제공 Shakespeare in Schools_셰익스피어 무료 연극 공연 Project Smile_어린이의 치아건강을 위한 서비스
네트워킹	NV pie(NEVADA Partnership for Inclusive Education)_공공교육개혁 프로그램 Empowerment Schools_학교로의 권한 위임(시범학교 운영) Centers of Excellence "Great Schools"_ 뛰어난 성과가 있는 학교 사례 공유 InterAct ™ _교사와 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 WW Learning Connection_전 세계적인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

3_2 Georgia Student Finance Commission

조지아학생재정위원회(GSFC)는 조지아 주 학생들의 고등교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주(state)기관이다. 1980년 조지아 주 총회에 의해 설립된 GSFC는 주의 복권사업 수익으로 운영된다. 주요 사업은 HOPE Scholarship을 포함한 장학사업, 조건부 학자금 대출사업 등이다.

GSFC의 특징 중 하나는 조지아 학생 금융 기관(GSFA: Georgia Student Finance Authority)과 조지아 고등 교육 지원 공사(GHEAC: Georgia Higher Education Assistance Corporation)가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된다는 것이다. 또한 통합 온라인 시스템인 GAcollge411.org를 운영함으로써 GSFC 장학생과 조지아주 사람들의 교육 및 직업 선택과 관련한 멘토링 서비스

등 통합된 장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GSFC의 미션은 조지아 거주민의 고등교육 이후 교육에 대한 기회 증진과 향상이며, 이를 위한 비전은 조지아 주 학생 재정 지원과 교육 서비스의 최고기관이다.

총자산 \$555,437,556, 한화로 약 5,960억원이다. 직원 약 140여 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사업은 크게 장학사업, 보조금사업, 대출사업 세 가지이다.

대표적인 장학사업은 HOPE (Helping Outstanding Pupils Educationally) Scholarship이다. 1993년부터 운영된 HOPE 장학금은 조지아주에 거주하며 영주권 이상의 자격을 갖춘 주내 고등학생이 평점 3.0이상의 학점으로 주내 공·사립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평점 3.0이상의 학점을 유지하면 학비 및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장학사업이다. REACH Scholarship은 고등학교 졸업, 대학 입학 등 고등교육 위한 경제적 지원과 학업 및 사회생활을 위한 멘토링을 제공하는 장학 프로그램이다.

Zell Miller Scholarship은 조지아의 주지사였던 Zell Miller의 이름을 딴 장학금으로 HOPE 장학 지원 자격에 학문적 성취도를 고려하여 우등생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Charles McDaniel Teacher Scholarship 역시 조지아주 교육감이었던 Charles McDaniel을 기념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교육학 전공자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일반적으로 매년 3명에게 각 \$1,000를 수여한다. 마지막 HERO Scholarship Program은 전쟁지역에 파견된 주 방위군과 재향군인 및 배우자와 자녀에게 수여하는 교육 장학금이다. 장학금은 학기와 학업 시간에 비례하여 최대 \$2,000까지 받을 수 있다.

공통 지원자격은 ▲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조지아 주에 거주하는 주민 ▲ 필요한 경우 의무 병역(조건부 학자금 대출) ▲ 대학 규정의 SAP유지, 채무불이행자가 아니거나 학생 재정지원 프로그램 참여자가 아닌 경우 ▲ 마약 없는 중등 교육법 (Georgia Drug-Free Postsecondary Education Act) 준수자이며 학문적 조건을 갖추었거나, HOPE 장학생 자격을 갖춘 조지아 주 대학 등록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자 이다.

지원금(Grant) 사업은 고등교육을 위한 보조금으로 경제적 수

준, 학업성적, 봉사활동, 학업지역을 기준으로 선발하여 교육비용 보조를 목표로 한다.

HOPE Grant Program은 HOPE Scholarship과는 별도로 일을 하면서 대학학위 수료 또는 취득을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이다. 지원자격은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 되어야 한다. ▲ 학사 학위 소지자 ▲ 63학기 또는 1,425분 이상 HOPE Grant payment를 받은 자 ▲ HOPE 장학금, Zell Miller 장학금, HOPE Grant 등 혜택을 받았던 자이다.

Georgia Tuition Equalization Grant Program은 조지아 주민의 사립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233, 학기별 \$350를 연간 최대 4분기 또는 3학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은 장학금의 지원자격과 대부분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조지아 주내 대학에 full-time 학생으로 등록한 사람이어야 한다.

Accel Program은 고등학교부터 대학 졸업까지 연계하여 공부하고자 하는 고등학생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자격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 홈스쿨링을 포함한 공·사립 고등학생 ▲ 대학 또는 기술 대학에 등록한 자 ▲ Accel 프로그램에 게재된 미국 시민권 자격을 갖춘 자이다.

Public Safety Memorial Grant는 직무 중에 불구가 되거나 순직한 조지아의 공공 안전 공무원의 자녀들에게 수여되는 지원금으로 연 \$18,000 이하이다. HOPE GED Grant는 조지아의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GED)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에게 1회에 한하여 \$500를 수여하는 지원금이다.

대출사업(Cancelable Loans)을 보면, 먼저 Student Access Loan(SAL) Program은 지원자 중 무작위로 선발되며, 연 최소 \$500에서 최대 \$10,000, 전체 최대 \$40,000까지 대출 가능하다. SAL은 공적 서비스 분야나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

Student Access Loan - Technical(SALT) Program은 기술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선착순 선발한다. 연 최소 \$300에서 최대 \$3,000, 전체 최대 \$12,000까지 대출 가능하다. SALT는 평균 최

소 3.5점의 학점을 받은 졸업생에게는 대출금 상환을 면제해준다.

대출사업의 공통된 내용을 보면 매년 지원→ 선정→ 보증→ 승인→ 대출의 과정을 거치고, 1% 고정금리가 유지되며 최소 \$50씩 최대 10년 동안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매달 상환은 첫 대출을 받은 60일 이후부터 \$10씩 상환하며, 첫 번째 대출금 상환시 \$50 이하로 대출금의 5%를 공제한다. 또한 대출금은 학생에게 직접 전달된다.

GSFC의 다양한 사업으로 인해 조지아주의 교육환경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HOPE 장학금은 130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56억을 수여한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대학 장학금으로 테네시 등 15개 주에서 HOPE 장학금을 모방한 장학 제도를 도입할 만큼 미국의 대표적인 장학제도가 되었다⁹⁾.

HOPE 장학금을 받기 위해 조지아 주내 우수 학생들이 타주 명문대학으로의 진학 대신 조지아 주 내의 대학진학을 선택하였고, 이로 인해 조지아 주의 교육수준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HOPE 장학금은 평점 B 이상의 학점을 유지해야 장학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출석률 및 성적 신장 등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사회·경제적으로도 저소득계층과 흑인의 대학 진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사회적 계층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고등 교육 기회의 평등화에 기여하였다.¹⁰⁾

또한 GSFC가 운영 중인 통합 온라인 시스템 GAcollge411.org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대학 선택부터 지원 준비까지 상담해주는 입학 컨설팅, 장학금 매칭,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진로상담 교사 등을 위한 워크숍 및 박람회를 개최해 지역 커뮤니티 전반의 학력 신장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GSFC는 2010년대 주의 미국 경제시장의 침체와 조지아 주 복권사업의 침체로 인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를 해결하게 위해 조지아주는 장학금의 규모를 축소하고 자격 조건을 강화 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장학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9) 연합뉴스. 2011.01.09. 美조지아주, 대학 장학금까지 삭감

10) NEW GEORGIA Encyclopedia. 2013.05.22. "HOPE Scholarship"

Career Planning	High School Planning	College Planning	Financial Aid Planning
Learn about yourself	Your plan of study	Prepare for college	Georgia's HOPE program
Explore careers	High school planning timeline	Explore postsecondary schools	Financial aid 101
Learn about skilled trades	Succeeding in high school	Explore programs and majors	Financial aid calculators/Find scholarships
Get a job	High school test prep	Transfer student planner	Build your financial aid plan
Voices	Voices	Applications	Financial aid applications
		Voices	Financial fitness

그림 23_ Georgia Student Finance Commission의 사업영역

3_3 The Scholarship Foundation of St. Louis

세인트 루이스 장학재단은 1920년 유대인 여성 교육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후 1953년 종교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1960년대 초 세인트 루이스 장학재단으로 독립하였다. 2013년 세인트 루이스 장학재단은 약 560여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총 \$3,800만을 지원하였다.

세인트 루이스 장학재단의 미션은 건강한 도시, 경제 발전,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고등 교육의 기회 확대이다. 비전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세인트 루이스 주민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재정 지원 ▲ 학생과 가족들을 위한 교육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재단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기부, 현물제공, 자원봉사 등의 참여 기회 제공 ▲ 고등교육기회의 평등함을 추구함으로써 공공제도 개선 ▲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적 파트너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도모이다.

이를 통해 세인트 루이스 장학재단은 세인트 루이스 거주자의 고등교육률을 현재 25%에서 50%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인트 루이스 장학재단의 총자산은 \$35,408,139로 한화 약 380억원이다. 조직은 3개 부서 약 6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분야는 크게 재정지원 프로그램, 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먼저 재정 지원 프로그램(Student Loans and Grants)을 살펴보면,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The Interest-Free Loan Program)이 있다. 세인트 루이스 장학재단의 핵심 사업으로 비영리 고등교육 기관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매년 600여 명에게 최대 \$9,000까지 갱신해주는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이다. 이 중 일부는 간호학을 배우는 학생과 같이 특정 분야에 배당되기도 하고 기부자와 수혜자 간에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결해 주기도 한다.

긴급 대출 프로그램(The Emergency Loan Program)은 실직, 가족의 죽음이나 질병 등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제공되는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으로 2년 연속 갱신이 가능하다. 브라보 지원금 프로그램(The Bravo Grant Program)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으로 개인적 고난을 극복하거나, 학문적 목표를 달성한 사람,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한 사람 등 매년 소수의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2013년에는 13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약 \$600,000를 수여하였다.

세인트 루이스 장학재단은 인종, 종교, 신념, 국적, 성별, 나이, 피부색, 성적취향, 병역,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학문적 잠재력, 인성,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수혜자는 미국 내 공인된 비영리 고등교육 기관의 기술, 학사학위 또는 학위와 관련한 프로그램에 등록하여야 하며, 목사를 제외하고는 전공에 제한이 없다. 다만, 지속적인 대출 갱신을 위해 학생들은 경제적 상황과 학문적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

구체적인 자격조건은 ▲ 세인트 루이스 주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 최소 평점 2.0 이상인 자 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자를 위한 테스트 합격자 ▲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청소년 추방유예 허가자에 해당되는 자 등이다.

학생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Student Advocate and Advising Program)에는 Advice와 워크샵, 상담이 있다. Advice는 학생을 위한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세인트 루이스 지역의 공립 고등

학교와 지역사회기관은 학생들의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목표로 매년 1,500명 이상의 학생과 가족들에게 교육 진로와 재단의 재정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며, 일대일로 지정된 학생들의 연방학생원조(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FAFSA), 입학,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 신청과 가정의 재정 컨설팅을 돕는다. 여름동안엔 신입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 경제 교육 및 유용한 학교생활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워크숍과 상담(Workshops and Clinics)프로그램은 세인트 루이스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세인트 루이스 장학재단은 고등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 연방학생원조 프로그램, 학교의 재정보조계획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워크숍과 클리닉을 개최하며,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된다.

세인트 루이스 장학재단의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기부채널이다. 장학숍은 1960년 마케팅 사업가이자 자선사업가인 Evelyn Newman이 기획한 소매점이다. 장학숍은 8,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기업의 기부금 및 고급의류, 주얼리, 액세서리, 수집품 등 2만 개 이상의 기부물품을 면세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장학 재단의 기금으로 활용하는 세인트 루이스 장학재단의 기금마련 채널 중 하나이다. 자원봉자와 학생들에 의해 운영되며, 매년 \$300만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이외에도 기부금, 유가증권, 신탁, 선물증여, 유산, 자원봉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장학재단에 기부를 할 수 있다.

세인트 루이스 장학재단은 장학 사업 외에도 지역사회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장학재단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인트 루이스 장학재단은 단순히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의 대학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관된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의 재정 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워크숍 개최 및 어려운 금융 개념, 공문서의 이해와 올바른 절차 안내 등을 위한 무료 클리닉 운영 등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인트 루이스 장학재단은 직접적인 현금, 유가증권, 유산, 신탁 등 경제적 기부를 포함해 개인의 시간, 재능, 상품 기부 등 다양한 기부 채널을 형성하여 민간참여 영역을 확대하였고, 교육 기관과 기업, 지역봉사단체와의 활발한 파트너십을 통해 주 전반의 학력 신장과 커뮤니티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 등 장학재단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_4 Scholarship Database 사례

국외 장학 사례 중 눈에 띄는 것은 다양한 플랫폼 형의 장학금 매칭 사이트와 프로그램이다.

Education connection¹¹⁾은 캘리포니아주의 교육 및 미디어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는 비상장 기업에서 운영 중인 장학금 플랫폼 사이트이다. 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학교를 추천, 이와 연계된 장학금을 소개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사이버대학의 학교와 학생들을 매칭하는 장학사업에 특화되어 있다. 대학 학위별, 전공별 4,000개의 데이터베이스 제공을 통해, 사회취업 후 새로운 전공을 원하거나, 전문학사 졸업자 사이버대학 편입 등 능력 개발을 위한 사회 학습자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Scholarships.com은 국가 장학협회(National Scholarship Provider Association) 운영을 통한 네트워킹 사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학금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1998년 창립이후 학생들의 학업을 위한 금융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 전역의 대학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270만개의 각종 장학금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와 관련 입학통계, 학비, 재정지원 및, 전공분야 등과 관련한 7,000개 이상의 상세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원하는 형태의 장학금(학비 지원, 보조금 지원, 기타 재정지원 등)의 검색을 통해, 지원 가능한 학교를 검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Scholarshipchart¹²⁾는 미국 내 모든 장학금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장학금, 보조금, 기타재정 지원 등 세 가지 분류별로 관련 장학금을 검색할 수 있는 강력한 검색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를 선택한 후에 학교 행정실을 통한 장

11) <http://www.educationconnection.com>

12) <http://scholarshipchart.com/>

학금 정보가 가장 정확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이로부터 나온 데이터베이스를 학생들에게 직접 제공하고 있다. 학부, 대학원 과정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장학금과 행·재정적 지원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장학금(Scholarship), 대학보조금(Grant), 여성을 위한 장학금, 소수 장학금, 학부장학금 등 특화된 장학금의 경우 장학금 안내 섹션을 통해 지원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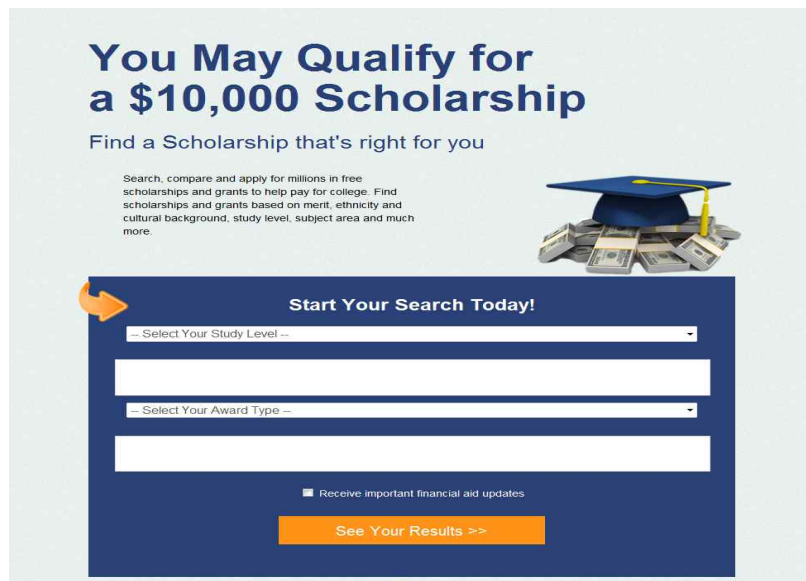


그림 24_ Scholarshipchart 홈페이지 메인

독일학술교류처¹³⁾(DAAD : German Academic Exchange Service)는 독일의 유학 및 연구를 위한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다. 독일 대학의 다양한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와 독일 유학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DAAD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은 출신국과 전공분야에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보 및 출판관련프로그램, 상담 및 자문업무 등을 통해 독일 내 장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장학금 수혜를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어, 독일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이 꼭 참고하는 사이트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학생 및 연구원 그리고 교수들의 학술교류, 대학간 교류, 연구를 위한 독일 체류 및 독일과 세계 각국간의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특화된 영역의 장학정보 사이트들도 많이 있다. Virginia

13) <https://www.daad.de/>

Scholarship은 버지니아주 내 장학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Scholarships4mom.net은 엄마(경력단절, 미혼모 등)들을 위한 교육 정보 및 장학금 정보를 제공한다.

Upromise¹⁴⁾는 모든 미국인이 학비걱정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 하에 세워진 기업이다. 즉 장학금을 위한 장학기금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채널사업을 통해 한 가족의 소비를 통해 자녀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운영 중에 있다. 대학과 금융회사간의 합작을 통해 2001년 Upromise 보상프로그램이 도입되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Upromise 카드의 판매를 통해, 학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4년에는 미국 내 10 best cash-back website로 선정되었다¹⁵⁾.

Upromise 회원들은 슈퍼, 소매점, 레스토랑, 약국, 호텔, 주유소, 온라인 쇼핑 사이트 등의 가맹점(전국 50,000개 이상)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구매시 발생하는 포인트가 현금으로 적립(최대 5~8%)되어 학비로 활용할 수 있다. 즉, 학비마련을 위한 포인트 적립, 학비를 위한 대출금 상환, 장학 기부 등이 Upromise 카드 사용을 통해 가능하다.



그림 25_ Upromise의 포인트 적립 방식

14) www.upromise.com

15) 10 best cash-back websites, Las Vegas Review-Journal. 2014년 12월 23일자.

표 48_ Scholarship Database 종류와 특징

Database	특징
Education connection	교육수준별 장학금 검색 기능 제공
Scholarships.com	국가 장학협회(National Scholarship Provider Association) 운영을 통한 네트워킹 사업 장학금 검색 후 지원 가능한 학교를 검색할 수 있도록 도움
Scholarshipchart	장학금 지원규모별 장학금 검색, 지원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Verginia Scholarship	버지니아 주내 장학금 관련 정보 제공
DAAD German Academic Exchange Service)	교육과정(전공 중심)에 따른 장학 정보 제공
Scholarships4mom.net	엄마(경력단절, 미혼모 등)들을 위한 교육 정보 및 장학금 정보 제공
Upromise	장학기금 모집을 위한 기부채널 가입 후 해당 상점에서 구매시 포인트는 장학기금으로 자동 적립

3_5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및 장학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2009년 5월 7일 출범하였다. 현재 나라가 위박한 재원, 채권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 기부금을 운용하여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소중한 인재가 되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한 자원을 나눈다”를 미션으로 고객감동 인재육성자원 운용기관이라는 비전을 갖고 고객센터 이용률 75%, 학자금지원율 50%, 고객만족도 최고등급을 비전목표로 한다. 핵심경영가치는 4C, Credibility(신뢰), Creativity(창조), Commitment(헌신), Collaboration(협력)이다.

중기 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객맞춤형 학자금 지원체제정착을 위해 ▲학자금의 안정적 지원 ▲학자금지원 서비스 개선 ▲대학생 정보지원 서비스 강화를 과제로 삼고 있다. 다음 학자금지원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학자금 지원제도 운영모니터링 기반 조성 ▲학자금 상환관리 강화 ▲부실채권 사후관리 강화, 나눔 봉사 역량 강화를 위해 ▲나눔봉사

프로그램 운영기반 구축 ▲ 학생종합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 고객의 사회적 책임 수행 지원을 과제로 한다. 마지막 성과 중심 경영기반 고도화를 위해 ▲ 고객중심 서비스체제 구현 ▲ 통합적 리스크 관리체제 고도화 ▲ 과학적 업무수행 기반 조성 ▲ 발전적·생산적 조직문화의 정착을 전략과제로 삼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주요업무는 ▲ 학자금 대출(돈돈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등) 수행 ▲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국가장학사업 수행 ▲ 인재육성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학자금 재원 조성을 위한 재단체 발행 및 운용 ▲ 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금 모집 및 관리 ▲ 기숙사 등 학생복지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이다.

한국장학재단의 조직은 2014년 12월 현재 3본부 15개부서이다. 본부는 대출경영본부, 나눔경영본부, 협업본부이며 각 본부별로 대출사업, 장학사업, 경영지원을 맡고 있다.

직원은 2014년 3/4분기 기준으로 상임임원과 직원, 총 233명이다. 구체적으로 기관장 1명, 상임 이사 4명, 비상임 이사 8명, 상임 감사 1명으로 상임임원은 총 4명이다. 직원은 정원 235명에 현원 229명이고, 무기계약직은 정원 39명에 현원 35명, 기간제 94명, 단시간 1명, 소속외 인력은 396명이다.



그림 26_ 한국장학재단 조직도

2014년 정부 출연금은 3조 8667억 2400만원이었고, 총 수입 예산은 8조 6827억 2300만원이다. 주요 사업 및 각 사업에 따른 예산액은 다음 표와 같다.

2014년 기준 국가장학금(Ⅰ、Ⅱ, 셋째아이유형)에 사용되는 예산이 3조 4575억원으로 가장 크고, 이어 든든학자금 예산이 2조 427억원으로 두 번째로 크다.

표 49_ 한국장학재단 주요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일반상환학자금 (학자금직접대출)	1,191,070	1,943,370	1,597,980	811,505	770,928	790,300
돈돈학자금 (ICL,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	848,299	1,087,334	1,514,968	1,781,154	2,042,700
이차보전	179,144	179,024	168,555	141,227	106,832	73,007
군이자지원(ICL, 일반포함)	-	-	-	6,748	9,045	15,044
일반대출특별상환유예	-	-	-	27	4,258	3,652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미래드림)	165,928	154,371	196,304	-	-	-
차상위계층장학금 (희망드림)	30,875	85,838	64,846	-	-	-
저소득층성적우수장학금 (우수드림)	-	-	98,603	-	-	-
국가장학금 (Ⅰ, Ⅱ, 셋째아이유형)	-	-	-	1,732,999	2,584,793	3,457,500
국가근로장학금	78,780	71,031	74,761	70,933	138,973	186,500
국가근로 (다문화탈북가정멘토링)	2,138	1,272	4,070	4,739	6,003	13,500
국가근로 (교육기부)	-	-	-	4,049	6,001	-
국가우수장학금 인문사회계 (구.지방대인문계열장학)	13,218	15,043	16,168	12,482	13,977	12,960
전문대우수장학금	-	-	9,510	6,136	823	647
드림장학금	-	-	-	70	115	685
희망사다리장학금	-	-	-	-	9,318	9,650
미래한국100년 인문학장학금	4,715	-	-	-	-	-
국가연구장학금 인문사회계	-	4,979	4,892	4,941	4,962	5,000
사랑드림장학금	-	178	1,454	1,394	1,934	1,552
대통령과학장학금	6,780	5,700	4,906	4,943	4,796	6,200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구.지역대우수학생 포함)	75,569	77,162	76,503	64,876	66,548	63,300
국가연구장학생 이공계 (구.이공계대학원연구장학생)	5,921	844	50	-	-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92,916	90,090	96,194	92,496	102,115	109,600
대위변제	99,526	83,303	69,643	83,798	86,276	113,404
보증료환급	5,605	3,761	32,549	2,746	2,987	3,557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	887	1,279	2,089	2,619	3,479
대학생지식봉사	-	-	421	1,447	1,856	2,097
학자금지원모니터링	-	-	-	-	-	972
맞춤형장학서비스센터운영	450	4,813	11,388	16,785	12,968	14,226
민간기부인프라구축	-	327	281	181	245	414
통계조사분석	430	100	292	143	1,620	500
학자금지원 IT구축 및 지원	17,879	2,858	27,782	19,628	10,073	18,145

※ 참고문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발췌

주요 사업 중 장학금 관련 내용만 보면 크게 복지장학금과 성적 우수장학금으로 나뉜다.

복지장학금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I·II 유형,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국가근로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이 있다.

국가장학금의 특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며, 등록금 우선감면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등록금 마련의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지원기준은 성적과 소득분위이다. 국가근로장학금은 수업시간 외 일정 시간 교내·외 근무를 하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성적과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선발한다.

사랑드림장학금은 기탁금을 활용한 장학금으로 영어활동실적으로 선발하는 ETS TOEFL 장학금, 동서울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둔남장학금, 범한판토스 장학금, 한국가스공사 장학금, 인삼경작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KGC인삼공사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희망사다리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맞는 현장실습을 경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장학금 유형은 취업확정유형, 취업전제유형 두 가지이다.

성적우수장학금은 우수학생을 지원하여 국가의 핵심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이 있다.

대통령과학장학금은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우수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국내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비, 해외장학생에게는 연간 5만달러까지 장학금을 지원한다.

드림장학금은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해외유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해외대학에 진학한 경우 연간 5만달러까지 장학금을 지원한다.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는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 계열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대상으로 하고, 인문사회계는 국내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계열에 입학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다. 두 유형 모두 장학생으로 선정 되면,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활비를 추가 지원한다.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은 전문대학에 진학한 우수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우수 기능인 양성 장학금이다. 그러나 2013년 사업폐지로 인해 계속장학생만 지원 중에 있다.

국가연구장학금 일반사회계는 일반대학교 일반대학원 및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사회분야 전일제 미취업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업 및 연구 계획서를 통해 선정한다. 지원기간은 1년이며, 학기당 수업료와 기성회비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한국장학재단은 다양한 국가장학사업을 통해 약 240만 명의 학생들에게 약 5조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학자금 대출사업으로는 약 530만 명의 학생들에게 18조원 이상의 학자금을 지원해 왔다. 특히 재단 출범 전 학자금 대출이자율은 최고 7.8%에 달했으나, 현재 2.9% 수준까지 낮추었다.

이외에도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숙사 건립과 멘토링을 통한 선순환구조의 교육기부 사업도 운영 중에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전문성 있는 인력과 조직, 서비스로 사회다방면에서 인정받고 있다. 2014년 한 해 동안 한국장학재단은 “제7회 대한민국 인터넷소통 대상 - 소셜미디어 대상”에서 준정부기관 소통행정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한국의 CS혁신리더’ 수상, ‘2014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 교육장학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제7회 대한민국 인터넷소통 대상 - 소셜미디어 대상”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인터넷소통협회 주관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고객지향적인 소통마케팅 우수사례에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장학재단은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 소통활동 전반에 걸쳐 캐릭터를 이용한 친근한 소통,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화생활 콘텐츠의 활용, 전문 CS담당인력 구축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은 2012년 준정부기관부문 대상, 2013년 소통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어 고객과의 소통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최한 “2014 한국의 경영대상”은 경영혁신 활동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한국장학재단은 혁신 우수 사례에 뽑혀 ‘한국의 CS혁신리더’를 수상하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언론인협회가 주최하는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은 사회공헌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기업이나 기관을 발굴해 시상한다. 한국장학재단은 ‘2014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에서 교육장학공헌 부문 대상을 받았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확대된 국가재원 장학금과, 직원들의 급여를 모은 3,900여만원을 소액채무 신용유이자 대학생들을 위해 기부한 것, 1사 1촌, 1사 1시장, Smart KOSAF Angels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아 2012년부터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장학재단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장학재단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국내 장학사업을 리드하며, 재단과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장학사업, 학자금 대출사업으로 이원화된 사업의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사업별 포지셔닝이 명확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모금, 멘토링, 대학협력 등 민간의 참여 영역을 확대하고,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등 실시간 피드백으로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자 특징이다.

3_6 삼성꿈장학재단

삼성꿈장학재단은 교육소외계층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장학사업과 복지친화적인 교육여건 조성 사업으로 개인, 지역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2006년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으로 출범하였다.

‘더불어 성장하는 배움 공동체 구현’을 비전으로 개인성장기회 지원, 배움공동체 지원, 글로벌 리더십 향상 지원을 비전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사람기반 ▲멘토링시스템 ▲네트워킹과 파트너십 ▲커뮤니티적 접근 ▲순환적 구조 ▲다원적 가치이다.

인재상은 ‘교육소외의 극복과 도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자립적인 생애능력을 갖추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발휘하

는 사람'이고, 공동체상은 '교육소외의 극복과 도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공동체 고유의 특성에 맞는 성취를 이루며, 동시에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발휘하는 공동체'이다.

삼성꿈장학재단의 사무국은 사무총장 아래 기획팀, 장학사업 1팀, 장학사업 2팀, 기금관리팀 등 4팀 17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성꿈장학재단의 사업영역은 크게 멘토링꿈장학사업, 배움터교육지원사업, 리더육성장학사업, 글로벌장학사업, 특별사업 5분야이다. 이상의 사업을 통해 삼성꿈장학재단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약 1,800억원으로 50,000여명의 장학생과 5,600여개 배움터, 40,000여명의 글로벌 장학생을 지원하였다.

멘토링꿈장학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들이 멘토의 교육적, 정서적 지지를 통해 자신의 꿈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꿈장학(초·중·고 꿈장학/하이원 꿈장학/SOS장학), 분야별 우수장학(과학, 외국어, 예능, 체육우수), 교육실천가 장학이 있다.

구체적으로 멘토링꿈장학사업 중 하이원 꿈장학은 하이원 리조트의 기부금으로 강원도 폐광지역(정선·영원·태백·삼척)의 중·고등학생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SOS장학은 갑작스런 가정 경제의 위기, 학교 부적응 등 긴박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실천가장학은 꿈장학생의 멘토와 배움터 교사에게 자기 개발 및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장학사업이다.

배움터교육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형 교육복지사업, 전문형 교육복지사업 두 분야이다.

지역형 교육복지사업 중 교육복지중점사업은 상대적으로 공공과 민간으로부터 교육지원이 부족한 사각지대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역교육네트워크 사업은 지역의 민간기관, 학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연계하여 지역기반의 특성화된 교육복지사업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통합적 교육안정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형 교육복지사업은 과학, 청소년 동아리, 축구, 독서 별로 우수하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보급하는 사업이다.

리더육성장학사업은 저소득층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학희망장학, 대학봉사장학, 희망키움장학 세 분야 이다.

구체적으로 대학희망장학은 삼성꿈장학재단 출신 대학생으로서 노력과 성과가 우수하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하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과 교육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장학사업이다. 대학봉사장학은 재단 대학 장학생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받은 도움을 환원할 수 있도록 배움터 교육지원, 꿈장학생 학습멘토 등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근로장학사업이다. 희망키움장학 역시 재단 대학 장학생으로서 자기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도전적인 과제에 참여하고자 할 때 일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발한다.

글로벌장학사업은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인재와 한인 후손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현지의 빈곤 아동 및 청소년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국내장학사업(글로벌 희망장학), 글로벌 국외장학사업(글로벌 꿈장학/글로벌 교육지원사업), 글로벌봉사장학 세 분야이다.

글로벌국내장학사업인 글로벌 희망장학은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 한국어 교육,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는 사업이다. 글로벌국외장학사업 중 글로벌 꿈장학과 글로벌 교육지원사업은 개발도상국 내에서 교육의 기회를 잃은 저소득층 한인후손과 현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 또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26개국 57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글로벌 꿈장학사업은 6개 국가(중국, 미얀마, 멕시코, 네팔, 타지키스탄, 캄보디아), 606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 교육지원사업은 11개 국가(라오스, 동티모르, 캄보디아, 중국, 미얀마, 네팔,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15개 사업을 통해 7,243명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사업은 여러 기관들과 연계를 통해 장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전반에 교육복지적 인식을 확산 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방과후학교대상, 에버랜드 협력사업, 무료 치열교정사업, 장학생 한마당 네 분야이다.

방과후학교대상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최하는 ‘방과후 학교대상, 삼성꿈장학재단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다. 다음 에버랜드 협력사업은 삼성에버랜드의 후원으로 재단 장학생들의 문화·예술 공연 발표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장학생 한마당을 개최하는 사업이다. 무료치열교정사업은 재단 장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대한치과교정학회’ 연계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표 50_ 삼성꿈장학재단 사업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장학사업		28,550	30,590	30,830	31,650	32,440
멘토링꿈장학사업	인원(명)	8,549	8,695	9,104	8,553	8,504
	금액	20,300	21,390	21,510	18,900	19,250
리더육성장학사업	인원(명)	-	61	93	1,163	1,085
	금액	-	330	470	3,540	3,840
배움터교육지원사업	사업(배움터)	267(856)	260(803)	273(881)	285(1,119)	281(1,013)
	금액	7,390	7,930	7,890	8,080	8,150
글로벌장학사업	인원(명)	774	924	962	1,011	663
	금액	860	940	960	1,130	1,200

출범한 지 10년, 삼성꿈장학재단의 교육적 지원은 여러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삼성꿈장학재단은 장학금을 통해 꿈을 이룬 학생들의 사례를 꾸준히 축적하고 전파하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동시에 재단의 이미지 메이킹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 삼성꿈장학재단의 삼성예능꿈지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매일 장학금과 국제 콩쿠르 참가 경비를 지원받은 전준혁 학생은 동양인 최초 전액 장학금의 혜택을 받으며 한국인 남성 최초로 영국 로열발레학교 상급클래스에 합격했다.

또한 2013년부터 삼성꿈장학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첼리스트 여윤수 학생도 2014년 ‘제10회 안토니오 야니그로 국제 첼로 콩쿠르’ 중등부 1위와 함께 크로아티아 현악교사협회상 및 자그레브 솔리스트 상까지 총 3관왕을 차지했다.

삼성꿈장학재단은 민간분야 장학사업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 재단으로서 공공재단보다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되어 사업 및 운영에 있어 새로운 시도, 사업의 변화와 유연함이 돋보인다.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넘어 교육복지 장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선도하는 점

이 그렇다. 또한 민간장학재단으로서 전체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예산 증가는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 사업의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사업 수혜대상 역시 서울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을 넘어 국외로까지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국인에서 외국인까지 수혜대상과 사업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4. 외부 환경 분석 종합

장학사업과 관련된 외부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별 장학사업을 살펴보았다. 또한 장학사업의 변화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외 장학재단·교육재단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장학지원 성격의 변화

장학사업은 기존의 학비지원에 국한되었던 것에서 생활비 지원, 재능육성, 직업 멘토링, 진로 코칭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교육소외대상 장학에서 교육복지 장학으로

또한 교육소외대상 장학에서 교육복지 장학으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 차상위층 등 가계소득에 따라 지급되던 장학기준이 성적 우수, 재능 우수(예술, 체육 등), 특정 계층(다문화 가정, 미혼모, 유학생) 등 다양한 대상의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장학수혜 대상자의 다양화 및 세분화 추세

장학수혜 대상자 역시 다양화 및 세분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 장학수혜의 대상자들은 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학교밖 청소년을 비롯하여,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결혼이민 여성, 경력 단절 여성 등 다양한 집단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장학 서비스

장학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학비지급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 개최 등을 통한 수요자의 참여 유도, 장학생 간의 네트워킹을 위한 행사 마련 등 장학수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장학생 관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장학금이 학교 선생님의 추천을 통해 지급되어 온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었다면, 개인이 가진 재능이나 학력수준, 경제수준 등에 따라 원하는 방식으로 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등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학 기탁금 모집방법의 다각화

장학 기탁금 모집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 현금 기탁을 통한 시스템에서 벗어나, 유가증권, 재능, 시간, 상품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부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Ⅳ . 서울장학재단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

IV. 서울장학재단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

1.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조사개요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수혜자를 대상으로 장학금 만족도, 서울장학재단에 대한 인식 및 서울장학재단의 향후 방향성 도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 참여 형태와 만족도, 향후 사업방향 수립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 수혜자 니즈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온라인으로, 지난해 서울장학재단 장학사업 수혜자 전원인 3,8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4년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총 10일 동안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 일반현황

전체 응답자는 661명(응답률 17.1%)으로 남자가 340명(51.4%), 여자는 321명(48.6%)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등학생이 85명(12.9%), 대학생이 576명(87.1%)으로 대학생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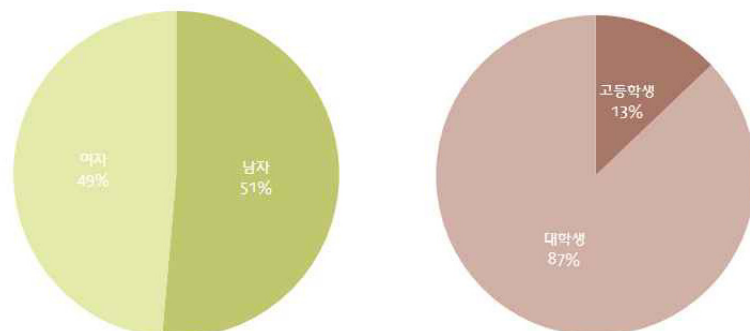


그림 27_ 응답자 일반현황

응답자 장학금 수혜현황

응답자의 장학금 수혜 현황을 살펴보았다. 수혜 연도는 2013-4년도로, 수혜기간은 전체 평균 1.4년이었고, 최장 7년, 최단 1년으로 분석되었다. 장학금은 하이서울 장학금(대학교)을 받은 사람이 503명(76.1%)으로 가장 많았고, 하이서울 장학금(고등학교) 67명(10.1%), 하이서울 장학금(공익인재분야)이 36명(5.4%) 순이다. 그 외 기타(소나무 장학금, 유명아 장학금 등) 16명, 하이서울 장학금(청소년 재능분야) 15명, H-Jump 스쿨 장학생 13명, 앱손글로벌 장학생 9명, 청춘스타트장학금이 2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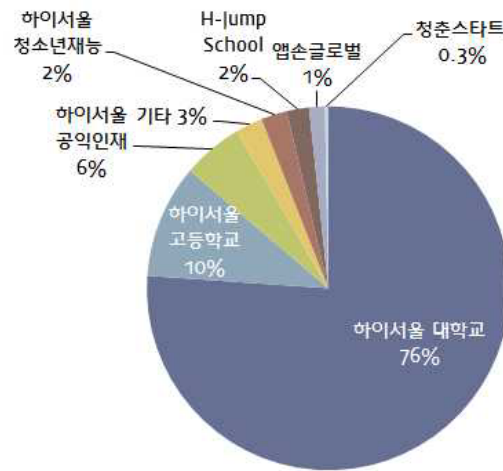


그림 28_ 응답자 수혜 장학금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이서울 대학교 장학금을 비롯해 하이서울 고등학교, 공익인재, 청소년 재능 장학금은 서울장학재단의 자체 장학사업이며, H-Jump School, 앱손글로벌, 청춘스타트, 기타 장학금은 모두 기탁 장학사업이다. 이를 살펴보면, 자체 장학금 수혜자 93.9%, 기탁 장학금 수혜자 6.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필요에 따라 자체 장학금 수혜자, 기탁 장학금 수혜자로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다.

서울장학금 장학사업 인지경로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교 게시판 공지나 공고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355명

(53.7%)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 지인 추천 101명(15.3%),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블로그, 페이스북 등 89명(13.5%), 소속 학교 선생님 74명(11.2%)순으로 나타났다. 신문, 브로슈어 등 홍보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15명(2.3%)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개별 인터넷 서핑, ‘장학재단’ 키워드 검색 등이 있었다.

표 51_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인지 경로

n=661, (단위: 명, %)		
내용	빈도	비율
선생님으로부터	74	11.2
학교 게시판 공지나 공고문	355	53.7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	89	13.5
아는 사람의 추천	101	15.3
신문, 브로슈어 등 홍보자료	15	2.3
기타	27	4.1
계	661	100

보다 자세히 수혜 장학사업별로 분석해 보면, 하이서울 고등학교, 청소년재능 장학금의 경우 각각 77.6%, 73.3%가 선생님으로부터 장학금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이서울 대학교와 공익인재 장학사업의 경우 각각 58.8%, 61.1%가 학교 공지나 공고문을 통해 장학금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혜 대상자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아우르는 기탁장학금의 경우 전체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렇듯 장학 대상자 별로 장학금 정보 입수 경로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대상자의 현재 상황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담임선생님과 의 관계가 긴밀한 고등학생들은 주로 선생님을 통해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대학생들은 광범위하게 정보공시 등을 통해 정보를 접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서울장학재단은 장학 수혜자를 모집하거나, 수혜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이 필요한 경우 장학 수혜 대상자 타깃별로 차별화 된 홍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표 52_ 장학금별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인지 경로

n=661, (단위: 명, %)

내용	하이서울 고등학교		하이서울 청소년재능		하이서울 대학교		하이서울 공익인재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선생님으로부터	52	77.6	11	73.3	3	0.6	0	0	8	20
학교 게시판 공지나 공고문	12	17.9	2	13.3	296	58.8	22	61.1	23	57.5
서울장학재단 홍보	1	1.5	2	13.3	77	15.3	5	13.9	4	10
아는 사람의 추천	1	1.5	0	0	90	17.9	8	22.2	2	5
신문, 브로슈어 등 홍보자료	0	0	0	0	12	2.4	1	2.8	2	5
기타	1	1.5	0	0	25	5	0	0	1	2.5
계	67	100	15	100	503	100	36	100	4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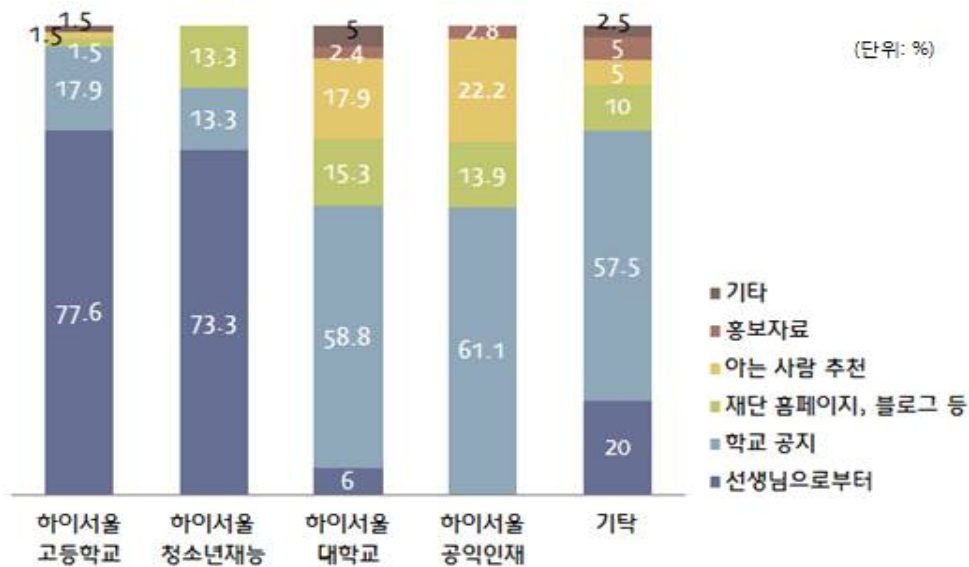


그림 29_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인지 경로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만족도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에 대해 수혜자 대부분이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에 만족한다’는 항목에 대해 전체 661명의 학생 중 74.4%에 해당하는 492명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은 164명(24.8%)이었다. 즉,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에 대해 만족한 학생은 656명(99.2%)으로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었다.

‘장학금은 학교를 다니기 위해 매우 필요했다’는 항목에 대해

서도 긍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은 총 646명(97.7%)으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장학금이 없었다면 학교를 휴학하거나 자퇴했을 것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218명(33%)만이 아니라고 하였다.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이 매우 고마웠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중 3명을 제외한 658명(99.6%)이었지만, '장학금을 받은 것이 자랑스럽다'고 응답한 사람은 620명인 93.8%였다. 또한 '장학금을 받으면서 서울시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593명(89.7%)이 긍정적으로 응답해, 장학금 수혜가 개인이나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재단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장학금을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추천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643명(97.3%)이었다. '서울장학재단의 장학 졸업생으로서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한 사람은 628명(79.9%)이었으나 '나도 나중에 필요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다'라고 한 사람은 652명(98.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53_ 서울장학재단 장학 수혜자 인식

n=661, (단위: 명, %)

문항	매우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장학금은 학교를 다니기 위해 매우 필요했다	5 0.8	10 1.5	187 28.3	459 69.4
장학금을 받은 것에 만족한다.	1 0.2	4 0.6	164 24.8	492 74.4
장학금이 없었더라면, 나는 학교를 관렸을 것이다.	101 15.3	342 51.7	144 21.8	74 11.2
장학금이 매우 고마웠다.	1 0.2	2 0.3	126 19.1	532 80.5
장학금을 받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3 0.5	38 5.7	215 32.5	405 61.3
장학금을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추천할 것이다.	2 0.3	16 2.4	210 31.8	433 65.5
서울장학재단의 장학 졸업생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	15 2.3	118 17.9	304 46	224 33.9
서울장학재단 수혜자로서 서울시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7 1.1	61 9.2	270 40.8	323 48.9
나도 나중에 필요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다.	1 0.2	8 1.2	237 35.9	415 62.8

서울장학재단 장학 프로그램 관련

서울장학재단에서 개최하는 프로그램의 참여 정도, 이와 관련한 의견 조사 등을 통해 서울장학재단 사업의 개선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체 장학금 중 하이서울 고등학교 장학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프로그램이 없어, 분석대상을 전체 661명 중 하이서울 고등학교 부문 수혜자 67명을 제외한 594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594명 중 참여한 적이 있다 14%,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8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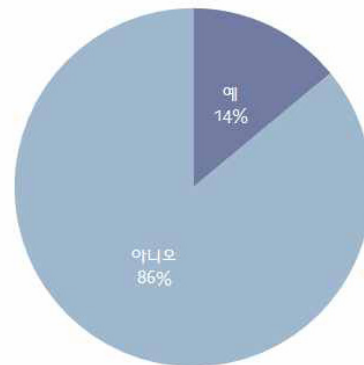


그림 30_ 장학재단 개최 프로그램 참여 여부

이를 장학금별로 프로그램 참여 차이여부 확인을 위해 장학금별로 구분하여 프로그램 참여여부를 확인하였다.

하이서울 공익인재 장학금 수혜자의 94.4%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가장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서울 공익인재 장학 사업의 경우 가장 적극적으로 장학생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 공헌 활동을 바탕으로 선발되는 장학금이며 수혜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기탁 장학금 수혜자 60%가 서울장학재단의 개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하이서울 청소년재능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20%, 하이서울 대학교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전체 인원 대비 가장 적은 4.4% 만이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각 장학금별로 프로그램 참여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4_ 장학금별 장학재단 개최 프로그램 참여 여부

n=594, (단위: 명, %)

내용	하이서울 청소년재능		하이서울 대학교		하이서울 공익인재		기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3	20	22	4.4	34	94.4	24	60
아니오	12	80	481	95.6	2	5.6	16	40
계	15	100	503	100	36	100	4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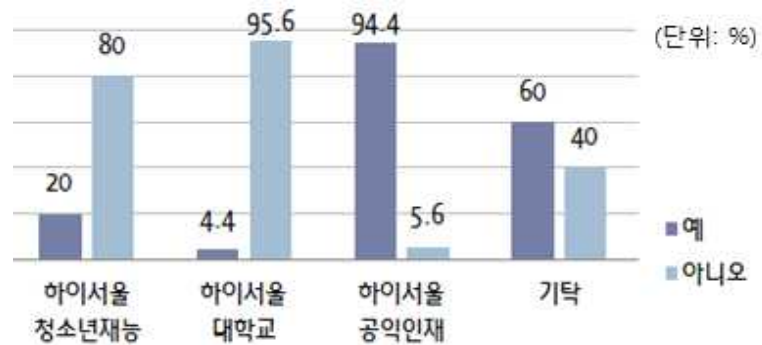


그림 31_ 장학금별 장학재단 개최 프로그램 참여 여부

서울장학재단이 개최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 83명의 수혜자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참여 프로그램을 다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83명의 응답자가 총 212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한 번이라도 참여한 적이 있는 장학생의 경우 평균 2회 이상의 참여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증서수여식에 참여한 장학생이 25.5%로 가장 많았고, 장학생 프로젝트 참여 19.3%, 봉사활동 참여 15.1%, 장학수기 작성 13.2%, 해외봉사/탐방과 강연/특강이 각각 8.0%, 멘토링 프로그램 17.5%, 기부자와의 만남 1.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참여 프로그램에는 장학생들의 친목모임, DDP 탐방, 야구장관람, 홈커밍데이 등이 있었다.

표 55_ 서울장학재단 개최 참여 프로그램

n=83, (단위: 명, %)

내용	빈도	비율
증서수여식	54	25.5
멘토링 프로그램	16	7.5
장학생 프로젝트	41	19.3
장학수기 작성	28	13.2
강연/특강	17	8.0
봉사활동	32	15.1
해외봉사/탐방	17	8.0
기부자와의 만남	3	1.4
기타	4	2
계	2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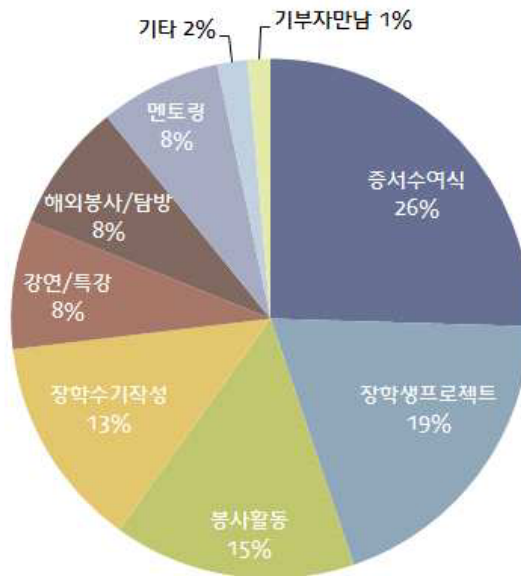


그림 32_ 서울장학재단 개최 참여 프로그램

참여 프로그램을 장학사업별로 살펴본 결과, 하이서울 대학교 장학금 수혜자는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가 33.3%로 가장 많았고, 장학생 프로젝트, 강연/특강 프로그램에 각각 20.8%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봉사활동, 증서수여식, 장학수기 작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서울 공익인재 장학금 수혜자는 총 프로그램 참여 횟수가 126회로 수혜자 수에 비해 참여 횟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장학생 프로젝트에 32회(25.4%), 증서수여식이 31회(24.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장학수기 작성 20회(15.6%), 봉사활동

동 17회(13.6%), 해외봉사/탐방 16회(12.8%) 참여하였으며, 멘토링 프로그램, 강연/특강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는 낮았고, 기부자와의 만남에 참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서울 청소년재능 장학금 수혜자는 각각 3회씩 증서수여식과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탁 장학금 수혜자는 모든 프로그램에 1회 이상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서수여식 참여가 18회(32.1%)로 가장 많았고, 봉사활동 12회(21.4%), 장학수기 작성과 강연/특강 프로그램에 각 6회(12.5%)로 나타났다.

표 56_ 장학금별 서울장학재단 개최 참여 프로그램

n=83, (단위: 명, %)

내용	하이서울 청소년재능		하이서울 대학교		하이서울 공익인재		기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증서수여식	3	50	2	8.3	31	24.6	18	32.1
멘토링 프로그램	3	50	8	33.3	2	1.6	3	5.4
장학생 프로젝트	-	-	5	20.8	32	25.4	4	7.1
장학수기 작성	-	-	1	4.2	20	15.6	7	12.5
강연/특강 프로그램	-	-	5	20.8	5	4	7	12.5
봉사활동	-	-	3	12.6	17	13.6	12	21.4
해외봉사/탐방	-	-	-	-	16	12.8	1	1.8
기부자와의 만남	-	-	-	-	-	-	3	5.4
기타	-	-	-	-	3	2.4	1	1.8
계	6	100	24	100	126	100	5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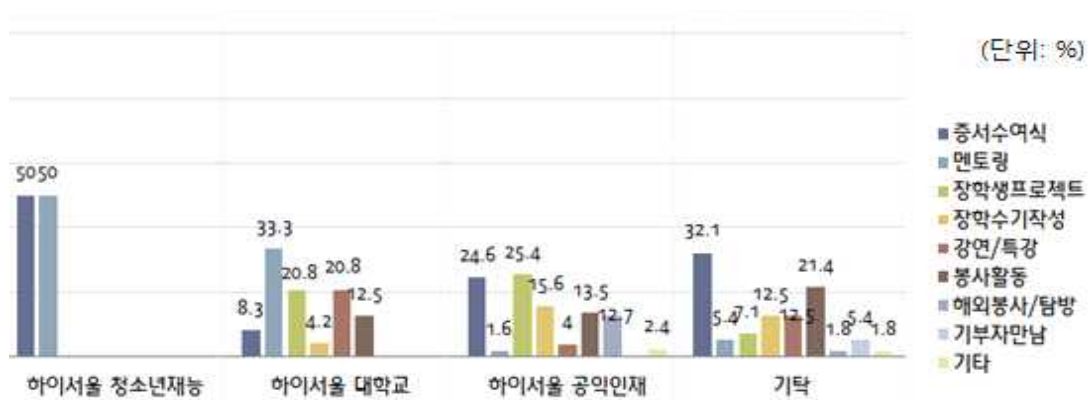


그림 33_ 장학금별 서울장학재단 개최 참여 프로그램

서울장학재단 프로그램 선호도

서울장학재단의 개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혜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참여경험이 있는 프로그램 중 좋았던 순서대로 3순위까지 조사하였다.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은 30.1%가 선택한 장학생 프로젝트였고, 증서수여식 14.5%, 멘토링 프로그램과 봉사활동이 각각 13.3%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 선택에서는 증서수여식 26.8%, 장학생 프로젝트 25.0%, 장학수기작성과 해외봉사/탐방이 각각 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까지 선택한 응답자는 증서수여식 45.9%로 가장 많았고, 다음 봉사활동이 18.9%, 장학수기 작성이 13.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서울장학재단이 개최한 프로그램에 참여 다수가 장학생 프로젝트, 증서수여식, 봉사활동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7_ 서울장학재단 참여 프로그램 선호도

n=83,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증서수여식	12	14.5	15	26.8	17	45.9
멘토링 프로그램	11	13.3	2	3.6	1	2.7
장학생 프로젝트	25	30.1	14	25.0	1	2.7
장학수기 작성	3	3.6	7	12.5	5	13.5
강연/특강 프로그램	10	12.0	3	5.4	3	8.1
봉사활동	11	13.3	5	8.9	7	18.9
해외봉사/탐방	10	12.0	7	12.5	0	0
기부자와의 만남	1	1.2	0	0	2	5.4
기타	0	0	3	5.4	1	2.7
계	83	100	56	100	3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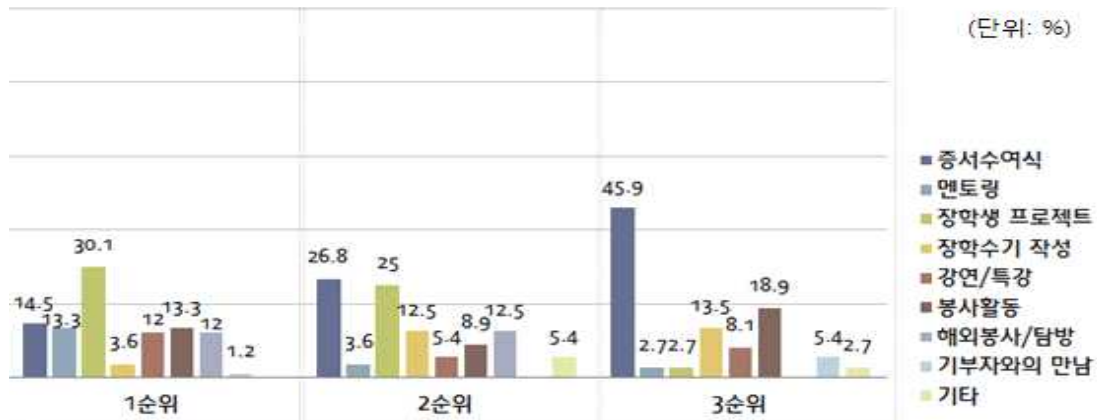


그림 34_ 서울장학재단 참여 프로그램 선호도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역시 장학금별로 살펴보았다.

하이서울 청소년재능 장학금 수혜자는 모두 1순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선택하였고, 2순위로는 증서수여식을 선택하였다.

하이서울 대학교 장학금 수혜자는 1순위로 멘토링 프로그램 31.8%가 선택하여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학생 프로젝트 22.7%, 강연/특강 프로그램 18.3%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2순위는 두 사람만 각각 멘토링, 강연/특강 프로그램을 선택하였다.

하이서울 공익인재 장학금 수혜자는 1순위로 장학생 프로젝트 50%, 해외봉사/탐방을 29.4%, 증서수여식 14.7%, 봉사활동 5.9%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 2순위는 1순위와 마찬가지로 장학생 프로젝트, 해외봉사/탐방, 증서수여식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고, 1순위에는 없었던 장학수기 작성을 12.5%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탁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선호 1순위 프로그램으로 해외봉사/탐방, 기타를 제외하고 모두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연/특강 프로그램과 봉사활동 각각 25%, 증서수여식 20.8%, 장학생 프로젝트 12.5%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 2순위 프로그램은 42%가 증서수여식을 선택하였다. 이어 4명이 봉사활동, 장학수기 작성을 3명이 선택하였고, 멘토링 프로그램, 장학생 프로젝트, 강연/특강, 해외봉사/탐방을 각각 1명씩 선택하였다.

현재 서울장학재단이 장학금 별로 운영하고 있는 수혜자 대상

프로그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전반적인 선호도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장학사업별 특색에 맞게 본 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향후 서울장학재단 장학생 전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 발전 방향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8_ 장학금별 참여프로그램 선호도

n=83, (단위: 명, %)

내용	하이서울 청소년재능		하이서울 대학교		하이서울공익인재		기탁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증서수여식	-	3(100)	2(9.1)	-	5(14.7)	4(12.5)	5(20.8)	8(42)
멘토링 프로그램	3(100)	-	7(31.8)	1(50)	-	-	1(4.2)	1(5.3)
장학생 프로젝트	-	-	5(22.7)	-	17(50)	13(40.6)	3(12.5)	1(5.3)
장학수기 작성	-	-	1(4.5)	-	-	4(12.5)	2(8.3)	3(15.8)
강연/특강 프로그램	-	-	4(18.3)	1(50)	-	1(3.1)	6(25)	1(5.3)
봉사활동	-	-	3(13.6)	-	2(5.9)	1(3.1)	6(25)	4(21)
해외봉사/탐방	-	-	-	-	10(29.4)	6(18.8)	-	1(5.3)
기부자와의 만남	-	-	-	-	-	-	1(4.2)	-
기타	-	-	-	-	-	3(9.4)	-	-
계	3(100)	3(100)	22(100)	2(100)	34(100)	32(100)	24(100)	1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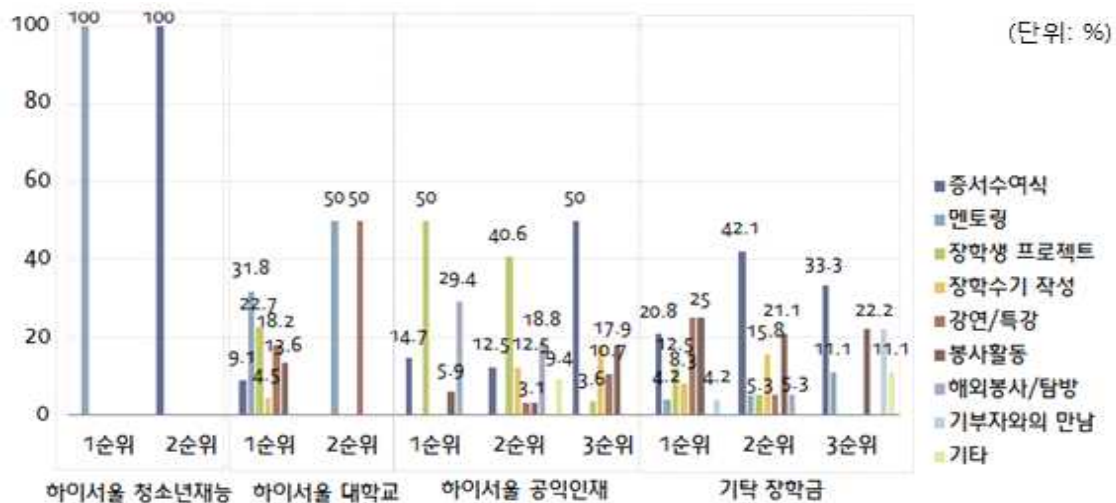


그림 35_ 장학금별 참여 프로그램 선호도

다음으로 서울장학재단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 83명의 장학생들에게 재단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웠는지에 대해 물었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59%로 가장 높았고, ‘그렇다’라는 응답도 41%로 나타나서 전원으로부터 긍정적인 응답을 얻었다.

이는 서울장학재단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모든 학생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장학재단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연결됐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추후 장학생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더 많은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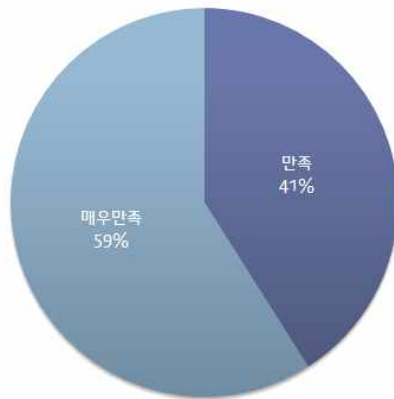


그림 36_ 참여 프로그램 만족도

표 59_ 참여 프로그램 만족도

n=83, (단위: 명, %)

매우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0	0	34	49
0	0	41	59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장학금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하이서울 청소년재능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응답률이 6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하이서울 대학교, 하이서울 공익인재, 기탁장학금 수혜자 순으로 나타났다.

비록 장학금별로 개최되는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모든 장학생들이 재단의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으며, ‘그렇다’의 응답보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률이 더 높다는 점, 모든 학생들이 불만족 없이 만족했다는 점은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장학재단이 학생들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0_ 장학금별 서울장학재단 개최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n=83, (단위: 명, %)

내용	하이서울 청소년재능		하이서울 대학교		하이서울 공익인재		기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그렇다	1	33.3	9	40.9	14	41.2	10	41.7
매우그렇다	2	66.7	13	59.1	20	58.8	14	58.3
계	3	100	22	100	34	100	2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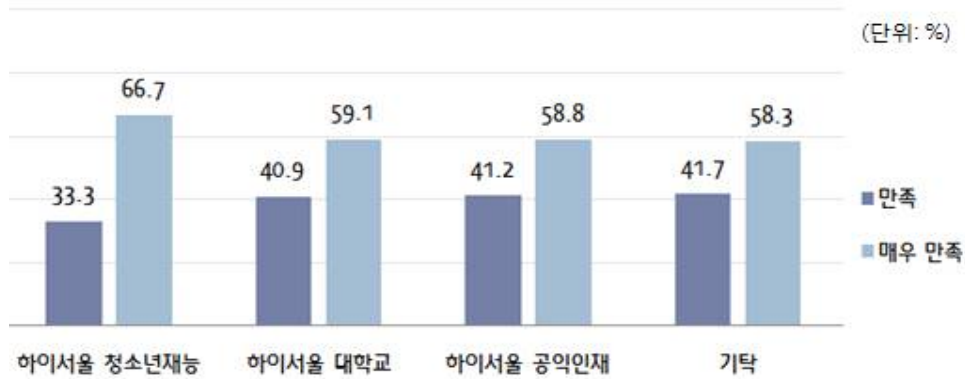


그림 37_ 장학금별 서울장학재단 개최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개최되는 프로그램이 없는 하이서울 고등학교 장학금 수혜자 67명을 제외한 594명 중, 재단이 개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4% 뿐이었다. 재단이 향후 프로그램을 개최할 때 새롭게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하는 사람에 속하는 86%의 의견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서울장학재단이 개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수혜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프로그램을 개최했는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62.2%, 시간이 없어서 27.4%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모든 항목에서는 5% 이하의 비중을 보였다. ‘관심이 없어서’, ‘혼자가기 부끄러워서’ 각각 3.3%, ‘장학생인걸 알리고 싶지 않아서’ 2.2%,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1.0%, 마지막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0.6%로 나타났다.

기타 원하는 프로그램에는 전공이나 관심분야와 연관된 전문가 멘토링,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재능기부, 해외탐방, 유학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언급되었다.

기타의견으로는 재단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 개별 연락, 장학금 신청과 선정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 등 재단과의 소통, 홍보방식 변화에 대한 요구가 언급되었다.

“수신확인을 잘 안하게 되는 이메일보다는 핸드폰 문자나 어플 등을 이용해 쉽게 접근, 이용 가능한 경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장학재단의 홍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효율적인 홍보방안의 설정과 학생들과의 교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 서울장학재단에는 홍보 전담 담당자가 부재하며, 이후 홍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홍보·마케팅팀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1_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n=511, (단위: 명, %)		
내용	빈도	비율
시간이 없어서	140	27.4
관심이 없어서	17	3.3
장학생인걸 알고 싶지 않아서	11	2.2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3	0.6
혼자가기 부끄러워서	17	3.3
프로그램을 개최했는지 몰라서	318	62.2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5	1.0
계	511	100

장학금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보면, 하이서울 청소년재능 장학금 수혜자는 ‘시간이 없어서’가 75%로 가장 많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몰라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각각 8.3%로 나타났다.

하이서울 대학교의 경우 ‘몰라서’가 64%로 가장 많았고, ‘시간이 없어서’ 25.8% 응답하였다. 다른 항목들의 경우 5%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장학생인걸 알고 싶지 않아서’라는 항목에 11명(대학생 중 2.3%)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는 것이다.

하이서울 공익인재의 경우 ‘시간이 없어서’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각각 50% 응답하였다.

마지막 기탁 장학금의 경우 ‘몰라서’가 50%로 가장 많았고, ‘시간이 없어서’ 37.5%, ‘관심이 없어서’ 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장학재단은 장학금 종류에 따라 프로그램을 다르게 개최하고 있다. 이에 각각의 장학사업별 프로그램 참여는 본인이 수혜하고 있는 장학금을 내·외부로 알리게 되는 통로가 된다. 가정경제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하이서울 대학교 장학

금의 경우 하이서울 장학금 수혜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않다는 사실이 같이 알려지게 되고 있어 프로그램에 대한 기피가 있지는 않은지 판단이 필요하다. 예민한 10대 후반 20대 초반 학생들에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재단이 향후 수혜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최한다면, 이러한 장학생을 고려하여 여러 장학 수혜자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통합된 프로그램을 개최하거나, 개인적 사정이 내·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방안 마련을 통해 수혜자에게 수치심 등 부정적인 의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려를 통해 장학 프로그램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을 개최하는지 몰라서’라는 이유 다음으로 가장 많았던 ‘시간이 없어서’라는 이유도 재단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입시지옥이라는 말처럼 성적향상과 대입을 위해 정규수업은 물론 사교육,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대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학과 행사 등 학기와 방학을 모두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이 현재 학생들의 사정이다. 때문에 향후 재단 프로그램의 참여율을 높이하고자 한다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다양성, 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한 같은 프로그램의 다중 개최를 고려하거나, 장학금 수혜자에게 장학 프로그램 참여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62_ 장학금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내용	n=511, (단위: 명, %)							
	하이서울 청소년재능		하이서울 대학교		하이서울 공익인재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시간이 없어서	9	75	124	25.8	1	50	6	37.5
관심이 없어서	-	-	15	3.1	-	-	2	12.5
장학생인걸 알리고 싶지 않아서	-	-	11	2.3	-	-	-	-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1	8.3	2	0.4	-	-	-	-
혼자가기 부끄러워서	-	-	17	3.5	-	-	-	-
프로그램을 개최했는지 몰라서	1	8.3	308	64	-	-	8	50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1	8.3	4	0.8	1	50	-	-
계	12	100	481	100	2	100	1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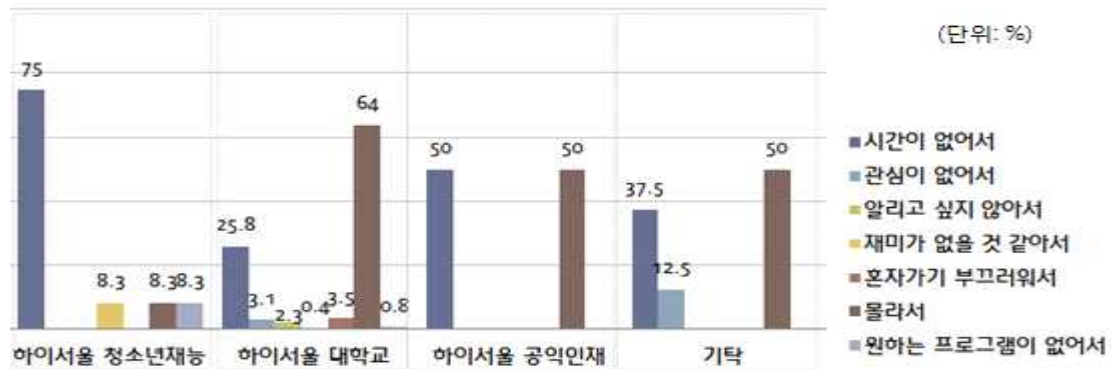


그림 38_ 장학금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관련 개선사항

장학생들에게 서울장학재단에 바라는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습, 체험, 봉사 등과 같은 프로그램, 진로, 적성, 직업 등과 관련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다 다양한 장학금,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 나에게 맞는 장학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제시 등의 정보 접근성과 다양성을 원하고 있었다.

한편, 현재 하이서울 장학금과 같이 학교나 선생님을 통해 지원되는 형태보다는 부모님이나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형태를 바라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현재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생들은 장학금과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신설 및 증대, 장학금의 수혜자 직접 전달, 장학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낮은 정보 접근성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학금의 직접지급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타 기관의 장학금과는 달리 서울장학재단에서 나오는 장학금은 학교나 관공서에 한번 거쳐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인 저 또한 남들에게 가정환경이 어려워져 받는 장학금이 당당하지 못하는데 저보다 어린 고등학생들의 기분은 어떨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사정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직접 지급을 원하거나, 학비보다 급한 비용 문제 해결, 장학 절차에 대한 궁금증 등을 이유로 장학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고 있었다.

직접지급에 대해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기타 의견은 ‘현재에 감사 혹은 만족 한다’, ‘선발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알고 싶다’, ‘직접 지급의 장·단점이 있으니 더 고민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표 63_ 서울장학재단에 바라는 점

n=661, (단위: 명, %)

문항	매우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에게 맞는 장학금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9 1.4	18 2.7	328 49.6	306 46.3
보다 다양한 장학금이 있었으면 좋겠다.	5 0.8	23 3.5	297 44.9	336 50.8
학습, 체험, 봉사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	11 1.7	78 11.8	356 53.9	216 32.7
진로, 적성, 직업 등과 관련한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10 1.5	58 8.8	315 47.7	278 42.1
장학금이 학교나 선생님을 통하지 않고, 부모님이나 학생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었으면 좋겠다.	13 2	81 12.3	221 33.4	346 52.3

서울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장학금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먼저, 장학생들이 직접 받은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학비 지원만으로도 충분했다는 의견이 54.4%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그러나 생활비, 학습보조비와 같이 학비지원 이외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에서는 긍정적 의견이 89.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혜기간이 지금보다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도 긍정적 응답이 89.6%로 매우 높아, 장학금의 지속 지원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학금의 단기지원보다는 일정 기준에서 미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학금을 지속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학업에 열중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표 64_ 장학금 관련 사항

n=661, (단위: 명,%)

문항	매우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비 지원만으로도 충분했다.	51 7.7	251 38	286 43.3	73 11
학비지원 이외의 경제적인 지원(생활비, 학습보조비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	8 1.2	63 9.5	294 44.5	296 44.8
수혜기간이 보다 길었으면 좋겠다.	6 0.9	63 9.5	290 43.9	302 45.7

그 외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과 관련한 기타의견으로는 학비지원 이외에 서울 생활 물가를 반영한 생활비, 기숙사비, 급식비, 학교행사 참여비(수학여행, OT, MT 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확대, 하나의 장학금으로 학비를 전부 해결 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생활비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학금 이중수혜, 학교별 등록금액에 따른 장학금액 확대와 수혜기간의 연장,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한 간단한 신청절차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장학금 종류와 장학대상의 확대에 관한 의견도 많았다.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장학금 외에, 실질적 부채와 가정환경을 기준으로 하는 장학금의 신설과 취업준비생, 저소득층 외국인학생을 학생으로 하는 장학금, 학자금 대출 상환을 보조하는 장학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의 경제적 상황과, 학생을 신분을 벗어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사회상을 반영한 장학금의 신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 장학금의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장학신청 기간과 장학금 지원 방법, 지원 시기, 지원 금액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시기에 맞춰 장학금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하이서울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금액 전액의 반환 대신 차액 반환을 바란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또한 한 번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이후 계속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가 간단하거나, 자동 갱신되는 등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의견과 학교나 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원을 받음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자 하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울장학재단에게 바라는 것 중 하나는 장학생들끼리의 교류, 장학생과 서울장학재단의 교류 그리고 홍보였다.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함으로써 간접경험의 확대와 사회를 보는 눈을 키울 수 있음을 근거로 장학생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의견과,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 소식, 프로그램 소식, 장학 신청 결과, 지급과 관련한 직접적인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의 창을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은 서울장학재단에 장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관하여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장학증서 수여식(긍정 317명, 47.9%), 장학생 MT(긍정 315명, 47.6%)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긍정적이었다.

그 중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594명(8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장학생을 위한 문화활동(영화, 공연 등 관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특히 문화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선호한다는 긍정적 의견이 223명(33.7%)으로 가장 높았다. 장학생 봉사활동과 강연(명사초청, 취업특강, 청소년을 위한 교양강의 등)에 대한 선호도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기부자와의 만남, 정기적인 장학생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선호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65_ 참여 희망 프로그램

n=661, (단위: 명, %)

문항	매우 아니다	아니다	좋다	매우 좋다
강연(명사초청, 취업특강, 청소년을 위한 교양강의 등)	12 1.8	112 16.9	411 62.2	126 19.1
멘토링(진로, 상담 등)	8 1.2	59 8.9	394 59.6	200 30.3
장학증서 수여식	75 11.3	269 40.7	229 34.6	88 13.3
장학생 MT	85 12.9	261 39.5	215 32.5	100 15.1
장학생 봉사활동	24 3.6	89 13.5	405 61.3	143 21.6
정기적인 장학생 커뮤니티 활동	29 4.4	172 26	330 49.9	130 19.7
기부자와의 만남	34 5.1	163 24.7	336 50.8	128 19.4
장학생을 위한 문화활동(영화, 공연 등 관람)	22 3.3	65 9.8	351 53.1	223 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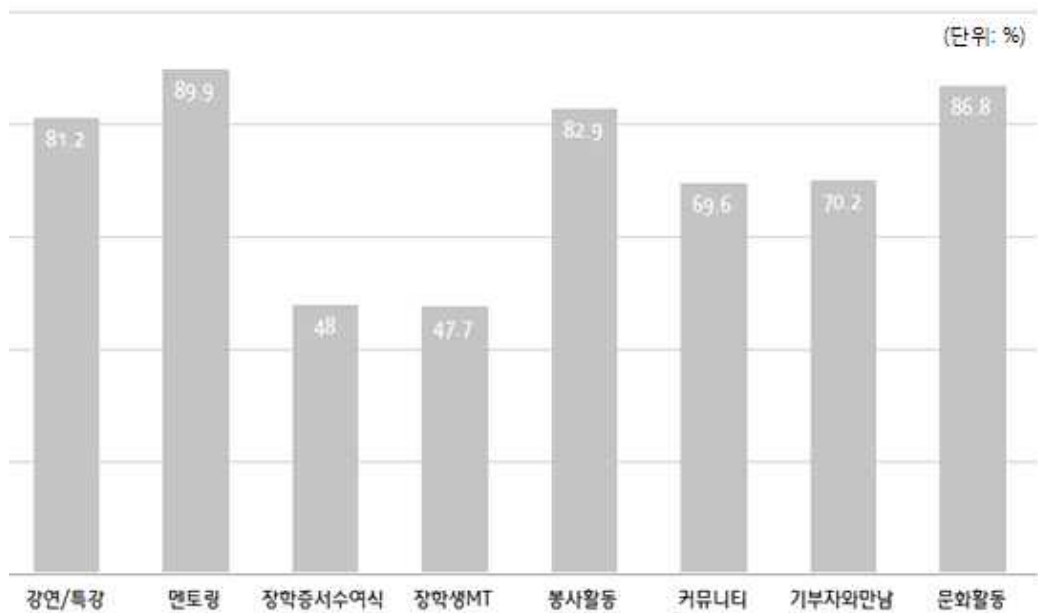


그림 39_ 참여 희망 프로그램 선호도

장학금별 희망 프로그램 선호도는 ‘좋다’와 ‘매우 좋다’의 누적 합산으로 분석하였다. 하이서울 고등학교의 경우 멘토링에 대한 선호도가 86.6%로 가장 높았고, 강연, 봉사활동, 문화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50%이하의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특히 장학증서 수여식(38.8%)과 장학생 MT(44.8%)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하이서울 청소년재능의 경우 하이서울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장학증서수여식에 대한 선호도가 93.3%로 높게 나타났고, 이와 더불어 문화활동에 대한 선호도 역시 93.3%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어 강연, 멘토링, 봉사활동, 장학생 커뮤니티에 대한 선호도가 86.7%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장학생 MT, 기부자와의 만남은 각각 60%, 53.3%로 비교적 낮았다.

하이서울 대학교의 경우 멘토링에 대한 선호도가 90.7%로 가장 높았고, 다음 문화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87.7%로 높았다. 하이서울 대학교는 하이서울 고등학교와 유사하게 장학증서 수여식에 대한 선호도가 42.7%로 낮았고, 장학생 MT에 대한 선호도가 43.3%로 낮게 나타나 개인 사정에 대한 노출이 외부뿐만 아니라 장학생 내부에 알려지는 것도 꺼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이서울 공익인재의 경우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봉사활동에 대한 선호도는 100%로 모든 학생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었고, 멘토링 94.4%, 장학생 커뮤니티와 문화활동 각각 91.7%로 좋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가장 선호도가 낮은 프로그램은 77.8%인 장학생 MT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탁장학금 역시 봉사활동의 경우 100% 모두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꼽혔고, 이어 문화활동이 92.5%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근소한 차이로 75%-85%대의 선호도를 보였다.

종합적으로 모든 분야의 장학 수혜자들은 멘토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학수여식의 경우 하이서울 장학금 수혜자보다는 개인의 역량으로 장학금을 수혜받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봉사활동, 문화활동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 사회에 도움이 되면서도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6_ 장학금별 희망 프로그램 선호도

n=661, (단위: 명, %)

내용	하이서울 고등학교		하이서울 청소년재능		하이서울 대학교		하이서울 공익인재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강연	52	77.6	13	86.7	409	81.3	32	88.9	31	77.5
멘토링(진로, 상담 등)	58	86.6	13	86.7	456	90.7	34	94.4	33	82.5
장학증서 수여식	26	38.8	14	93.3	215	42.7	31	86.1	31	77.5
장학생 MT	30	44.8	9	60	218	43.3	28	77.8	30	75
장학생 봉사활동	49	73.1	13	86.7	410	81.5	36	100	40	100
정기적인 장학생 커뮤니티 활동	36	53.7	13	86.7	344	68.4	33	91.7	34	85
기부자와의 만남	38	56.7	8	53.3	356	70.8	30	83.3	32	80
문화활동(영화, 공연 등 관람)	49	73.1	14	93.3	441	87.7	33	91.7	37	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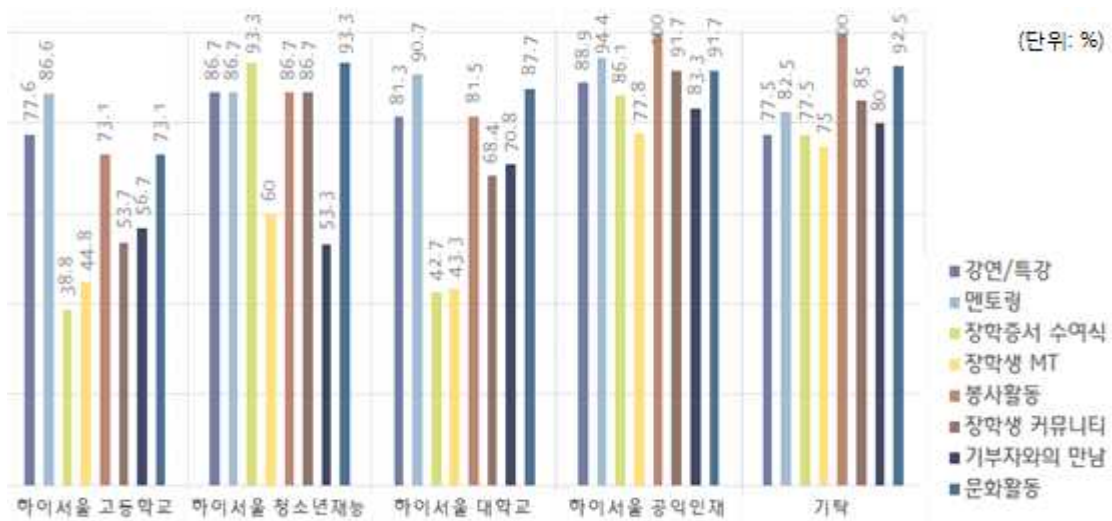


그림 40_ 장학금별 희망 프로그램 선호도

장학생 대상 프로그램에 관한 기타의견으로는 직업체험, 진학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야외활동, 체육활동, 문화활동 등과 같이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원하는 의견도 있었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의견도 많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기 보다는 장학생 수와, 학생들의 일정 상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배려해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반복 개최해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자연스럽게 장학생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반면, 낮은 소득분위,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는 장학생의 경우 본인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여 장학

생들의 교류가 필요한 프로그램, 기부자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참여하고 싶지 않고,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개최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또한 학업과 취업, 생활비를 벌기위한 활동에 치중해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강제적인 프로그램 참여, 프로그램 참여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장학금의 수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따라서 서울장학재단이 향후 장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최할 경우 위의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여 대상을 고려한 자율 참석, 경제적 상황이 드러나는 수혜 장학 종류가 노출되지 않도록 다양한 기준의 장학생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의 개최, 장학생의 관심 분야와 연계된 프로그램의 개최 등 깊은 고민과 수혜자를 만족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2. 장학담당자 및 교사 의견 조사

조사개요

서울시 중·고등학교 장학담당 교사와 장학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장학재단에서 장학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장학담당 교사 3,218명과 교수 및 전문가 78명에게 온라인 설문지를 구축하여 201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8일간 수행하였다. 총 응답자 수는 165명이다. 장학금 수혜자 조사결과, 고등학생들의 응답률이 특히 저조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 교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이서울 장학금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고등학생의 낮은 응답률은 인터넷 접근의 어려움도 있지만, 학교를 거쳐 장학금을 수혜하고 있는 시스템에도 원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결과

응답자 일반현황

분석결과 유효응답자 수는 165명으로 남자가 91명(55%), 여자는 74명(45%)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소속은 고등학교가 152명(92.1%), 대학소속이 6명(3.6%), 연구기관 4명(2.4%), 기타 2명(1.2%), 장학기관이 1명(0.6%)으로 고등학교 교사, 장학담당자의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교사에 집중되어 각 전문가별 샘플사이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계량적 통계에서는 고등학교 교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대신, 본 설문에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관적 설문을 실시하였으므로, 기타 의견, 주관식 설문에서는 여타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고등학교 교사 응답자 152명 중 남자는 83명(54.6%), 여자는 69명(45.4%)이다. 연령대는 30대가 55명(36.2%)으로 가장 많고, 다음 40대가 46명(30.3%), 50대 이상 33명(21.7%)이고, 20대가 18명(11.8%)으로 가장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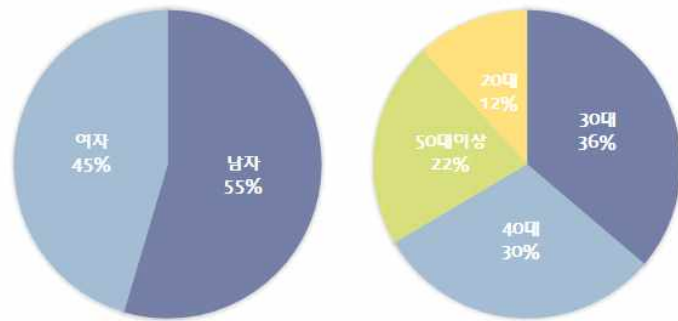


그림 41_ 응답자 일반현황

서울장학재단 장학사업 인지도, 만족도, 중요도

먼저 전체 16개의 서울장학재단 장학 사업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묻고 알고 있는 장학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에 관한 생각을 조사하였다.

응답자가 고등학교 교사인 만큼 하이서울 고등학교에 대한 인지도가 150명, 38.4%로 가장 높았다. 다음 역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하이서울 청소년재능 장학금을 알고 있는 사람이 84명(21.5%)이었다. 다음 꿈나무 장학금과 하이서울 대학교 장학금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각각 33명(8.4%)이었고, 그 외 장학금에 대한 인지도는 5%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적었다.

이는 본인이 관련된 장학금에 대해서만 인지하고 있을 뿐 그 외 장학금에 대한 인지도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서울장학재단의 수월한 장학생 모집을 위해서는 다양한 장학 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하이서울 고등학교, 대학교, 청소년재능, 꿈나무 장학금에 외의 장학 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하나의 사업 당 30명도 채 되지 않아 그 결과에 대해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만족도 및 중요도 부분의 결과에 대해서는 30명 이상이 응답한 4개 장학 사업을 중심으로 보았다.

표 67_ 서울장학재단 장학사업 인지도

n=152, (단위: 명, %)

내용	빈도	비율
1) 하이서울 장학금 고등학교 분야	150	38.4
2) 하이서울 장학금 대학교 분야	33	8.4
3) 하이서울 장학금 청소년재능 분야	84	21.5
4) 하이서울 장학금 공익인재 분야	10	2.6
5) 하이서울 장학금 하나고 분야	4	1.0
6) 하이서울 장학금 대학원 분야	7	1.8
7) 우리아이 희망 장학금	16	4.1
8) 푸른꿈 희망 장학금	5	1.3
9) 희망파티쉐 장학금	13	3.3
10) Citi-KOSBI 여성CEO장학금	6	1.5
11) 청춘 Start	3	0.8
12) 꿈나무 장학금	33	8.4
13) 소나무 장학금	1	0.3
14) H-Jump 스쿨 장학금	15	3.8
15) 유명아 학업 장학금	0	0
16) Epson 글로벌 리더	11	2.8
계	39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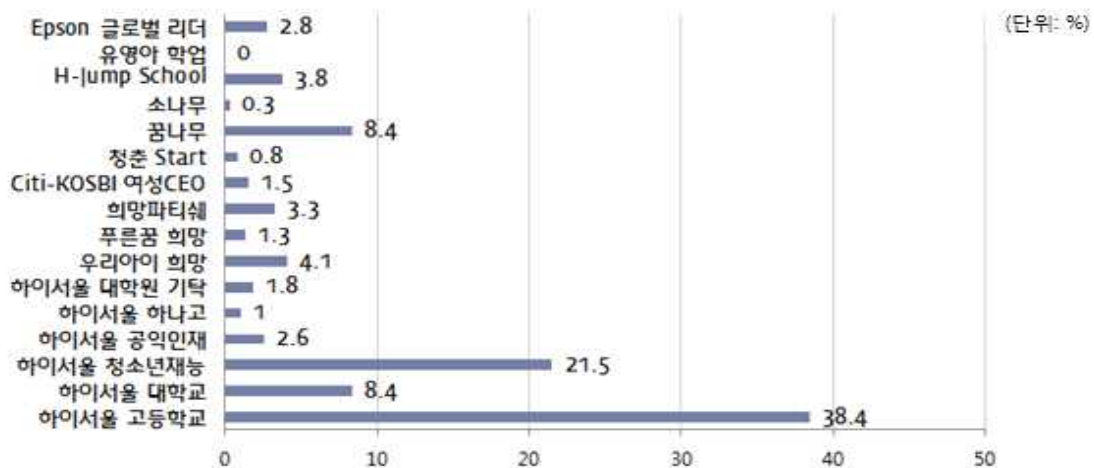


그림 42_ 서울장학재단 장학사업 인지도

인지도 조사 후 알고 있는 장학금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42]는 만족도에 대한 결과이며, 보통을 제외한 ‘매우 만족’과 ‘만족’ 누적 결과를 왼쪽에, ‘불만족’ 결과를 오른쪽에 표시하였다.

하이서울 고등학교 장학금의 만족도에 대해 ‘매우 만족’이

28.7%, '만족'이 54.7%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83.4%이다. 하이서울 대학교 장학금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중 66.7%이고, 하이서울 청소년재능 장학금의 경우 70.2%가 만족한다고 하였다. 꿈나무 장학금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60.6%이다.

이상의 결과로 대부분의 장학 사업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고등학교 교사들은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외 장학금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30명이 채 되지 않아 만족도를 일반화 할 수는 없을 듯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장학사업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하이서울 고등학교, 청소년재능에 대해 불만족 하는 사람이 각각 5명(3.3%), 3명(3.6%)이 있었다. 그 외 하이서울 하나고 장학금에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전체 4명 중 1명(25%) 있었다.

하나고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인 만큼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비싼 등록금과 방과 후 특강비까지 지원하는 것에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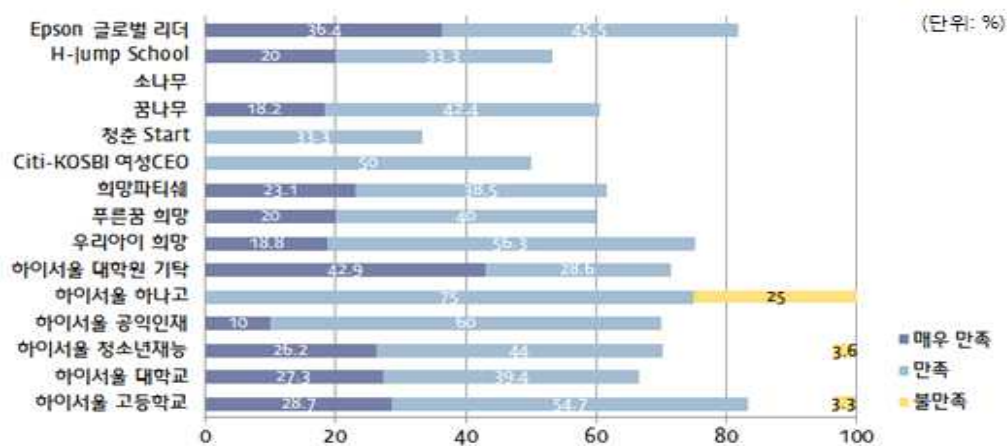


그림 43_ 장학금 만족도

표 68_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만족도

n=152, (단위: 명, %)

내용	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하이서울 장학금 고등학교 분야	150	43 28.7	82 54.7	20 13.3	5 3.3	-
2) 하이서울 장학금 대학교 분야	33	9 27.3	13 39.4	11 33.3	-	-
3) 하이서울 장학금 청소년재능 분야	84	22 26.2	37 44.0	22 26.2	3 3.6	-
4) 하이서울 장학금 공익인재 분야	10	1 10.0	6 60.0	3 30.0	-	-
5) 하이서울 장학금 하나고 분야	4	-	3 75.0	-	1 25.0	-
6) 하이서울 장학금 대학원 분야	7	3 42.9	2 28.6	2 28.6	-	-
7) 우리아이 희망 장학금	16	3 18.8	9 56.3	4 25.0	-	-
8) 푸른꿈 희망 장학금	5	1 20.0	2 40.0	2 40.0	-	-
9) 희망파티쉐 장학금	13	3 23.1	5 38.5	5 38.5	-	-
10) Citi-KOSBI 여성CEO 장학금	6	-	3 50.0	3 50.0	-	-
11) 청춘 Start	3	-	1 33.3	2 66.7	-	-
12) 꿈나무 장학금	33	6 18.2	14 42.4	13 39.4	-	-
13) 소나무 장학금	1	-	-	1 100	-	-
14) H-Jump 스쿨 장학금	15	3 20.0	5 33.3	7 46.7	-	-
15) 유명아 학업 장학금	-	-	-	-	-	-
16) Epson 글로벌 리더	11	4 36.4	5 45.5	2 18.2	-	-

만족도에 이어 인지하고 있는 장학금의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하이서울 고등학교의 경우 ‘매우 중요’가 68%, ‘중요’가 28.7%로 96.7%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하이서울 대학교의 경우 84.8%가 중요하다고 하였고, 하이서울 청소년재능은 89.3%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꿈나무 장학금도 75.7%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중요도 역시 모든 장학금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러나 하이서울 고등학교, 청소년재능, 하나고 장학금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있었다.

표 69_ 장학금 중요도

n=152, (단위: 명, %)

내용	빈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하이서울 장학금 고등학교 분야	150	102 68.0	43 28.7	5 3.3	-	-
2) 하이서울 장학금 대학교 분야	33	14 42.4	14 42.4	4 12.1	1 3.0	-
3) 하이서울 장학금 청소년재능 분야	84	39 46.4	36 42.9	8 9.5	1 1.2	-
4) 하이서울 장학금 공익인재 분야	10	1 10.0	6 60.0	3 30.0	-	-
5) 하이서울 장학금 하나고 분야	4	-	3 75.0	-	1 25.0	-
6) 하이서울 장학금 대학원 분야	7	4 57.1	2 28.6	1 14.3	-	-
7) 우리아이 희망 장학금	16	5 31.3	9 56.3	2 12.5	-	-
8) 푸른꿈 희망 장학금	5	1 20.0	3 60.0	1 20.0	-	-
9) 희망파티쉐 장학금	13	4 30.8	6 46.2	3 23.1	-	-
10) Citi-KOSBI 여성CEO 장학금	6	1 16.6	2 33.4	3 50.0	-	-
11) 청춘 Start	3	-	3 100	-	-	-
12) 꿈나무 장학금	33	7 21.2	18 54.5	8 24.2	-	-
13) 소나무 장학금	1	-	-	1 100.0	-	-
14) H-Jump 스쿨 장학금	15	6 40.0	6 40.0	3 20.0	-	-
15) 유영아 학업 장학금	-	-	-	-	-	-
16) Epson 글로벌 리더	11	4 36.4	5 45.5	2 18.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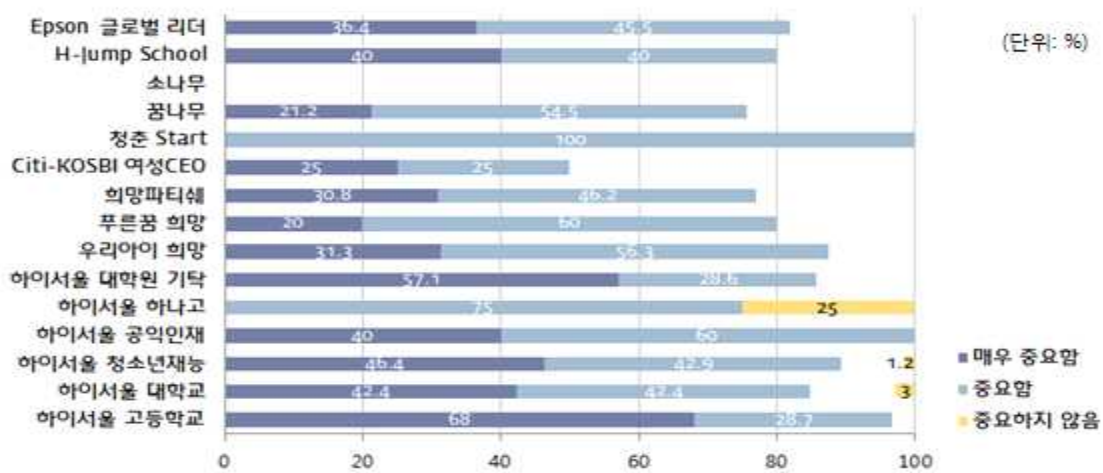


그림 44_ 장학금 중요도

다음은 만족도와 중요도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하이서울 하나고, Citi-KOSBI 여성CEO, Epson 글로벌 리더 장학금을 제외하면 모두 만족도에 비해 중요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과 ‘중요하지 않음’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하이서울 고등학교 장학금의 경우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3.3%였지만, ‘중요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다. 이와는 반대로 하이서울 대학교 장학금은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없었지만, ‘중요하지 않음’이라는 의견은 3% 있었다. 하이서울 청소년재능 장학금은 ‘불만족’ 3.6%, ‘중요하지 않음’은 이보다 낮은 1.2%였고, 하이서울 하나고 장학금의 경우 ‘불만족’과 ‘중요하지 않음’이 각각 25%였다.

하이서울 하나고 장학금을 제외하면, 장학금에 대한 ‘불만족’과 ‘중요하지 않음’의 의견이 일치 하지 않는다. 또한 ‘불만족’한다는 의견에 비해 ‘중요하지 않음’이라는 의견이 더 낮게 나타났다. 즉, 이는 곧 인식의 차이를 의미하며 장학금은 중요하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불만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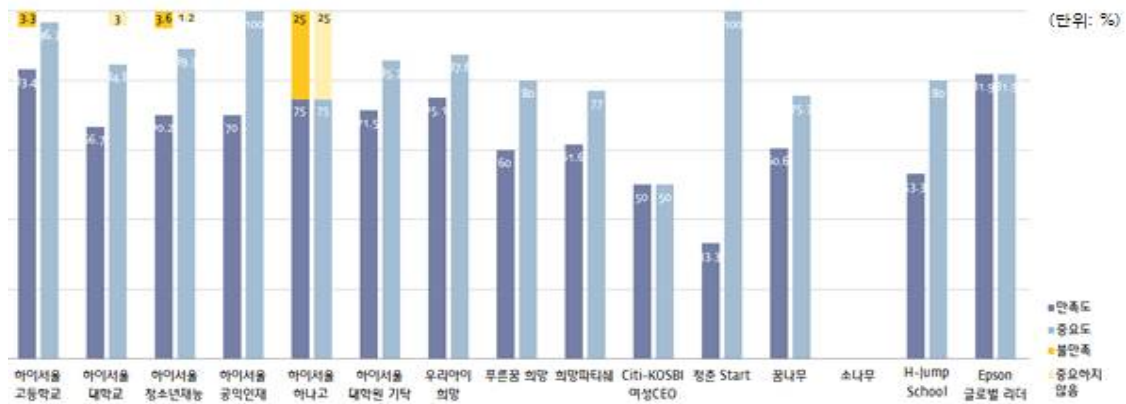


그림 45_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만족도 및 중요도 비교

마지막으로 각각의 장학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먼저 하이서울 고등학교 장학금의 경우 가정 경제력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학비 지원 이외의 급식비, 생활비 지원과 같은 지원 폭의 확대와 행정 서류상의 경제력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경제 사정을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재산이 있어 장학 수혜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공과금을 내기 어렵거나, 이혼 후 아이를 돌보지 않아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는 형편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로 들며, 자격기준의 완화나 담임교사의 추천, 긴급구호, 선정기준의 다양화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경제력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하이서울 고등학교 장학금을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장학금이 학교를 통해 지원되는 만큼 주인의식이 없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의 안내 하에 부모와 학생이 직접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번거로운 행정절차의 간소화, 첫 지원 이후 간편한 계속지원 시스템, 장학금 홍보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다음 하이서울 대학교 장학금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등록금을 반영한 장학금의 상향조정, 학비 지원 이외의 생활비 보조 또는 장학금의 자유로운 운용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주로 수혜 인원, 지원금액 확대에 대한 내용이다.

한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추천해 미리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진학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담임의 추천을 받아 대학교 학비를 지원하는 장학 시스템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생 대상 해당 고등학교에서 일정 수 추천을 받아서 주었으면 합니다. 고교 교사가 학생들의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잠재적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함으로써 해서 미리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도했으면 합니다.”

이 외에는 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학금을 알려 줄 수 있도록 현직 교사에게 먼저 장학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이서울 청소년 재능분야 장학금에 대해서는 재능분야가 예체능의 재능뿐 아니라 기능, 외국어 등 다방면의 재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현실적인 레슨비용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상향조정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성화고 학생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일반고 학생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과 이미 재능이 검증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정으로 꿈을 펼치고 있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이서울 공익인재 장학금에 대해서는 홍보와 선발의 공정성 및 사후 성과 확인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이서울 대학원분야 장학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장학금을 지원 받는 동안의 성과, 해외 대학과의 연계, 지원금 확충 등의 내용이 있었다.

하이서울 하나고의 장학금의 경우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불필요하고, 현재 하나고 이외에 다양한 자사고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반면에 일정 인원을 지원해야 한다면 경제적 상황, 학생의 진로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실행되어야 하고, 수혜대상자를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기생 등 다각화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기타 기탁장학금에 관련된 의견은 주로 장학금에 대해 들어만 봤을 뿐 직접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의견과 더 많은 사람들이 장학금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서울장학재단의 운영 방식

고교 교사들은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 운영 방식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었다. 하이서울장학금의 행정실을 통한 학비 지원에 대해 전체 중 135명인 88.8%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장학금이 학교로 직접 지원될 경우 학생의 등록금 미납에 대한 교사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등록금 미납으로 인한 학교의 운영비에 대한 손실을 일정부분 상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실을 통한 장학금 지원을 지지하는 경우 장학금이 학부모나 학생에게 직접 지급될 경우 장학금의 부적절한 사용이 우려된다고 기타의견을 통해 기술하였다.

“일단 부모님이나 학생에게 직접 지급이 될 경우 다른 비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행정실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 자꾸 아이에게 사용을 안 하고 빚을 갚거나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장학금이 부모님이나 학생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91명으로 59.9%나 되었다. 이들은 삼성꿈장학금의 사례를 들어 학생이나 학부모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학교는 장학금의 안내와 추천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행정실을 통한 장학금지원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장학금의 혜택 여부와 고마움 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학교를 통해 하는 것보다는 신청이나 지원 등 일부 과정에 학부모나 학생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학비지원 이외의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항목에는 84.9%인 129명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재능개발비, 활동비 등 다른 형태의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82.2%인 125명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들은 방과 후 학교활동 비용이나 교재비, 급식비 지원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학비 지원 이외에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월 단위의 활동비 지원, 교외 학습비 지원 등 대체적으로 지원 폭의 확대와 학생들의 생활까지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학 수혜기간이 지금보다 최소 2년 정도로 길어졌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75%가 있었다. 가정 경제사정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의 번거로움과 학기 초 교사가 미처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학금 신청이 이뤄지는 현실 등을 고려해 한 번 장학생이 되면 특이사항이 없는 한 졸업까지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장학금을 쉽게 검색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98%로 나타났다. 현직 교사들도 모든 장학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모든 학생들을 일일이 살필 수 없기 때문에 교사를 비롯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각자의 상황에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기타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 수혜방식이나 지급대상에 대한 의견은 긴급구호, 담임추천, 복지사각지대 지원, 현실적인 경제사정을 반영한 실질적 장학금지원 등이 있었다.

“갑작스런 어려움으로 인해, 수혜에서 제외된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열패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비밀스럽게 진행되다 보니 신 학년으로 진급 시에 대상 학생 명단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 학년 담임교사가 학생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어려운 가정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담임하는 학급에도 작년부터 학교에 내는 각종 공과금을 하나도 못

낼 정도로 어려운데, 서류상으로 재산이 있어서 담임추천 학비지원도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다 많은 학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한편 하이서울 장학금 고등학교, 대학교 분야는 경제적 상황만을 고려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장학수혜 대상자라는 것을 밝히기 꺼려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장학생의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지 의견을 살펴 보았다.

먼저 고등학교 분야 내에서 장학지원 자격을 경제적 상황 이외에 장래성, 인성, 성적 등으로 다원화하여 수혜 학생의 자격을 외부에서 알 수 없도록 하는 방법과, 기존 수혜자 중 우수한 기량을 보이거나 학업성적이 신장된 학생을 선발하여 격려 장학금을 지원 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장학생들의 대외활동을 촉진시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외활동 장려를 통해 소속감을 형성 하고, 서울시에 도움이 되는 활동과 연계해 장학 수혜자가 아닌 기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자부심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학생의 직접적인 활동 촉구 이외에 하이서울 장학금이 기존에 갖고 있는 이미지와 인식을 바꾸기 위한 일환으로 장학금 이름을 변경하거나, 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학생들이 상처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지금처럼 가정의 경제적 상황만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원 하여 교육소외계층이 없도록 현재의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표 70_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지원방법 및 운영에 대한 의견

n=152, (단위: 명, %)

문항	매우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하이서울장학금의 학교 행정실을 통한 학비지원 방식은 바람직하다.	7 4.6	10 6.6	69 45.4	66 43.4
장학금이 학교나 선생님을 통하지 않고, 부모님이나 학생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31 20.4	60 39.5	35 23.0	26 17.1
학비지원 이외의 경제적인 지원(급식비 등)이 필요하다.	1 0.7	22 14.5	67 44.1	62 40.8
재능개발비, 활동비 등 다른 형태의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	2 1.3	25 16.4	87 57.2	38 25.0
장학 수혜기간이 분기, 연 단위 보다는 최소 2년 정도로 길었으면 좋겠다.	4 2.6	34 22.4	68 44.7	46 30.3
다양한 장학금을 쉽게 검색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 -	3 2.0	57 37.5	92 60.5

서울장학재단의 내부 환경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서울장학재단의 내부환경을 현직 교사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대외적 공신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98.7%으로 매우 높았다.

재정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은 96.7%로 높았다. 이어 기본재상을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도 98.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기부금 모집에 한계를 갖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 67.1%가 그렇다고 하였다.

서울장학재단 직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83.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지만, 업무에 비해 사무국 운영인력이 너무 작다는 의견이 80.2%로 다수였다. 또한 이번 설문을 통해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의 인력이 6명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사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의견을 다수 보았다.

이외에도 서울시 장학담당교사들과의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71.7%가 서울장학재단의 강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성화 된 장

학 사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54.6%로 부족하지 않다는 의견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외 서울장학재단 내부환경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기타의견을 통해 직접 다루는 장학금에 대해서만 제대로 인지하고 있을 뿐 기타 장학금이나 재단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기타의견을 통해 기술된 내용은 재단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재단에 대한 소개와, 다양한 장학금을 소개하는 팸플릿 제작 및 배부, 학교와 교사에게로의 직접적인 홍보,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표 71_ 서울장학재단 내부환경에 대한 인식

n=152, (단위: 명, %)

문항	매우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대외적인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	-	2	84	66
	-	1.3	55.3	43.4
서울시 출연금을 바탕으로 하여 재정이 안정적이다.	-	5	95	52
	-	3.3	62.5	34.2
기본재산을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해야 한다.	-	2	82	68
	-	1.3	53.9	44.7
서울시 장학담당교사들과의 네트워크가 강점이다.	3	40	84	25
	2.0	26.3	55.3	16.4
경영진이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2	56	78	16
	1.3	36.8	51.3	10.5
직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	25	105	22
	-	16.4	69.1	14.5
기부금 모집에 있어 한계를 갖고 있다.	1	49	91	11
	0.7	32.2	59.9	7.2
운영상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3	77	62	10
	2.0	50.7	40.8	6.6
특성화 된 장학 사업(아이템)이 부족하다.	3	66	71	12
	2.0	43.4	46.7	7.9
업무에 비해 사무국 운영인력이 너무 작다(현재 6인)	-	30	82	40
	-	19.7	53.9	26.3

서울장학재단의 미래 장학사업

서울장학재단이 향후 미래 장학사업 방향 설정을 하는데 있어 현직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미래 장학사업 관련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서울장학재단이 서울시의 공공재단인 만큼 서울시 산하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장학사업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항목에 94.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재단의 안정화를 위해 수익사업을 통한 역량 강화의 필요성에도 90.8%이 응답하였다.

장학사업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이나 서울시 자치구의 장학재단과의 차별화를 위한 독특한 사업영역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5.5%에 달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의 거버넌스, 커뮤니티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장학자원과 수혜대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96.7%로 전체 항목 중 가장 높았다.

장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항목에서 서울과 관련한 연구, 각종 공모사업의 진행 등을 통해 서울을 탐구하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의견에는 86.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어 구체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초문화 교육, 정치참여 교육, 진로개발 등 사회적 자본 함양 프로그램의 필요성에는 95.4%가, 문화공연 체험, 참여 등 문화적 자본 함양 프로그램의 필요성에는 94.1%가, 진로, 적성, 직업 등과 관련한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필요성에는 95.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은 장학수혜대상 확대와 관련한 사항이다. 서울장학재단의 장학대상을 서울 내 재학생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서울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학생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65.8%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미혼모 가정 등 장학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91.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학교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들같이 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습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92.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을 통해 서울장학재단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장학사업의 종류나 운영방식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사한 결과, 진로와 꿈, 멘토링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현재 학생들이 꿈과 진로

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경험의 폭이 좁기 때문에 이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진로지도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멘토링, 지속적인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 봉사활동, 대외활동을 통한 자존감 향상, 성취감 향상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조용한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며, 현재 장학재단의 재원이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장학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는 것보다는 장학사업 자체의 규모를 늘리고, 재원 확충을 위한 사업 방안 수립 등이 더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었다.

표 72_ 서울장학재단 미래장학사업 관련 의견

n=152, (단위: 명, %)

문항	매우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서울시 산하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장학사업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	8	71	73
	-	5.3	46.7	48.0
서울시 자치구의 거버넌스, 커뮤니티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장학자원과 수혜대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5	73	74
	-	3.3	48.0	48.7
한국장학재단이나 서울시 자치구 장학재단 등과의 차별화를 위한 독특한 사업영역의 개발이 필요하다.	-	22	86	44
	-	14.5	56.6	28.9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역량을 키워야 한다.	1	13	91	47
	0.7	8.6	59.9	30.9
서울과 관련한 연구, 각종 공모사업의 진행 등을 통해 서울을 탐구하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	1	20	84	47
	0.7	13.2	55.3	30.9
청소년 기초 문화 교육, 정치참여 교육, 진로개발 등 다양한 사회적 자본 함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1	6	87	58
	0.7	3.9	57.2	38.2
문화공연 체험, 참여 등 학생의 고른 정서적 성장을 위한 문화적 자본 함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9	85	58
	-	5.9	55.9	38.2
진로, 적성, 직업 등과 관련한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7	70	75
	-	4.6	46.1	49.3
장학대상을 서울내 재학생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서울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학생(외국인 포함)으로 확대해야 한다.	15	37	69	31
	9.9	24.3	45.4	20.4
다문화 가정, 미혼모 가정 등 장학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사업을 해야 한다.	3	10	76	63
	2.0	6.6	50.0	41.4
학교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들의 경우 교육청에서 지원이 없는 학습 소외를 지원해야 한다.	3	9	78	62
	2.0	5.9	51.3	40.8

마지막으로 서울형인재 정의를 위한 키워드와 바람직한 서울형 인재에 대한 상에 대해 조사하였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꿈, 배려, 나눔, 긍정, 인성, 협동, 창의 등이었다. 또한 서울형 인재인 만큼 공공성과 서울에 대한 애정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서울형’이라는 단어로 인한 지방색, 여타 지방에 대한 우위 의식 등이 조성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어 ‘서울형’이라는 단어의 사용과 정의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시사점

타깃에 맞는 홍보방식의 다각화 및 전문화 필요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알게 된 경로를 분석한 결과, 자체 장학금과 기탁장학금 수혜자의 정보 획득 경로가 달랐고, 장학금 종류에 따라서도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정보 획득 경로가 상이했다.

또한 수혜자의 경우, 서울장학재단이 개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1순위가 ‘몰라서’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 홍보방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장학담당자 및 교사 의견 조사 결과 또한, 직접적으로 다루는 장학금에 대한 인지도만 높을 뿐 여타 장학금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거나, 이름만 들어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의 경영현황이나 운영상태, 사무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아 재단의 인지도 역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장학금의 특성과 장학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며, 서울장학재단은 효율적인 장학금 홍보를 위해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각 대상에 맞는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 현재 소규모 재단 사무국의 한계로 인하여 장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 문제의 해결도 시급하다.

즉, 고등학생, 대학생, 교사 및 전문가의 특성, 장학금 종류에 따른 수혜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 된 홍보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전담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서울장학재단에 필요하다.

장학재단 개최 프로그램의 리포지셔닝 필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수혜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과 괴리되어 있고, 수혜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학생들끼리의 교류보다는 소위 스펙,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는 개인적 활동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서울장학재단이 직접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학 수혜자들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지식을 함양시키거나, 서울형 인재의 양성, 장학재단에 대한 충성도 향상 등을 꾀하고자 한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리포지셔닝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시간이 없어서’인 만큼 장학생들의 참여를 고취시키고자 한다면 학업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인 만큼 학생들의 현실을 고려한 시기선정 및 홍보가 보다 적극적이며 다수에 걸쳐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학생 자긍심 고취 필요

본인이 하이서울 장학금의 수혜자임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학생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가정경제사정을 장학기준으로 하고 있어 장학 수혜자라는 것은 곧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실이 여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이에 수혜자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 및 장학금 변화 필요

서울장학재단 장학금에 대해 만족도와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장학금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나 그 수준이 중요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학금의 중요도만큼 운영 면에서나 지원 면에서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견이 투영된 것으로 각 장학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방법으로는 다양한 장학금의 신설과 지원 금액 및 대상의 확대, 현실을 반영한 완화된 지원 기준, 계속 지원, 간편한 행정 절차 등이 주된 공통 의견으로 나타났다. 장학수혜대상에 대한 의견에서는 수혜 대상 확대의 필요성은 있으나, 그 범위가 현재 서울시 청소년에 한정된 경향을 보였다.

특히 서울장학재단의 미래장학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보다 폭넓은 장학지원과 수혜대상에 대한 관리, 장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자본 함양 프로그램의 운영, 진로탐색을 돕기 위한 멘토링 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V. 서울장학재단의 중장기발전계획

V. 서울장학재단의 중장기발전계획

1. 기본방향

지금까지 서울장학재단의 과제와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내·외부 환경 및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내부환경 진단을 위해 기존 사업 및 예산과 조직구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하이서울 장학금의 분배에 가장 큰 예산이 배분되어 있지만, 실제로 운영 인력의 소요를 발생하는 분야는 기탁장학금임을 알 수 있었다. 재무적으로는 출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기부금품 모집 제한 등에 의해 재무구조 다각화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독립된 출연기관으로서 사업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나, 소수의 인력이 뒷받침하는 현재의 조직구조로는 감당하기 힘든 업무량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장학사업을 둘러싼 외부환경을 고찰하기 위해 서울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장학사업, 자치구 등 공공부문의 장학사업 및 국내·외 우수 장학재단의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장학사업의 성격이 기존의 학비지원에 국한되던 것에서 다양한 배움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장학수혜 대상자 역시 다양화·세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장학사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부터 장학사업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을 검토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필요성은 수혜자 및 관계자 대상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다시 한 번 제기된다. 즉, 서울장학재단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의 확대에 대한 요구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 장학 관련 기관 및 서울시 산하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장학 거버넌스 구축으로 장학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출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제5장은 서울장학재단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안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장학환경과 정책환경의 변화, 핵심인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장학재단의 비전과 미션을 새롭게 도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전략방향과

핵심사업들을 선정하고자 한다. 우선 내·외부 환경분석 및 인식 조사 결과, 그리고 재단 내부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비전과 미션을 새롭게 정립할 것이다. 또한 SWOT 분석을 통해 비전과 미션 달성을 위한 전략방향 및 핵심과제들을 도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사업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1_1 비전 및 미션의 재정립

서울장학재단은 장학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보다 다양화하고 확대해야하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서울장학재단에 요구되는 역할과 미래 발전방향의 모색 결과를 바탕으로 비전과 미션을 재정립하였다. 이를 위해 내부간담회를 통한 장학재단 내부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회의, 장학 수혜자 설문조사 및 장학담당자 및 교사 의견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환경분석에서는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창의적 인재 발굴, 사회적 자본 확대 기회 제공, 장학예산의 한계 극복의 열쇳말을, 내부간담회에서는 공동체 기여, 서울형 인재상, 공평한 배움의 기회 제공,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키우는 등의 열쇳말을 도출하였다. 사례연구에서는 교육복지, 미래형 인재, 자원영역의 다각화, 재원의 다변화를,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시민성, 아이를 인재로, 배움장려, 배움에 의지가 있는 서울시민 누구나를,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분석에서는 장학사업 다각화, 서울형 인재, 다양한 프로그램, 서울시 자원의 선순환 네트워크를 열쇳말로 도출하였다.



그림 46_ 비전 및 미션의 도출

도출된 열댓말들을 핵심을 종합하면, 배움, 미래서울, 교육격차, 사회문화자본 배움기회 부여, 서울형 인재 육성, 시민성 함양, 교육재정 확보 등이다. 특히 다함께 배울 수 있는 배움의 기회 마련과 서울형 인재가 핵심개념으로 요약된다. 이를 바탕으로 ‘공평한 배움을 통해 미래서울의 발전에 기여하는 건강한 서울시민 양성’의 비전을 제안한다.

비전에 도달하기 위한 미션으로는 ‘배움의 기회 확대’, ‘서울형 핵심인재 육성’, ‘장학사업의 오피니언 리더’이 설정되었다. 이를 뒷받침할 핵심가치로는 ‘창의성’, ‘융합력’, ‘시민력’, ‘인성’, ‘소통과 공감’, ‘글로벌 리더십’을 설정하였다.

표 73_ 서울장학재단의 비전 및 미션의 재정립

	기존	변경
비전	학생에게 행복한 미래를 설계 해주는 꿈과 희망의 멘토	공평한 배움을 통해 미래서울의 발전에 기여하는 건강한 서울시민 양성
미션	서울의 미래세대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양성에 기여	배움의 기회 확대 서울형 핵심인재 육성 장학사업의 오픈니언 리더
핵심 가치	학생 미래설계 꿈과희망 멘토링	

1_2 SWOT 분석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방향 도출을 위해 SWOT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즉, 장학재단 조례 및 규정 관련 분석 및 사업 현황 분석, 장학 수혜자 만족도 조사, 서울시 정부와 교육청의 장학사업 현황, 자치구 장학사업 현황, 장학재단의 사례 분석 및 장학담당자 및 교사 의견 조사, 장학재단 내부의견 수렴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기회요소들을 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협요인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강점과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고 약점과 위협요인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인 사업영역으로 유형화하여 전략방향을 설정하였다.

강점은 ‘공신력’ 과 ‘네트워크’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대외적인 공신력

장학재단은 기본적으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볼 수 있듯 우수인재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를 받고 있는 기관으로 사업의 책임감을 갖고 운영 중이다.

일반적으로 장학재단은 출연한 재산(기본재산)에는 손댈 수 없고, 기본재산의 이자수입을 통해 장학사업 및 필요경비를 충당해야 한다. 최근 많은 장학재단들이 이자수익이 낮아지면서 장학금 규모와 수혜인원을 줄이는 등 존폐위기에 서있으나¹⁶⁾, 서울장학재단은 서울시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대외적인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다.

하이서울장학금에 대한 높은 신뢰

하이서울장학금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다. 실제 수혜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뿐만 아니라 고교 선생님들과의 인터뷰에서 하이서울장학금의 긍정적인 효과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학업의 가장 기본적인 학비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제공해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학재단의 대표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로, 이는 향후 기획·운영될 사업의 리스크를 줄여줄 주요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장학담당자와의 네트워크

서울시 300여개 고교¹⁷⁾의 장학담당교사 3,000여명 및 대학¹⁸⁾ 장학 담당직원들과의 네트워크는 재단의 강력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장학대상자가 될 학생들이 원하는 사안이 무엇인지의 파악에서부터 장학수혜자들의 모집 및 장학금 배분 등 장학사업 수행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인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16) '저금리 직격탄에... 장학재단도 문 닫는다, 서울경제 2014년 10월 22일자

17) 현재 서울시에는 318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일반 고등학교 183개, 특수목적고등학교 20개, 특성화고등학교 71개, 자율고등학교 44개가 있다(교육통계, '2014년 유초중등 통계' <http://kess.kedi.re.kr>).

18) 현재 서울시에는 48개의 대학교가 있다. 전문대학 9개, 대학교 38개, 교육대학 1개가 있다(교육통계, '2014년 대학통계' <http://kess.kedi.re.kr>).

경영진의 적극적인 대외활동

재단은 비상임 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무보수의 명예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사장은 장학재단의 각종 업무 보고 및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단 내 일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장학재단의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롤모델들이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이사진 개개인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서울장학재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표 74_ 서울장학재단 이사진 명단

김선현	(주)오토 대표이사
박성경	(주)이랜드그룹 부회장
박영립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이기형	(주)인터파크 회장
이승호	(주)꿈꾸는 이상 대표이사
이종휘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이찬승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
한경희	(주)한경희생활과학 대표
윤종장	(당연직)서울식 교육협력국장
김재금	(당연직)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직원의 높은 책임의식 및 전문성

현재 재단은 사무국운영, 장학사업운영·관리 등 사업대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나 지속적인 내부워크샵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한 내부워크샵에서 직원별 업무분장을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과 각각 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다양한 장학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장학사업에 대한 소신과 전문성을 보였다.

하지만 시급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각종 사업 아이디어들이 인력의 한계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업무시스템 자체가 전략적으로 설계되지 못하여, 개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다.

즉, 재단의 내부고객인 직원들은 책임의식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에 높은 충성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조직 전체 역량에 있어 큰 강점으로, 향후 재단의 사업 기획 및 운영에 있어 보다 강력한 추진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약점은 ‘운영의 종속성’과 ‘미약한 조직구조’

제한적 장학사업

하이서울장학금을 운영하는 조직으로 출범한 이후 다양한 사업 영역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특히 기탁 장학사업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조직과 인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확장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다.

장학생 관리시스템의 부재

지금까지 서울장학재단의 수혜자는 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장학금 지급시스템의 한계 등으로 인해 자체장학사업 일부에서만 장학생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장학수혜자 조사결과에서도 장학프로그램의 수혜자 참여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즉, 장학재단의 가장 큰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장학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장학금 수혜자 관련 데이터의 구축, 수혜자 관리 및 각종 행사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기 장학생 관리를 위한 시스템뿐만 아니라 장학생간의 교류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장학금 지급 시스템의 문제

장학재단의 대표사업이라 할 수 있는 하이서울장학금의 지급 시스템이 재단과 수혜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하이서울장학금은 학교장 추천을 통한 선발 방식을 통해 최종 선발되며, 학교계좌로 학비를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선발 신청부터 선생님의 의해 주도된다.

이러한 시스템이 장학재단의 사업 확장 및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수혜자 가운데 하이서울 장학금을 받는다는 자긍심보다, 장학 수혜사실이 경제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의견이 다수 수렴되었다.

즉, 장학재단의 사업의 이미지 및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혜 대상자들이 스스로 장학금을 찾아보고, 선발과정에 참여하고, 장학금 수여식 등의 참여를 통해 장학수혜 사실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기탁장학금의 집행 프로세스는 장학금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많은 인력을 소모하고 있다. 이 역시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장학재단 인지도 부족

본 연구에서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은 알고 있으나 ‘장학재단’의 성격 및 역할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공공의 장학을 위한 모두에게 열린 서울의 장학재단이라는 이미지의 구축이 필요하다. 구축된 이미지는 향후 서울장학재단 사업의 성과로 축적될 수 있는 많은 동력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장학사업의 확대뿐만 아니라 각종 장학프로그램의 참여도 제고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해서는 서울장학재단 고유의 브랜드 사업 운영을 통해 인지도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기부금 모집의 제한성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장학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부금품을 요구하거나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는 많은 사업활동에 있어 장애가 되고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기본재산 부족

대부분의 장학재단이 기본재산을 바탕으로 한 이자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재 서울장학재단은 서울시의 출연금만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독자적인 사업 운영이나 사업의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본재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사업인력 부족

현재 장학재단은 비상임 이사 1인, 서울시파견 사무국장 1인 및

재단 사무직원(부장 1인, 지원 4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업예산이 매년 100억 이상인 상황에서 장학사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금까지 지적된 다양한 문제점의 개선 및 사업영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지적한 서울장학재단의 대부분의 약점들은 소규모 재단 사무국 시스템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별 인력배분이 불가능한 구조와 출연금으로 운영 가능한 사업 영역의 물리적 제한 등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기회요인 ‘사회적·정책적 관심 증대’, ‘인재상의 변화’

교육격차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 증대

최근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학업중단 청소년은 18,000여명으로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고1 시점에서 학교 이탈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서울시교육청, 2014).

대학생의 경우 우리나라 학생 1인당 등록금은 OECD 회원국 중 1위에 달해, 학자금 대출과 아르바이트로 20대의 대학생활은 얼룩져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한편, 다문화학생들은 새로운 경제소외계층으로 나타나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계소득수준에 따른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성적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없는 것이다. 일반고에서의 서울대 입학비율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1위로 나타났으며, 일반고 출신 서울대 입학생 비율은 강남3구가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4). 이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좌절감 팽배한 상황이다.



그림 47_ 가계소득수준과 교육비지출 비교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인의 경제적 자본이 문화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종합적으로 교육격차 심화 및 계층구조 고착화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부처에서는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증가 및 다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 중에 있으나, 문화적 자본이나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관련된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창의적 인재 육성의 필요성과 관심 증대

초·중·고등학교 시기의 학생들은 창의적 사고를 배양하기보다 특목고 등 좋은 학교, 일류대학을 가기 위해 경쟁한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은 여전히 객관식 위주의 평가 및 주입식 교육에 치중되어 있다. 일부 창의적 체험이나 진로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단편적이며 대부분 방과 후 활동으로 진행되고, 이 또한 입시와 연관되어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OECD 국가들 중 최상위권이나 학업 흥미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장석영, 2014).

정부는 2014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 방안」을 수립하고, 인재육성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 인재상은 첫째, 자기 끼를 발견하고 꿈을 키우는 미래 인재, 둘째,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는 융합 인재,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인재, 넷째, 소통능력을 가지고 세계무대로 진출하는 글로벌 인재, 다섯째, 끊임없이 자기를 계발하는 평생학습 인재이다. 정부는 이렇듯 다양한 역량을 갖춘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중등, 대학(원), 취업, 재직 등 생애주기별로 5가지 핵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Five-Jump'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표 75_ Five-Jump 전략 및 11개 주요 추진과제

비전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양성 Five-Jump 전략 창의인재 핵심역량 제고
핵심역량	전략 및 추진과제
Jump-1 꿈·끼	㉠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확대 • (1-1) 학교를 창의성 발현의 산실로 조성 • (1-2) 창의적 진로교육 활성화
Jump-2 융합·전문	㉡ 통섭적 사고 강화를 위한 융합교육 활성화 • (2-1) 초·중등 융합교육 강화 • (2-2) 창조산업 맞춤형 융합인재 양성
Jump-3 도전	㉢ 창업 친화형 교육·연구 생태계 조성 • (3-1) 중등 기술창업교육 강화를 통한 기업가정신 고취 • (3-2) 대학 창업 활성화로 학생의 도전역량 제고
Jump-4 글로벌	㉣ 글로벌 창의·도전 역량 제고 • (4-1) 해외 산업체 현장학습 및 글로벌 취업·창업 확대 • (4-2) 해외 우수인력의 활용을 통해 다양성·개방성 제고
Jump-5 평생학습	㉤ 끊임없이 도전하는 평생학습기반 마련 • (5-1) 누구나 언제나 교육받을 수 있는 학습 여건 강화 • (5-2) 경력단절 없는 역량 개발 및 활용
인프라	㉦ 창의성을 장려하고 존중하는 열린 문화 조성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창의적 인재의 중요성이 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흐름에 따라 서울장학재단도 창의인재 육성 중심으로 장학사업 다각화하는 계기로 삼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장학사업 영역과 대상의 다변화 및 확대

사례조사에서 살펴보았듯 최근 장학사업은 기존의 학비 보조, 학비 지원 방식의 장학사업에서 재능지원, 특기지원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장학지원 사업 덕에 학비가 없어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네바다주 장학재단(The Public Education Foundation)의 경우 리더십 교육, 독서 프로그램, 예술경험 촉진을 위한 예술 커뮤니티와의 연계, 공공 극장에서의 인턴 프로그램, 분야별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교육개혁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격차 해소 사업에도 장학재단이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울시 자치구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성적우수 장학금, 지역사회

봉사 장학금,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효행 장학금, 특기자 장학금에서 해외탐방 프로그램의 운영, 어학연수 비용 지원, 교육+생활+복지 연계프로그램, 장학생 커뮤니티 운영 등 사업의 영역의 분화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장학에 필요한 것이 단지 학비뿐만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장학재단도 서울이 원하는 인재상 및 미래인재의 모습에 대한 예측을 통해 사업영역의 변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 네트워크

서울시에서 인재육성을 담당하는 가장 큰 공공기관은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협력국이다. 그러나 사례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 서울시 자치구에도 장학재단 또는 장학회 등 자치구의 상황에 보다 특화된 장학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대체적으로 소규모이나, 지역사회에 기반하고 있어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정보수집이 더 유리하다. 때문에 이들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은 장학사업 효과성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서울시 산하 다양한 기관들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기부 방식의 등장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기부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먼저 기존의 현금기부를 비롯한 신탁기부, 유산기부, 유가증권 기부, 선물 증여, 장학숭 현물기부 등 경제적인 기부의 폭이 다양해 졌다. 또한 자산가나 독지가, 기업의 거액 기부 외에 중랑구의 111운동, 송파구의 1인 1계좌 갖기, 구로구의 내 생애 가장 기쁜 날처럼 개인의 소액 기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직접적인 기부는 아니지만, 일정 카드 이용시 이용 금액의 일부를 적립해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도 하고, 적립한 포인트를 장학금으로 기부하거나 인터넷 이용을 통해 모은 포인트 기부, 기부 관련 어플을 켜고 걸은 시간만큼 환전되어 기부되는 등 직접 기부가 아닌 중간 매개를 거쳐 기부하는 방식 또한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기부 외에도 공연, 강연, 지식, 경험 등 재능기부와 자신

의 시간을 활용해 재단에 도움의 손길을 주는 시간기부 등 기부의 종류와 폭이 확대되었다. 또한 기부금을 수혜 받던 사람이 기부자가 되어 다른 이에게 기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선순환적 구조의 기부 방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같이 기부의 폭이 넓어지는데 일조한 것이 기부방식의 다양성이다. 인터넷, 스마트폰 앱, 전화 등 개인이 소액을 부담 없이 기부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고, 인터넷 홍보자료, 동영상,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기부금이 어느 재단으로 가는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지원 되는지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개개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소액 기부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협요인 ‘장학기금의 한계’, ‘장학사업의 중복’

국가장학사업 확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 장학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학자금 대출과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학사업 전담 기구다. 한국 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각 기관에 분산돼 있는 장학 및 학자금 사업을 한 데 묶어 지원창구를 단일화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008년 5월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구축 기본방안이 수립됐고, 2009년 1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5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됐다.

최근 정부는 서민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2학기 사이에 받은 고금리의 정부보증학자금 또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저금리의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또는 일반상환학자금으로 전환해 주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이처럼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학생의 학비지원, 학자금 대출 사업을 주축으로 인재지원육성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장학생들이 학자금 지원 수혜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대학생들을 통한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의 학업지도, 진로 및 고민상담, 특별활동 등 멘토링을 지원하는 ‘한국 대학생 지식 멘토링’과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다문화·탈북 가정 청소년에게 언어지도, 학습지도, 진로·고민상담, 특별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등이 그것이다.

교육복지예산의 불안정성

국내 많은 지자체에서 재정위기가 있을 경우 가장 먼저 삭감하는 것이 교육복지예산이다. 학생 수의 감소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일반 복지예산의 확대를 위해 교육예산을 삭감한다든가, 부채 해소를 위한 교육 분야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매년 있는 일이다.

2015년 예산안만 하더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삭감하여, 지역의 누리과정, 돌봄교실, 고교 무상교육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중심인 교육청 예산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면 사실상 교육사업비 정도가 남는데 교육사업비의 약 70%를 누리과정·무상급식·초등 돌봄교실 등 6대 교육복지 예산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운영에만 올해보다 11% 늘어난 약 6,100억원을 필요로 한다. 서울시가 분담해온 약 600억원대 예산이 내년부터 전액 교육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돌봄교실 역시 내년부터 3~4학년까지 수요층이 확대돼 올해(446억원)보다 예산이 많아져야 한다. 돌봄교실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학급당 연 2,000만원 수준이다¹⁹⁾.

이러한 상황아래 출연기관인 서울장학재단은 출연금 지원이 줄어들게 되면 사업영역의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현재 하이서울장학금에 대부분의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구 장학사업의 전문화

사례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부분이 장학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치구별 장학재단이 설립되고 있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구에서 동 단위로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 자치구는 일반적인 장학사업 외에 보다 전문화되고 특색 있는 장학사업을 진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서초구는 다가구를 위한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노원구는 교육에서 나아가 교육복지 측면까지 장학사업을 구체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송파구 역시 2014년 해

19) 교육복지예산 대폭 삭감... 누리교실 등 파행 우려, 서울경제 2014년 9월 18일자.

외문화체험 장학생을 최초 선발하는 등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 장학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산구는 한부모, 장애가정, 다문화가정, 조손 가정 등 다양한 사회틈새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명 풀뿌리 장학회로 통하는 동 단위 장학사업은 예산은 규모는 작지만, 동이라는 작은 단위인 만큼 도움이 필요한 개개인의 실상을 잘 파악하고 있어,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동 자치 사업을 통해 일정 수입을 장학기금으로 마련하고 있어,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금 외에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스스로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다양한 용도의 장학금 요구도 증가

장학수혜자 대상 조사결과 및 사례조사에서 살펴보았듯, 최근 수요자 중심형 장학금이 생겨나는 추세이다. 기존 학비 지원 형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부터,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도가 크다. 최근 대학에서 학생맞춤형 장학사업을 벌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희대의 경우 학생맞춤형 장학금(Need-based Scholarship)을 통해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기숙사비 등의 비중을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별 맞춤형 장학, 건국대의 ‘자기추천장학’, ‘후배사랑장학’ 등 장학소외지대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장학금이 만들어지고 있다.

건국대, 이색 장학제도 도입 ... '장학 소외지대' 없앤다

건국대가 성적 제한, 가정 형편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장학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특별장학제도를 도입한다. 스스로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거나, 훗날 자신의 후배에게 장학금을 내놓기로 약속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건국대는 이 같은 내용의 '총장특별장학생'을 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학생당 최대 100만 원까지 건국대생 400여 명에게 총 4억 원 내외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일종의 '장학금 소외 중간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특별장학제도는 '자기추천장학'과 '후배사랑장학'으로 나뉜다. 자기추천장학은 봉사활동 내역이나 성적 향상 정도, 학교발전 기여 등 자신이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사유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후배사랑장학은 사회인이 된 뒤 소속 전공 후배를 위해 자신이 받은 장학금의 20% 범위에서 장학금을 기부하겠다는 약정서를 내면 된다.

자기추천장학은 직전학기 평점 4.0 이상, 후배사랑장학은 3.0 이상 받고 15학점 이상 수업을 들은 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맞춤형 장학 혜택을 위해 건국대가 도입한 '장학사정관'이 제출된 장학 신청서를 검토해 수령자를 선정한다.

건국대 관계자는 "다양한 이유로 장학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 장학 제도를 마련했다. 장학 소외지대를 최소화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며 "이번 장학 제도를 계기로 학생들이 더욱 열심히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특히 자신이 받은 혜택을 후배에게 환원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한경닷컴, 2014년 12월 26일자

경기침체로 인한 기부금 규모 축소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장학예산 축소와 기부금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에 있다.

일부 대학교(서울시립대, 연세대 등)는 국가 근로 장학생의 시급이 기존보다 인상되었지만 학교 예산의 한계로 인해 최대 근로시간을 유지할 수 없어 장학생의 근로 시간을 축소했다. 이 외에도 장학금 축소로 인해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대학이 늘고 있다.

기업들의 기부금 역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주요 카드사의 경우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을 절반 넘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⁰⁾. 비단 기업뿐만이 아니다. 서울시민의 기부율도 2010년 이후 3년간 10.6% 하락했다. 기부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적이 있는 서울시민이 3년간 계속 줄어 2013년 기부율은 35.9%에 그쳤다²¹⁾.

20) 카드사 기부금 감소 '눈에 띄네'. 뉴데일리 경제, 2013년 11월 4일자.

즉, 기부의 폭과 방식은 다양해 졌지만, 실질적인 기부금과 기부
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기부
금 모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립대의 굴욕...1조 넘던 대학기부금 '반의반' 토막

대학의 기부금 수입이 줄고 있다. 한 때 1조원이 넘던 사립대 기부금은 3700억원대로 급감했다. 경기침체로 기업 기부가 줄어든데다, 사학비리 논란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등 악재들이 줄이어 등장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사립대학 재정운영 실태진단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5년새 사립대 기부금 수입은 2007년 5034억 원에서 2012년 3760억 원으로 4분의 1가량 줄었다. 2009년(5130억) 정점을 찍은 뒤 2010년(4362억)부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사립대 기부금은 2003년 1조1945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때와 비교하면 2012년 3760억원은 초라하기만 하다.

대학 기부금은 기부 목적에 따라 △지정기부금 △일반기부금 △연구기부금으로 나뉜다. 지정기부금은 기부자가 장학·연구·건물증축 등 용도를 지정해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일반 기부금은 특별한 용도를 정하지 않고 '대학이 알아서 쓰라'고 쾌척한 기부금이다. 연구기부금은 말 그대로 대학의 연구·개발(R&D)에 써달라며 낸 기부금을 일컫는다.

최근 5년간(2007~2012년) 지정·일반·연구 기부금 모두 전반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정기부금은 3236억 원에서 3019억 원으로 6.7% 감소했고, 일반기부금은 같은 기간 6623억 원에서 6013억 원으로 9.2% 줄었다. 연구기부금은 1135억 원에서 139억 원으로 기부금 항목 중 가장 큰 하락폭(87.8%)을 보였다.

연구기부금의 감소는 지난 2004년부터 대학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회계가 분리되면서 이관된 탓이 크다. 때문에 대학 기부금 감소의 이유를 이 부분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기부금 감소폭을 고려할 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지난 5년간 연구기부금이 산학협력으로 이관된 액수보다 300억 원이나 더 많은 수입 감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장기침체에 들어서자 대학에 내는 기부금도 전반적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큰 손'으로 통하는 기업이 내는 대학 기부금은 5년간 1432억 원에서 1236억 원으로 13.7% 감소했다.

※ 이데일리, 2013년 11월 4일자 발췌

21) '기부천사 줄었다'...서울시민 기부율 3년간 10.6%p↓. 연합뉴스, 2014년 12월 4일자.

1_3 전략과제 도출

지금까지 서울장학재단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요인을 살펴 보았다. 즉 강점은 공신력과 네트워크, 약점은 운영의 종속성과 미약한 조직 구조, 기회요인은 사회적·정책적 관심 증대와 인재상의 변화, 위협 요인은 장학기금의 한계와 중복 등이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재단의 강점을 살리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며, 약점을 극복하고 위협요인을 회피할 수 있는 전략적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SWOT 분석을 통한 전략적 관점을 장학재단의 비전·미션 체제 내에서 흡수시켜 종합적인 전략방향과 사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장 포지셔닝(SO) 전략

장학재단의 현재 기회요인(O)을 바탕으로 강점(S)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포지셔닝(SO) 전략을 도출하였다.

서울시 장학자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직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 연구기획팀을 운영하고, 장학사업 영역 및 대상의 다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경영진의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통해 서울시 장학협의체를 구성한다.

또한 재단 브랜드 장학사업을 추진한다. 교육격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서울장학재단 하이서울 장학금의 신뢰도와 장학담당교사들과의 네트워크, 직원의 전문성 등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서울인재장학금(구, 하이서울장학금의 사업대상 및 영역 다양화)을 운영한다. 또한 서울인재창조교실의 운영을 통해 장학금 지급과 더불어 다양한 장학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국면적(ST) 전략

장학재단의 강점(S)을 바탕으로 위협(T)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장학재단의 국면적 전략으로 재단인지도 개선, 재단 조직구조 재설계의 사업을 상정하였다. 국가장학사업이 확대되고 교육복지예산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단 인지도 개선을 위하여 서울장학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도록 한

다. 자치구 장학사업이 전문화되고, 다양한 용도의 장학금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단 조직구조 재설계를 위해서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효과적 조직 구축이 요구된다.

사업다각화(WO) 전략

서울장학재단의 약점(W)을 강화하여, 외부적인 기회(O) 요인을 활용하는 다각화 전략으로 장학사업 재설계, 서울형 인재육성 시스템 구축의 사업을 상정하였다.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장학사업 영역과 대상의 다변화에 따라 하이서울장학금을 리프로그래밍하여 서울인재장학금으로 브랜드사업화 하고, 장학 토탈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학사업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서울형 인재육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장학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학 졸업생 및 서울시민 등을 대상으로 서울장학재단 서포터즈의 구축을 통해 사업 지지기반을 공고히 한다.

방어(WT) 전략

서울장학재단의 약점(W)과 위험(T)요소를 회피하기 위한 방어 전략으로 기탁장학금 시스템 개선, 재단 재정자립도 확대를 위한 사업을 상정한다. 사업인력 부족 문제, 기본재산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탁장학금을 유형화하고, 오버헤드 규정의 마련을 통해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재단 재정자립도 확대를 위해서는 장학가게 ‘꿈사게’ 운영, 장학포인트제 도입, 고정자산 확보 방안의 모색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시장포지셔닝(SO) 전략

국면적(ST) 전략

• 서울시 자원간 협력체계 구축 - 장학사업 연구기획팀 운영 - 서울시 장학협의체 구성 • 재단 브랜드 장학사업 - 서울인재 장학금 운영 - 서울인재창조교실 운영	• 조직구조 재설계 - 체계적·효과적 조직구조 -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장학재단 인지도 개선 - 마케팅 전략 수립 - 서울장학정보시스템 구축
• 장학사업 재설계 - 하이서울장학금 리프로그래밍 - 장학 토탈지원 시스템 구축 • 서울형 인재육성 시스템 구축 - 서울인재 네트워크 구축 - 서울장학재단 서포터즈 구축	• 기탁장학금 시스템 개선 - 기탁장학금 유형화 - 오버헤드 규정 마련 • 재단 재정자립도 확대 - 장학가게 운영 - 장학포인트제 도입 - 고정자산 확보방안 모색

사업다각화(WO) 전략

방어(WT) 전략

그림 48_ 서울장학재단 4대 부문 8대 추진 전략

SWOT 분석에 따라 서울장학재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4대 부문 8대 추진전략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전략도출을 위한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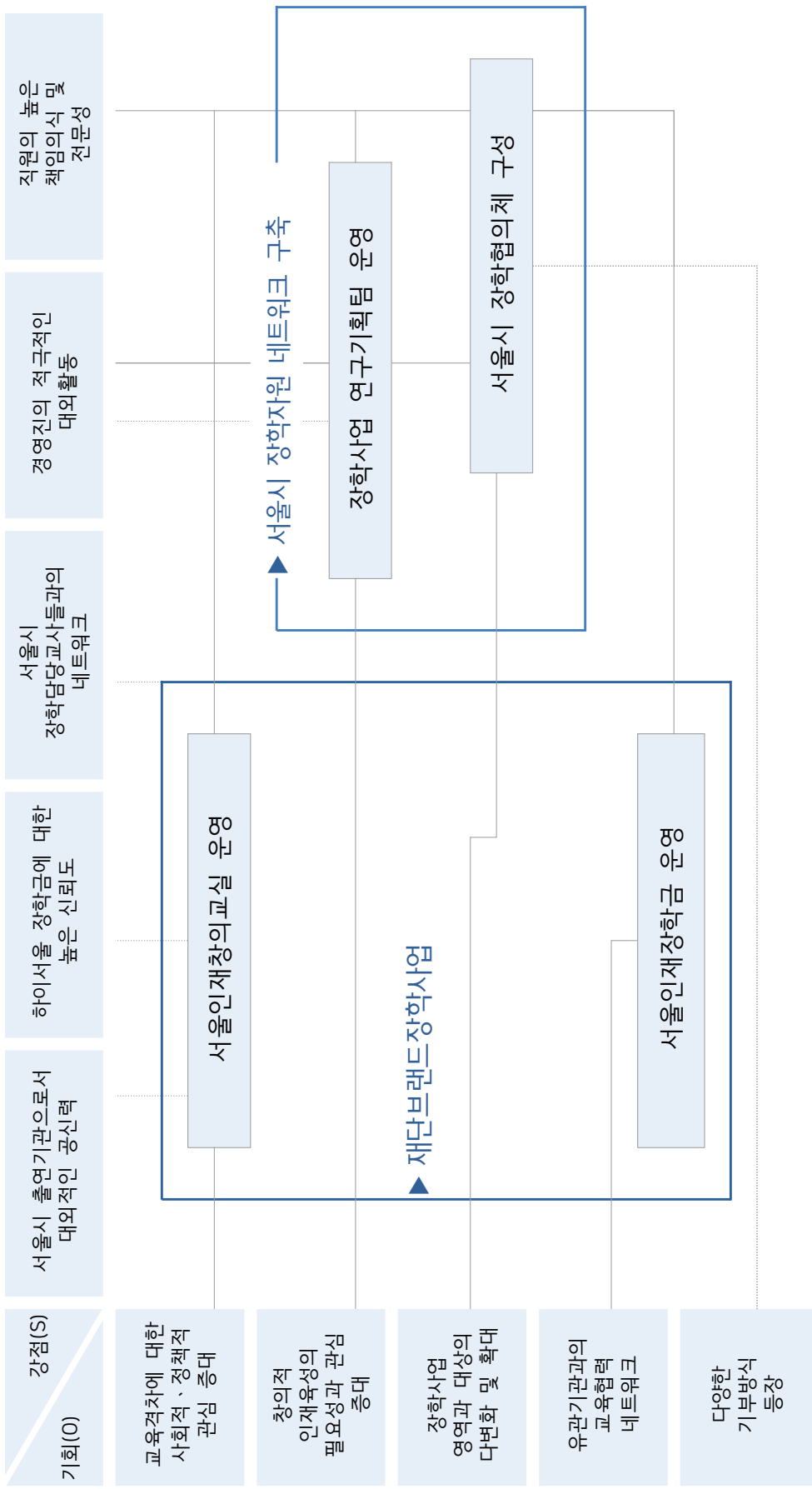


그림 49_ 시장포지셔닝(SO)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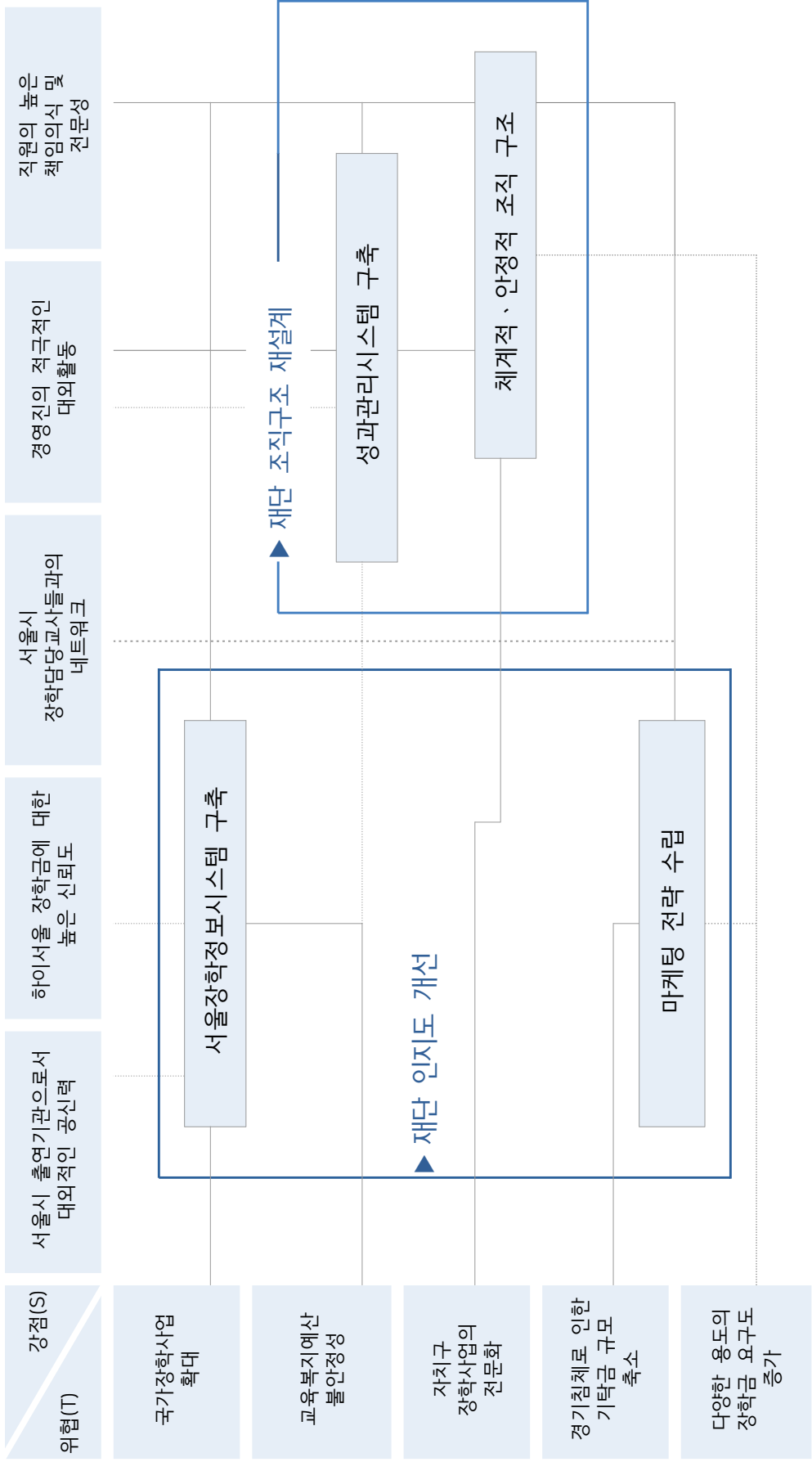


그림 50_ 국면적(ST)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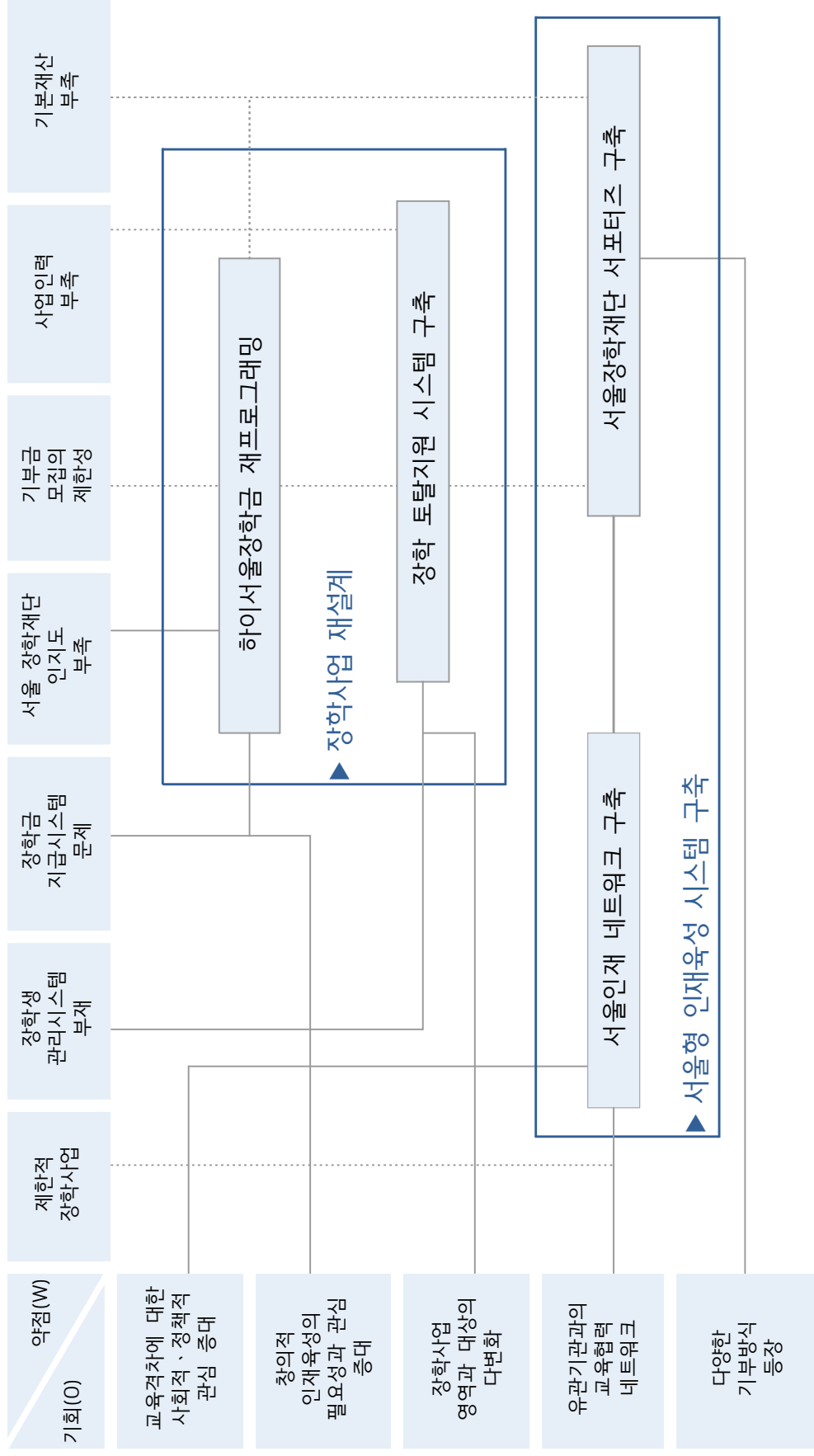


그림 51_ 사업다각화(WO)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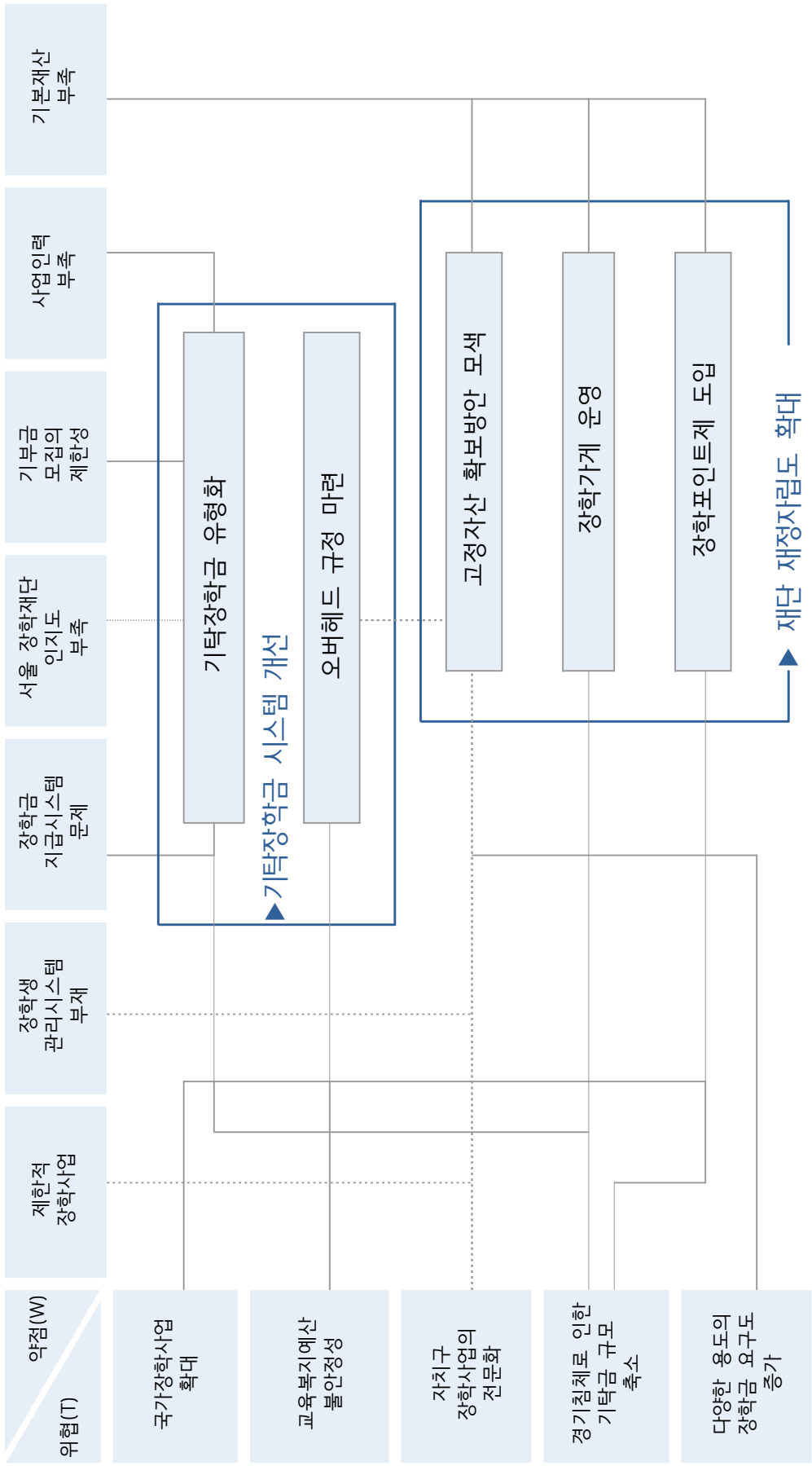


그림 52_ 방여(WT) 전략

SWOT 분석을 통해 도출된 재단의 발전전략을 재단의 비전과 미션 달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미래지향적 장학사업 발굴·추진, 장학자원 네트워크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의 3대 전략방향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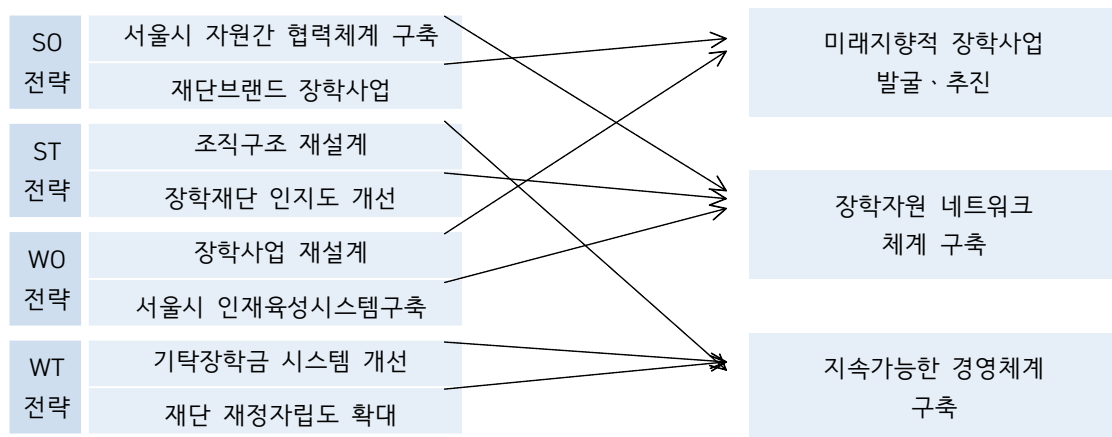


그림 53_ 서울장학재단의 비전·미션 달성을 위한 3대 전략방향

2. 비전 및 미션 체계도

서울장학재단의 비전은 <공평한 배움을 통해 미래서울을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서울시민 양성>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미션으로는 <교육격차 해소>, <서울형 핵심인재 육성>, <지속 가능한 경영시스템 구축>의 미션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러한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방향, 8대 핵심과제, 17개 세부사업 체계를 구축하였다. 미래지향적 장학사업 발굴·추진 전략으로 재단 브랜드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재설계를 핵심과제로 설정하였다. 장학자원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서울시 장학자원 네트워크 구축, 서울형 인재육성 장학사업 시행, 장학재단 인지도 개선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조직구조 재설계, 기탁장학시스템 개선, 재단 재정 자립도 확대를 핵심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림 54_ 비전, 미션 및 사업 전략 체계도

3. 전략방향별 주요사업

본 절에서는 앞절에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방향별 핵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사업별 세부 추진 사항은 장학재단의 내·외부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_1 미래지향적 장학사업 발굴·추진

재단 브랜드 장학 사업

서울인재장학금 운영

장학수혜자 및 관계자 조사 결과 ‘하이서울장학금’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하이서울장학금=경제적 빈곤층’이라는 인식 때문에 장학금 수혜자의 자부심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창의적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한편, 장학수혜 대상자 역시 다변화 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하이서울장학금의 장점은 유지하되 서울시 인재육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보다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표 장학금 체계를 변화할 필요가 있다. 즉, (신)서울인재장학금으로 발전적으로 전환하고, 재단의 브랜드 장학 사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장학 수혜자들에게는 장학재단의 충성도를 고취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미래 서울 인재상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학금 선발대상의 다양화, 분기별 장학대상 소외자들을 대상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중심으로 인지도가 높은 하이서울 장학금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현재 인지도를 강화하고, 서울의 대표적인 장학금이 될 수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그림 55_ 하이서울장학금 리프로그래밍

장학 대상별 분기별 수요 파악을 통해, 수요 맞춤형 장학사업으로 상품화를 추진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서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의, 사람들에게 의한 장학금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기존의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 대상자, 경제여건이 어려운 사람 등의 조건은 모집요강에서 강조되지 않도록 선발대상자의 조건을 다양하게 명시하고(예, 서울시의 발전에 기여한 자,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서울형 인재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 등), 크게 고등학교, 대학교 분야로 나누어 서울인재장학금을 운영한다.

서울인재장학금 고등학교 분야

현재 교사를 통한 공고 및 학교장 추천을 통한 장학지급 시스템을 개선하여, 교사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직접 신청하여 수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한다.

공고⇒ 가이드라인 제시(교사)⇒ 신청(학생, 학부모 직접)⇒ 선발⇒ 장학 수혜 및 서울인재상의교실 수강⇒ 서울인재네트워크 참여

서울인재장학금 대학교 분야

현재 국립대 기준의 장학금 지급에서 학교별 학비 수준에 맞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련 행사 및 활동에 꼭 참여하는 것을 선발조건에 추가하여 서울 거주민으로써의 자부심을 높이고, 장학금 수여 목적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고⇒ 신청(학생, 학부모 직접)⇒ 선발⇒ 장학 수혜 및 서울
인재창의교실 수강⇒ 서울인재네트워크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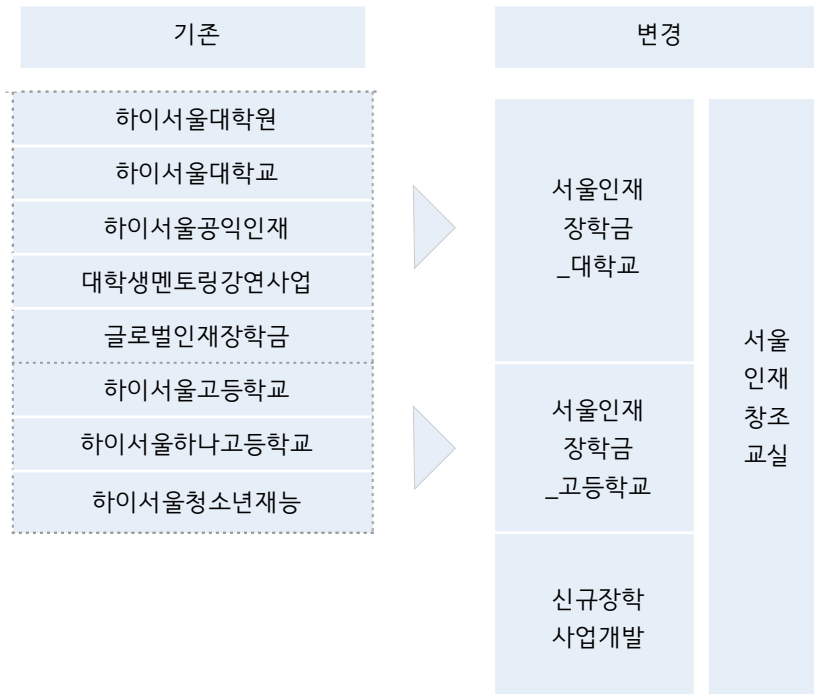


그림 56_ 서울재단 브랜드 장학사업 구상안

신규장학사업 개발

서울장학재단 고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신규장학 사업을 개발한다. 본 연구과정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장학재단 내부 상황에 맞는 특정 장학금을 발굴하여 특화시킬 수 있다.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필요 장학분야는 다음과 같다.

SOS 장학금 : 긴급구호 장학금 등

글로벌인재육성 장학금 : 어학연수 지원 등

생활지원 장학금 : 학비지원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

취업준비 장학금 : 자격 취득, 취업준비가 필요할 경우

인턴지원 장학금 : 서울시 산하기관 인턴 지원할 경우

인센티브 장학금 : 성과를 달성했거나, 봉사활동 등 활동이 우수한 경우

서울인재창조교실 운영

미래의 인재로 자라날 학생들의 사회·문화적 소양 함양을 위한 대표적인 장학 연계 프로그램으로 ‘서울인재창조교실’을 제안한다. 현재 청소년 등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및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갖추어야 할 인문학적 소양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운영한다. 이는 한 사회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기본 소양과 서울시민으로서의 소통능력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고루 갖추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장학생이 서울장학재단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했을 경우 인센티브(차기 장학금 지원 선발에 가산점 제공 등)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수혜자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그림 57_ 서울인재창조교실 구상안

문화자본 창조프로그램의 경우 단체 공연 관람 및 체험, 활동 프로그램(함께 들어요, 그려요, 즐겨요)으로 구성하며, 서울시 각종 행사 및 출연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공연, 축제, 전시관람 등 분기별 문화행사 참여 프로그램 제공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연간 정기적인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문화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해서 장학 수혜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공연이나 클래식 관람 후 아이들의 태도가 가장 많이 변한다.”

고등학교 교사 000

“배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기부여다. 동기부여에 문화예술경험의 역할이 크다”

전문가 000

사회자본 창조프로그램(사회야!)으로는 서울시민대학의 강좌와의 연계를 통한 행복한 인문학, 사회생활 규칙, 인성 개발 등 윤리교육이 근간을 이루는 바른생활 이야기, 서울시에서 필요한 핵심인력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와의 만남의 기회를 주선하는 명사간담회 등으로 구성한다. 이러한 장학사업이 담고 싶은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인문소양교육은 장학효과 고취를 위한 중요한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도 하지 않는 청소년 틈새 교육이 기초소양 교육이다”

교수 000

경제자본 창조프로그램(정치경제야!)으로는 민주시민 양성에 필수적인 정치참여 교육, 기초경제 상식 교육프로그램인 금융상식 골든벨, 장학생 벼룩시장인 장학바다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정치경제 교육 부문의 경우 사회자본 창조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기초소양교육으로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관련 강좌를 구축, 장학재단 수혜자가 꼭 받아야할 교육프로그램으로 기획한다.

서울인재창조교실은 사업초기에는 문화자본 창조교실을 운영하도록 한다. 서울문화재단 등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가장 다양하게 운영 중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운영하고, 이후 서울장학재단 내에 프로그램 기획 전담인력 등이 확충된다면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기획·운영도 가능하다. 접근이 용이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서울문화재단, 문화체육부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서울인재창조교실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후 영역을 확장해나가도록 한다.

이후 사업확대기에는 현재 금융, 정치참여 교육 등 사회경제자본 관련 프로그램은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서울장학재단의 브

랜드 장학 사업으로 개발하도록 한다. 의회, 국회 등을 활용한 정치참여 교육 및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기존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벤치마킹하여 장학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하도록 한다.

표 76_ 서울인재창조교실 프로그램 운영방안 예시

문화야!	• 함께 들어요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 함께 그려요 - 서울문화재단 예술로 희망드림 ‘꿈나무 키움’ • 함께 즐겨요 - 서울문화재단 청소년 ‘창의예술교실’	기반확충기
사회야!	• 행복한 인문학 - 서울시 시민청 시민대학 • 바른생활이야기 - 장학재단 독자 프로그램으로 개발 • 명사간담회 - 기존 멘토링 프로그램의 확대	사업확대기
정치경제야!	• 정치참여 교육 - 장학재단 독자 프로그램으로 개발 • 금융상식 골든벨 - 금융감독원 ‘금융교실’, 한국은행 ‘경제교육’ • 장학바다 - 장학생 베틀시장, 추후 꿈사계와 연계	성숙기

장학사업 재설계

장학사업 연구기획팀 운영

주요 포지셔닝 전략 중의 하나이자 조직 확대 방안의 주요 이슈가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른 장학사업의 발굴 및 기획을 위한 중요사업이다. 즉 외부환경의 변화와 요구를 항상 모니터링하며 재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될 사업이 요구된다.

현재 ‘하이서울장학금’을 제외하고 서울장학재단의 자체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사업은 대학생 멘토링 강연사업과 글로벌 인재 장학금뿐이다. 외부환경의 변화와 수요자의 요구 반영에는 한계가 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조직 인력의 제한성이다. 미래지향적인 장학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는 <장학사업 연구기획팀>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장학재단의 조직규모 확대와 필연적으로 연계된다.

<장학사업 연구기획팀>의 주요 기능은 새로운 사업 영역 발굴 및 운영 중인 사업의 과정 모니터링과 피드백, 장학 수혜자 관리 등이다. 현재 이월되는 예산을 긴급구호 장학금, 담임추천

제 활용 장학금(매년 3년 정도 남는 자금) 등 장학금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수요를 반영하는 새로운 장학사업을 발굴하는 기능 역시 필요하다.

표 77_ 장학사업 연구기획팀의 기능 및 역할

기능	신규 장학사업 발굴 및 수혜자 요구 파악
역할	신규 사업영역 발굴 및 기획
	진행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수혜자 만족도 및 장학 수요 조사

장학 토탈지원시스템 구축

배움은 평생을 걸쳐 지속된다. 즉 한 번의 장학금 수혜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에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연령별, 생애주기별 다양한 장학사업 체계를 구축하여 장학생에 대한 효과의 폭을 넓히고,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회성, 이벤트성 장학사업이 아닌 한번 등록된 장학생의 경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장학관련 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인간의 일생에서 중요한 생애주기, 즉, 대학진학, 취업, 결혼 등에 대응하는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학업, 진로, 적성, 개인상담, 자기개발 등 분야별로 생애주기에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토탈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체 사업, 기탁사업 등 기금의 주체가 아닌 수급대상별로 사업을 분류한 사업군별 전문적인 매뉴얼 구축으로 운영효율성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기금 주체에 따른 운영방식은 행정인력의 과부하를 발생시키므로 마련된 체계 내에서 기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대상별 프로그램이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분야별 전문적인 매뉴얼을 바탕으로 장학사업을 실행하게 되어 과정과 성과 모두에서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의 경우 서울인재장학금 수급시 고등학생에 최적화된 분야별 연간 커리큘럼 제시를 통한 서울인재창의교실 수

강, 서울인재네트워크 활동, 졸업 후 서울인재장학금 대학생 부문 연계 혹은 서울장학재단 서포터즈 활동 등 일련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 관리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학사업과 장학지원프로그램 전반, 부가사업 등과 연계한 재단 사업전반의 매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학토탈지원시스템은 장학수혜자의 만족도 및 충성도를 높이고, 기존 장학금별 프로그램 운영방식에서 수혜자 특성별 일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상황에 맞는 대상별 멘토링 및 코칭 프로그램(진로, 진학, 취업, 개인고충 등의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통해 주기별 수혜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한다. 또한 연계지원 및 지원 불가능한 장학수요 발생시 타 장학기관이나 서울시 산하기관 연계, 추천을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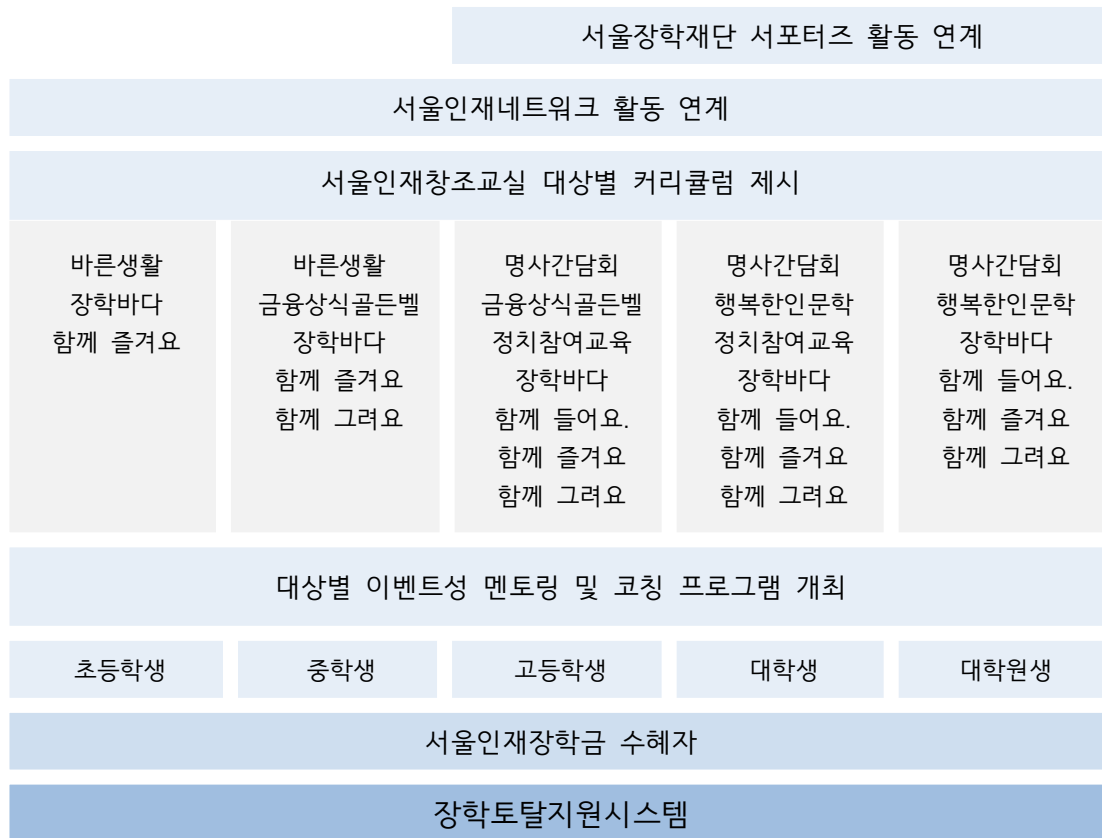


그림 58_ 장학토탈지원시스템 개념도

3_2 장학자원 네트워크 구축

서울시 장학자원 네트워크 구축

서울인재 네트워크 구축

서울장학재단의 장학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장학생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은 이미 민간 장학재단에서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안이다.

장학생 취미 동호회, 장학생 스터디 모임, 장학생 취업 준비반, 장학생 정기 총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을 웹상에 마련하여 스스로 기획하여 운영 가능한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기반으로 장학생 성격에 맞는 장학금의 추천, 장학사업별 질문방 등 다양한 경로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장학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한다. 장학사업 연계 홍보의 효과, 장학사업 설명을 위한 담당자의 업무 감소 등의 다양한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그림 59_ 서울형 인재육성 시스템 개념도

서울시 장학협의체 구성

서울장학재단이 기 확보하고 있는 기관별 장학담당관들의 네트워크 및 경영진, 이사회의 활동 영역을 전략적으로 조직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서울시 교육협력국, 서울시 교육청 및 자치구 장학기구(장학재단, 장학회 등)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정례 모임을 만드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등)

및 각종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까지 구성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장학활동 관련 이슈의 공유 및 사업 개발, 상호 협력을 위한 도모할 수 있다.

적극적인 참여주체 발굴을 위하여 서울 전체, 권역별, 자치구별 차별화된 층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단계별로 운영한다. 이후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소통과 인적, 물적 인프라의 공유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 민-민, 민-관 부문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지식, 프로그램, 기관 정보, 장학사업 정보 등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공유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과의 연계 사업, 프로그램의 공동 홍보, 장학생들의 접근 용이성 확보 및 참여율을 향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울시 자치구 장학기구의 의견 수렴 역할을 중심기능으로 하며, 지자체 장학재단 등과의 공동 행사 개최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확보한다. 장학사업 특화를 위한 공동의 아이디어 발굴 등 각종 장학활동 관련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장학재단의 역량을 강화하는 발판으로 삼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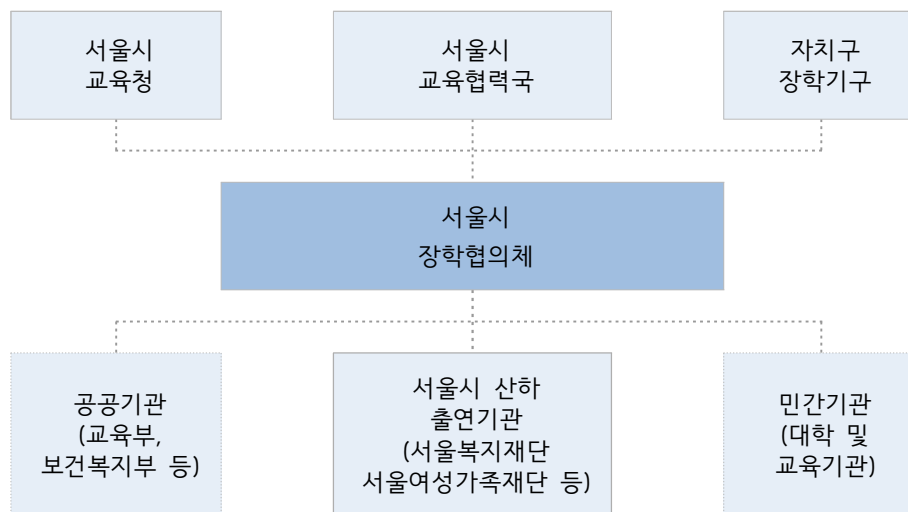


그림 60_ 장학협의체 구성안

서울장학재단 서포터즈 구축

서울장학재단 장학사업을 수혜한 적이 있는 장학생 동문과 재단의 사업을 지지하는 서울시민, 서울시의 다양한 자원 등과의 연계

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장학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그림 61_ 서울장학재단 서포터즈 개념도

장학생 동문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동문장학금, 선후배 간담회, 선배 추천 임용제 등)을 기획하여, 서울장학재단을 통해 성장한 서울의 장학생이 지속적으로 후배를 멘토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동문회 조직 담당자를 재단 내에 두어 운영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는 장학재단 이벤트, SSF 팬클럽, 재능교환클럽 등을 기획하여, 장학재단의 홍보 및 다양한 사업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SSF 팬클럽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SNS 가입자 대상의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여 지지기반을 다진다. 이후 서울장학재단 서포터즈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지기반 세력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재능교환클럽은 장학재단이 개최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여 재능을 기부한 서울시민에게 포인트를 부여, 향후 설립될 장학가계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운영한다.

서울의 자원과의 연계방안은 출연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서울시내의 다양한 자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설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청계천 꿈디딤 장학사업'이 좋은 사례이다. 이와 같은 가능사업으로 행정안전부 나눔활동 포털사이트 '나눔포털', 서울시 기부금품 모집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사안이다.

청계천 '행운의 동전', '꿈디딤 장학금'으로

청계천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던진 '행운의 동전'이 서울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쓰인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은 10일 오전 10시 공단 16층 회의실에서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과 업무협약을 맺고 '청계천 꿈디딤 장학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꿈디딤 장학금은 매년 청계천 방문객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동전을 모은 돈이다. 서울장학재단을 통해 시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쓰인다.

공단은 올해 첫 기부금으로 장학재단에 8000만원을 기부한다.

그동안 청계천 행운의 동전은 불우한 이웃돕기에 쓰였다. 국내동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난해까지 1억5700만원, 외국주화는 16만4000개를 모아 유니세프에 기증했다. 2006년 인도네시아 지진피해 당시에는 성금 10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 뉴스1, 2014년 12월 10일자

또한,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경우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한 사업이다. 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교육·문화·예술·과학 관련 정책 추진 부서 등과의 협력을 통한 '서울인재창조교실' 특정 강좌 개설 등의 지원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서울시, 홍명보장학재단 등 '2014 민관협력 우수기관' 선정

서울시는 홍명보장학재단 등 단체·기업 5개와 시민 2명을 '2014 서울시 민관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표창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시 산하 사업소, 출연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소 사업소 및 출연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기부문화에 앞장 선 개인과 단체 등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단체 중에서는 홍명보장학재단이 선정됐다. 재단은 2003년부터 매년 자선축구경기를 열고 경기마다 1000~2000명의 소아암 어린이와 소년소녀가장 등을 초청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은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시 꿈나래통장 사업에 총 1억7000만을 기부했다.

기업도 각자의 분야에서 기부문화 확산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팔을 걷고 나섰다. 특히 조아제약은 발달장애아동 중 예술적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 일대일 매칭 미술 멘토링을 지원한 공을 인정받았다.

개인 표창 수상자로 선정된 송미선 메노뮤직 대표는 매월 열어온 무료공연 '재능나눔콘서트'로, 광영빈 대원방송 대표는 모교인 시립대학교의 발전과 학내환경 개선을 위한 발전기금 지원 등으로 노고를 인정받았다.

시는 이번 표창을 통하여 민관협력에 기여한 홍명보장학재단 외 6명에게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 참고문헌: 뉴스1, 2014년 12월 29일자



그림 62_ 나눔포털 홈페이지

장학재단 인지도 개선

장학사업 마케팅 전략 수립

사례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에는 다양한 운영주체의 장학사업이 세분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서울장학재단이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매년 1,600억 원 이상의 장학금을 서울의 학생들에게 배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장학재단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장학재단 관련 보도자료는 대부분 장학생 모집관련 자료에 그친다. 사업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이 다소 소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장학재단의 사업영역이 결코 적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마케팅 팀의 설치 및 전략 수립을 통해 재단과 장학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학교를 통한 홍보 방식은 서울장학재단을 일부에게만 알렸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장학재단의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장학선발 절차 등의 과정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고, 홍보 전략의 수립을 통해 장학사업의 공공성 및 이해성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마케팅 전략은 장학재단의 기능 및 역할과 사업 영역 관련 이미지 통합을 위한 브랜드화, 서울장학재단과 재단 사업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재단 인지도 강화 및 사업 신뢰도 확대, SWOT 분석을 통해 제시된 전략부문별 마케팅 전략 수립을 통한 사업영역 확장 등의 방향으로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향후 주기적인 마케팅 조사 시행(장학수혜자 만족조사 등), 사업성과보고서(연간) 발행 등을 통해 대상별(수혜자, 기탁자) 세분화를 통한 전략을 수립하고, 장학전문 재단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도록 한다.

마케팅 활동의 부재는 장학사업 성과 축적과 소통을 소홀히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추후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떨어트릴뿐더러, 서울장학재단의 공공성 확보 및 조직의 효과적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홍보마케팅 전

략은 장학재단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이에 홍보 마케팅을 위한 전제 조건 및 계획 수립을 위한 단초의 제시를 통해 장학재단의 인지도 고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표 78_ 마케팅전략 수립방향

서울장학재단 마케팅전략 수립방향
- 장학재단의 기능 및 역할과 사업 영역 관련 이미지 통합을 위한 브랜드화 - 서울장학재단과 재단 사업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재단인지도 강화 및 사업 신뢰도 확대 - SWOT 분석을 통해 제시된 전략부문별 마케팅 전략 수립

서울장학정보시스템(SSIS) 구축

서울장학재단이 다양한 장학수혜 주체와 대상자를 엮는 플랫폼 사업이 가능한 서울장학정보시스템(Seoul Scholarship Information System)의 구축을 통해 서울시내 장학사업의 매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SSIS는 다양한 장학사업 주체들이 이를 통해 장학사업을 홍보하며, 장학수요자들이 쉽고 편하게 원하는 장학금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바탕으로 장학주체들의 홍보마케팅 비용 절감 등 경제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수혜자 중심의 장학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SSIS의 핵심이다.

부가적으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이라는 상징성과 서울의 다양한 자원을 매개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통해 자체 장학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학주체들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SSIS에 게시된 장학사업의 주체는 신뢰할만한 장학사업 주체라는 이미지(혹은 인증)의 부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한다.

장학주체와 일반 기관과의 연계 및 융복합을 통한 장학사업 시너지 창출 유도, 서울시 각종 행사, 공연, 이벤트 등과 장학사업의 연계, DAAD, Scholarshipchart, Scholarships.com 등 해외 시스템 벤치마킹 등, 장학사업을 중심으로 파생 가능한 다양한 주체와 주체간의 상호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하는 매개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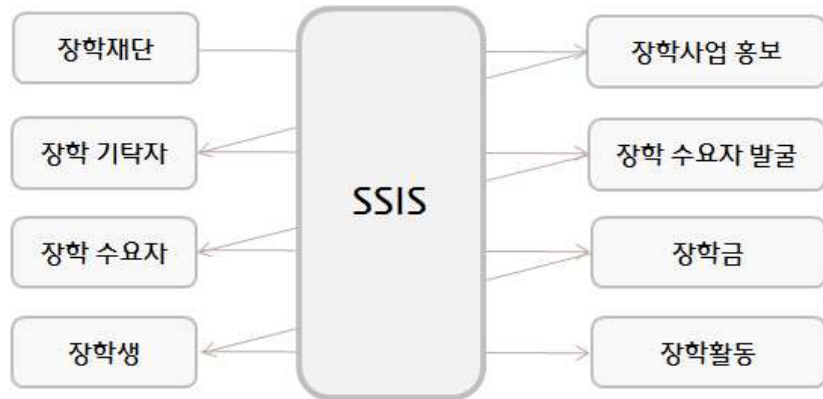


그림 63_ 서울장학정보시스템 개념도

3_3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

조직구조 재설계

조직규모의 확대와 업무 재설계

연구결과 재단 인력의 한계성이 가장 근본적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직의 점진적 확대 방안을 제시한다. 서울시 산하기관 및 기타 장학재단의 업무와 인력을 비교하였을 때, 서울장학재단은 업무 분장이 체계적이지 않은데다,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로 판단된다. 이는 업무 영역에 비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장학재단의 사업구조 분석, 다른 출연기관들의 조직구조 분석, 장학재단의 발전 과제 등에 기초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출연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도출하였다.

표 79_ 서울장학재단 조직 확대 방안

현재 사업 조직의 문제	개선방향
-인력의 한계 · 사업부서와 지원부서 업무의 혼재 · 경영시스템 부재 -사업 확장 대응력 미흡 · 대외기관 업무의 전문성 강화 필요 · 홍보체계 미흡 · 장학생 네트워킹 관리	- 인력 충원 · 부서별 업무 분담이 가능한 인력 충원 · 부서별 업무 매뉴얼 개발 - 직원 업무 분야별 전문성 강화 · 직원역량강화프로그램 마련 :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성과평가지표 마련 · 비상임 이사, 서울시 정책협력관 기능 보충을 위한 사무국장 직위 마련

현재의 사업구조와 핵심업무를 기준으로 한 최소조직안으로 2부 6팀(12명)을,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확대조직안 3부 7팀(20명)을 제안한다.

최소조직안은 사업운영부와 경영지원부로 이원화된 구상이다. 사업운영부는 사업기획팀, 장학사업 실행팀, 연계사업지원팀으로 구성, 연간사업계획 수립 및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장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경영지원부는 총무회계팀, 행정지원팀, 홍보마케팅팀으로 구성하여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각종 사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확대조직안은 전략경영부, 장학사업부, 협력사업부로 업무가 보다 분화되어 장학사업개발 및 연계사업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전략경영부는 기획팀, 홍보마케팅팀, 총무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장학재단의 전체 운영을 총괄한다. 장학사업부는 장학연구개발팀과 장학사업실행팀으로 장학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협력사업부는 장학사업지원팀, 연계사업진행팀으로 구성하여 연계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표 80_ 서울장학재단 조직재구성안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재단의 비전과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 정도를 객관적 지표로 측정·평가하여 환류시키는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재단의 비전과 실행전략을 개인의 목표와 연동시킴으로써 효과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하다(프로세스는 [부록] 참조). 성과평가의 효과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내부 직원의 의련 수렴과 피드백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직원 워크숍을 통한 지표개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기탁장학금 시스템 개선

기탁장학금 유형화

현재 서울장학재단의 기탁금 운영시스템은 기탁자의 요구에 맞춰 구성원들이 추가 업무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다. 또한 기탁금 별로 사업운영과 장학금 집행을 하다 보니 기탁장학금에 비례하여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구조이다. 이에 기탁장학사업별로 기업의 선택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요구를 반영한 장학사업 프로그래밍을 통해 운영하도록 한다.

기탁장학금은 학비지원형, 기타 장학지원형, 서울인재창조교실 지원형 등으로 유형화 하여, 기탁자의 요구에 의한 장학사업 내용의 결정이 아닌 당해에 추진 중인 장학사업내에서 기탁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학비지원형은 기탁금을 학비를 지원하는 장학사업의 기금으로 활용하는 유형이다. 서울인재장학금 000 부문 형식으로 기탁장학금을 활용하여 증서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소극적인 형태의 기탁장학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나, 가장 많은 장학수혜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여 기탁자에게 제안하도록 한다.

기타 장학지원형은 기탁금을 학비지원외 장학지원금(재능, 긴급구호, 생활비 지원 등 운영 중인 장학사업)의 기금으로 활용하는 유형이다. 현재 서울장학재단의 희망파티쉐 장학금, 푸른꿈 희망장학금 등 장학금 이름에서 해당 장학금의 특성이 드러나는 장학사업을 원할 경우 제안하도록 한다. 다만 현재 체계와 차별성

은 기탁자의 요구에 따라 장학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가운데서 선택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서울인재창조교실 지원형은 기탁금을 서울인재창조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거나, 서울인재창조교실 프로그램 자체를 지원하는 유형이다.

기탁장학금 유형화는 이처럼 기탁금을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사업 내에 편입시키는 구조로, 후원자에게 특정 메리트(장학자 대상 기업 홍보물 배포, 기업행사 참여 등의 기업 홍보 방안)를 제시하고, 재단내 사업에 기탁하여 장학사업 운영에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소극적으로는 기탁자 명시 및 수여식 참여, 적극적으로는 사회 공헌 사업에 동참하거나 기업 인턴 및 기업의 다양한 자원(광고 모델, 후기 장학졸업생 활동 등)으로 활용한다.

각 유형 외의 장학사업을 원할 경우에는 장학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주체에 기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즉 기탁자의 요구대로 장학사업을 무조건 운영하지 않을 방침을 마련하여, 기탁장학금 운영에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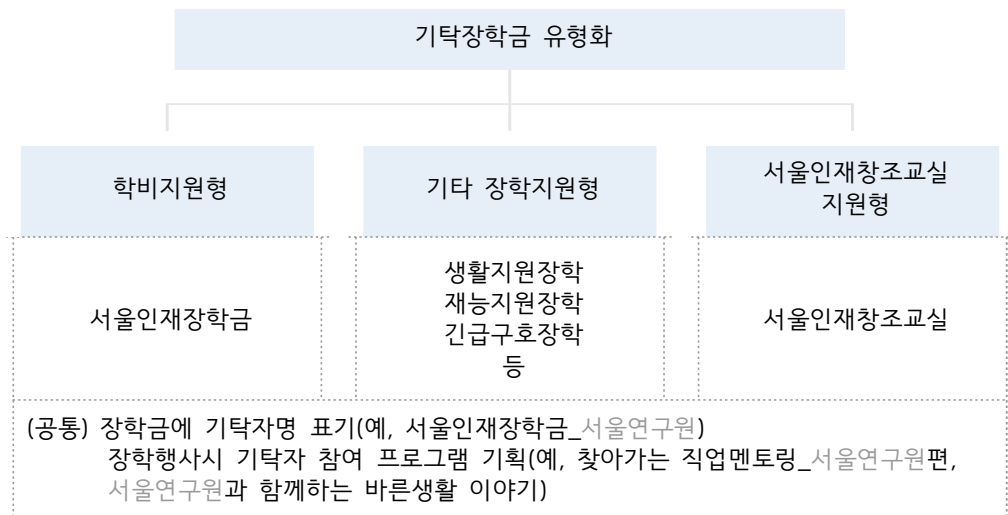


그림 64_ 기탁장학금 유형화 방안

오버헤드 규정 마련

현재 서울장학재단은 기탁장학금에 인력 투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위탁경영의 경우 10~40%의 오버헤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모이다.

이에 사업유형별, 기탁금 규모별로 오버헤드 규정을 제시한다. 장학사업 유형별(예시)로는 I형 20%, T형 10%, S형 5% 등 재단 인력 소모도에 따라 오버헤드 비중을 차등 설정한다.

또한 기탁금 규모별로 오버헤드 적용 요율표 마련을 통해 오버헤드 비중을 설정한다. 현재 서울장학재단 기탁장학금 규모별(예시)로 10억 이상 5%, 5억~10억 10%, 1억~5억 15%, 1억 이하 20% 등의 오버헤드 요율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법적관련 사항을 위해 회계 전문업체의 자문을 통한 요율 마련 필요).

재단 재정자립도 확대

장학가게 ‘(가칭)꿈사게’ 운영

장학재단의 자체 사업으로 ‘(가칭)꿈사게(꿈을 사는 가게)’ 운영을 제안한다. 장학재원 확보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해외 스칼러샵(Scholar shop)의 사례나 국내 아름다운 가게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재단에서 임대 가능한 공간 내 자체 운영한다. 꿈사게의 모든 수익금은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생 지원 및 장학생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한다.

꿈사게는 시민기부 판매점 형태로 시민들이 기부한 물품의 판매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많은 물품을 기부한 시민에게는 소득공제 및 장학문화 행사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반대로, 장학재단 서포터즈로 활동한 시민은 꿈사게에 물품 구입이 가능한 포인트 적립 또는 할인), 수익금은 전액 장학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꿈사게의 물품은 기부 물품을 포함해 시민의 재능기부 상품, 공익상품, 장학생의 기능 및 예능 상품 등을 포함한다. 운영은 일반 시민의 자원봉사나 장학생들의 봉사활동으로 한다. 시민의 자원봉사는 물품이나 금전기부와는 다른 또 다른 형태의 기부이고, 장학

생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 일반 기업의 사회적 활동과 연계해 기부물품 경매, 자선바자회, 벼룩시장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학생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꿈사게의 운영은 일반인들에게 서울장학재단의 존재와 역할을 소개하는 매개가 되고, 기부의 매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꿈사게의 마케팅 방향은 점차 오프라인 매장을 늘려 서울시 전역으로의 확대를 목표로 초기 옴니채널(Omni-Channel) 형태를 제안한다. 즉, 오프라인매장, 온라인, 모바일 등 활용가능한 모든 경로를 융합해 하나의 매장처럼 언제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는 쇼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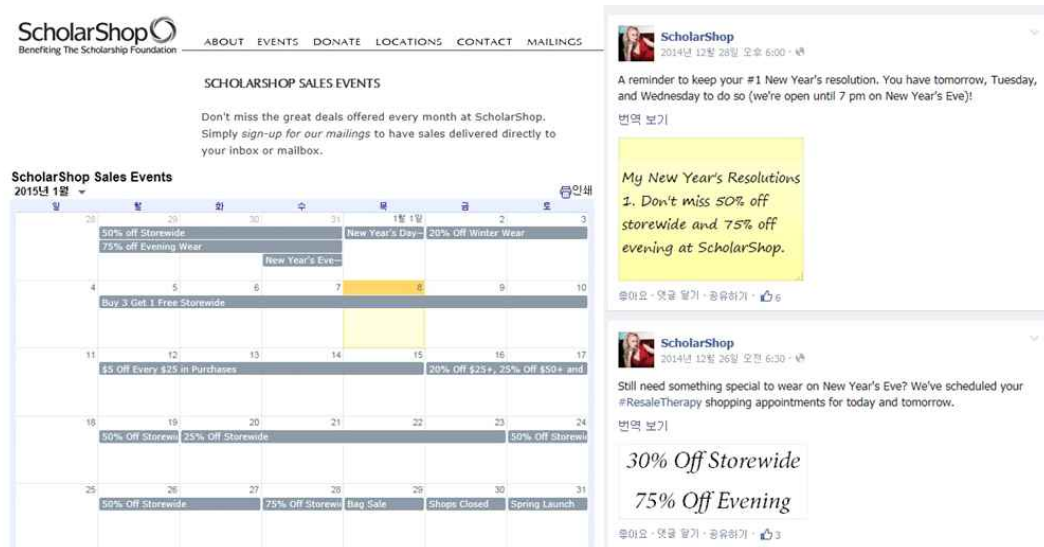


그림 65_ 스칼러 샵 오프라인 이벤트 일정 및 SNS

이대 명물 '중고품 가게'...수익은 장학금으로

이화여대 생활환경관 이화인의 나눔가게에는 의류에서 신발, 책, 전자제품까지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다. 지난 2011년 5월 개교 125주년을 맞아 문을 연 매장은 학생이나 직원, 동문이 보내오는 중고품을 저렴하게 판매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있다. 사회과학부 1학년 정모(19)양은 29일 "중고품이라고 해도 품질이 좋고 진열도 깔끔해 자주 찾는다"며 "전혀 모르는 이가 아니라 동문이 쓰다 내놓은 것이라 믿을 수 있고 취향도 어느 정도 비슷해 다른 중고 매장보다 고르기 편하다"고 말했다.

카페를 연상시키는 듯한 나눔터 실내 디자인은 디자인학부 최경실 교수가 재능 기부했다. 자원봉사 학생과 퇴직 직원 등이 물품 정리와 매장 관리를 맡아 사실상 인건비가 들지 않는다. 학교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운영하는 매장이다. 물품은 주로 학교 곳곳에 마련된 수거함을 통해 기증받는데 기증자들이 직접 들고 오거나 택배로 부쳐오는 물건도 적지 않다.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동문이 새 옷을 대량으로 기증하거나 학생들이 직접 만든 팔찌와 귀고리 등도 눈에 띈다. 품목이 다양해 물건 고르는 재미도 쏠쏠하다. 운이 좋으면 교수들의 손때가 묻은 귀중한 소장품도 손에 넣을 수 있다.

특히 아시아-아프리카 등지에서 온 해외 유학생들이 주요 고객이라고 매장 관계자가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아프리카 학생들이 매장에서 산 옷으로 겨울을 지내다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 다시 옷을 기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전액 장학사업과 나눔사업에 쓰인다. 33㎡ 남짓한 이 공간에서 지난 2년간 올린 매출은 총 1억4천만원. 이 돈은 지금까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24명에게 장학금으로 돌아갔다. 재고품과 수익 일부는 제3세계 국가에 기부된다.

※ 참고문헌: 연합뉴스, 2013년 4월 29일자 발췌

장학 포인트제 도입

서울시의 각종 행사 및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한 장학기금을 조성하도록 한다.

초기에는 '함께 서울시민을 육성', '나와 너는 우리' 등의 캠페인 활동을 통해 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이후 다양한 포인트의 기부 참여를 확산하여 장학기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연계하도록 한다.

포인트 장학금이란 다양한 물품 구매에 적립되는 포인트 카드 발급을 통해 포인트를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체계를 의미한다(미국의 Upromise 사례 참조). 대기업의 포인트 카드와 연동하는 방법이나(OK 캐쉬백, GS 포인트 등), SSF 포인트 카드 발행을 통해

시민에게는 기부금 혜택을, 장학금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장학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 기업의 포인트를 장학금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장학생이 다양한 장학재단의 행사에 참여했을 경우,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한 경우에도 포인트를 부여하여 인센티브 장학금의 혜택을 받거나, 다른 장학생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장학포인트제를 도입한다.

한세대학교는 'Hansei Achievement Scholarship' 라는 포인트 장학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외국어, 글로벌 멘토링, 해외사회봉사, 기초역량, 성적향상, 취업, 창업, 자격증, 동행멘토링, 한세멘토링, 국내 사회봉사, 헌혈 등에 해당되는 활동성도가 인정되면 포인트당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구한의대학교 역시 2012년부터 장학 포인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년 이내 500포인트 이상을 모아야 장학금으로 전환되며, 500포인트는 50만원에 해당한다. 포인트는 체(體), 인(仁), 지(知), 업(業) 4분야에 해당하는 활동을 통해 모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용인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수성대학교 등이 유사한 장학 포인트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Upromise is a simple, yet powerful idea.

Join today & turn everyday spending into college savings.

Over a decade ago, Upromise was launched based on the philosophy that everyone should be able to afford a college education. Today, with millions of members, Upromise is helping make that a reality for many Americans. For more information about what Upromise is all about, check out our [YouTube channel](#).

Simple Idea:

- Create a college savings service that harnesses the purchasing power of parents, extended family, family, and students to make it easier to pay for college.
- Members direct their spending to Upromise partners—including **more than 850+ (or over 850) online stores, 10,000+ restaurants, grocery and drugstore items**—and earn money for college.

Powerful Results:

- Everyone can earn money for college—parents with young children; family and friends who want to contribute; students and graduates with eligible student loans to pay.
- Members have earned \$850,000,000 and counting for college with their everyday spending, and it is helping more families use those earnings to contribute toward college tuition, expenses or loans—quicker and easier.

그림 66_ Upromise.com 홈페이지 사업 안내

김제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장학재단에 기부

전북 김제시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중 기부를 희망하는 313명의 인센티브 259만원을 김제사랑장학재단에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도는 가정에서 전기와 수도량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시민참여 감축실천 프로그램으로 현재 9108세대가 참여 하고 있다.

이중 2578세대가 전기 66만kwh, 수도 610㎥를 절감했으며, 이는 온실가스 유발물질인 이산화탄소 29톤으로 어린 소나무 1만여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

김제시는 2009년부터 시행된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15억여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이중 28%인 4181만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해 에너지 절약을 통한 녹색나눔 사랑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이건식 김제사랑 장학재단 이사장은 "에너지 절약을 통해 받은 인센티브를 기부해준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부금은 김제시에서 자라고 배우는 학생을 위해 뜻 깊게 쓰겠다"고 전했다.

김제시는 내년 1만1000세대 가입 목표로 지속적으로 탄소포인트제 신청을 받고 있다.

※ 참고문헌: 뉴스1, 2014년 12월 29일자

고정자산 확보

부동산의 임대료 수익, 채권발행, 발간물 수익 등을 통해 고정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앞서 제안한 오버헤드 규정 마련을 통한 기본재산 확보 및 장학가게, 장학 포인트제 도입 등을 통해 장학재단 경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자산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 단계별 추진 계획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야별 사업제안을 바탕으로 총 3단계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기반확충기, 사업확대기, 성숙기로 제안한다.

기반확충기는 현재 서울장학재단의 조직 및 사업구조를 정비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 브랜드장학사업을 도입·실행하는 시기이다. 재단의 시급한 과제 해결 및 사업확장을 위한 기반 조성의 시기로, 현재 조직 및 사업영역의 진단을 바탕으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확대기는 서울장학재단 장학사업 주체 및 수혜자간의 네트워크(서울시장학협의체 및 서울인재 네트워크, 장학재단 서포터즈 등)를 확장하고, 사업영역의 다각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서울장학재단 인지도 상승기이다. 이 시기는 전략적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장학재단의 미래지향적 인재발굴 이미지를 구축하는 시기로 삼는다.

성숙기는 새로 추진된 장학사업 들의 정착기로 서울장학재단의 브랜드가 자리 잡는 시기이다. 서울인재네트워크 및 장학재단 서포터즈의 활동영역 확대에 따른 서울형 창의인재 자원간 선순환 기반 강화, 기본재산 확대 및 고정자산사업 활성화에 따른 재정적 독립을 통한 사업 안정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단계별 추진계획 내에서 사업 매력도, 전략적 중요도 매트릭스를 기초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순차적으로 구상·실현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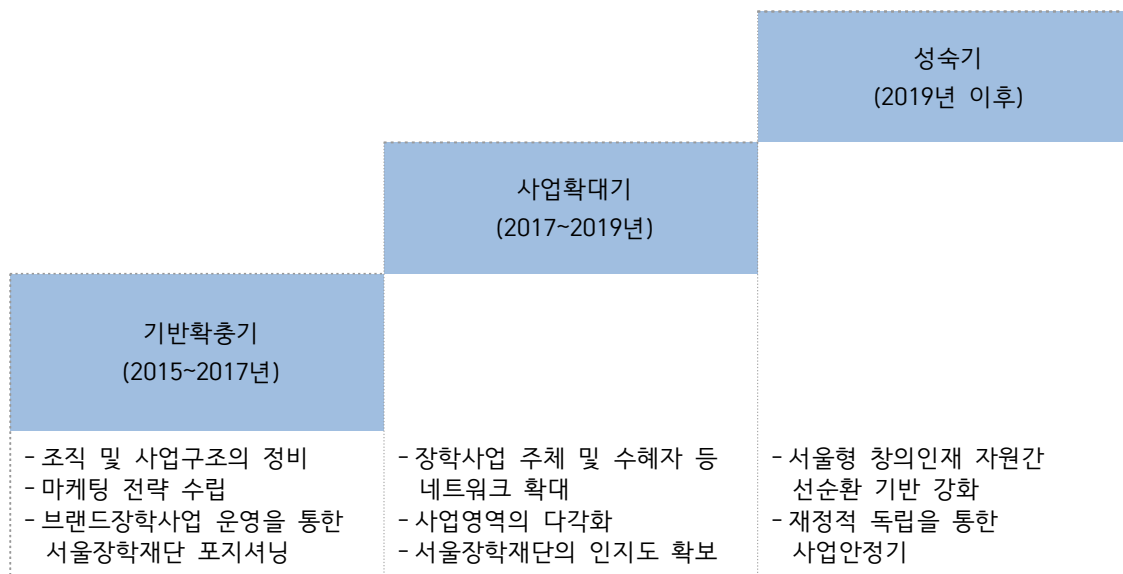


그림 67_ 서울장학재단 중장기 발전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5. 정책제언

본 연구는 서울장학재단의 내·외부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재단의 비전과 미션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방향을 설정하였다. 비전과 미선수립을 위해 서울장학재단 사업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이해자 및 관계자 의견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다. 서울의 핵심인재를 육성하여 서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도출하고, 그에 따라 비전 ‘공평한 배움을 통해 미래 서울을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서울 시민 양성’ 과 미션 ‘배움의 기획 확대’, ‘서울형 핵심인재 육성’, ‘장학사업의 오픈리더’를 수립하였다.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장학재단의 전략방향과 그 핵심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지향적인 장학사업을 발굴한다. 재단의 브랜드 장학사업으로 서울인재장학금, 서울인재창조교실의 운영을, 장학사업재설계 방안으로 장학사업 연구기획팀 운영 및 토달지원시스템의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장학자원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 장학자원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서울인재네트워크, 서울시 장학협의체, 서울 장학서포터즈 등의 구축을, 장학재단 인지도 개선을 위해 마케팅 전략 수립, 서울장학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셋째,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한다. 조직구조 재설계를 위해 조직 확대안과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기탁장학금 시스템 개선을 위해 기탁장학금 유형화 방안과 오버헤드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재단 재정자립도 확대를 위해 장학가게 운영, 장학포인트제 도입, 고정자산 확보방안 모색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사업별 세부 사업계획은 장학재단의 내·외부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의 수립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기반확충기, 사업확대기, 성숙기 각각의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 수행가능 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를 현실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시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다음 사안이 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서울장학재단 조례의 개정이다. 지금의 학비지원 사업에만 국한된 현재 조례를 장학대상 및 사업영역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이 가능한 포괄규정의 삽입 등의 방식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학사업 운영 조직의 확대이다. 본 연구결과 현재의 사업 구조와 핵심 업무를 기준으로 최소 2부 6개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이사장(비상근)과 사무국장(서울시 파견직)하에 5명의 인원이 모든 업무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

셋째, 서울장학재단 브랜드 강화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장학수혜자들로부터의 인지도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다 공격적인 홍보·마케팅 활동을 통해 서울장학재단과 재단의 사업을 알려야 할 것이다. 새로 제안한 비전과 미션을 기반으로, 다양한 방식의 채널을 통한 재단 및 사업의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현 사업영역의 개선 혹은 연구에서 제안한 브랜드 장학사업을 추진 등을 통해 서울장학재단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13). 국가장학금 사업 기본계획 수정(안).
기획재정부(2014).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강소형기관.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2007). 재단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삼성꿈장학재단(2013). 2013 연간보고서.
삼성꿈장학재단(2014). 2014 브로슈어.
서울디자인재단(2014). 2014년도 서울디자인재단 예산 및 사업계획.
서울산업진흥원(2014). 2014 예산 총괄.
서울세종문화회관(2014). 2014 예산안.
서울연구원(2013). 서울 교육복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
서울의료원(2014). 예산서.
서울특별시교육청(2013). 서울교육통계연보.
서울특별시교육청(2014). 2014 서울교육가족 교육기부단 활동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2014). 2014 주요업무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2014). 『서울교육 방향』과 해설(안).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2014). 2014년 주요사업계획안.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2014). 2014년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예산.
장석영(2014).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현황 및 향후 방향. 미래창조과학부 정책해설.
한국교육개발원(2012). 국가장학금사업의 성과 분석.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한국의 교육지표.
통계청(2014). 가계지출동향.

강서구장학회. <http://janghak.gangseo.seoul.kr>
금천미래장학회. www.gcmirae.or.kr
노원교육복지재단. www.newf.or.kr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www.mapojh.or.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삼성꿈장학재단. <http://www.sdream.or.kr>
서울특별시교육청. <http://www.sen.go.kr>
서울장학재단. <http://www.hissf.or.kr>
서초다산장학재단. www.seochodasan.or.kr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http://janghak.songpa.go.kr>
은평구민장학재단. www.epjh.or.kr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부록.

부록 1_ 성과관리체계 구축 프로세스

부록 2_ 장학수혜자 대상 설문지

부록 3_ 장학담당자 대상 설문지

부록 1_ 성과관리체계 구축 프로세스

1. 성과관리의 이해

□ 개념

-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는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 정도를 객관적 지표로 측정 평가하여 환류 시키는 결과 중심의 관리방식
- 조직의 비전 또는 전략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직의 성과와 개인의 성과를 평가지표를 통해 체계적으로 집계, 관리, 환류(feedback)하는 일련의 과정
- 성과 중심의 조직운동을 위해서는 성과관리 전담부서, 평가자, 평가대상자의 노력과 시간의 투자가 필요

<성과 관리.평가 이유>

-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
- 성과관리는 조직의 전략과 기관장의 기대를 조직 내에 소통시키는 역할을 수행
- 조직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
- 조직목표와 개인목표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음
- 평가를 통해 공정한 보상과 직원들의 개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범위

구분	정의	세부내용
성과관리 (BSC)	조직의 존재이유.방향 비전.전략목표 수립 목표 측정 도구 개발	◦ 미션 및 비전 설정 ◦ 전략목표 및 과제별 성과물 기간 설정 ◦ 전략계획(자원의 확보와 투입 수행계획) 수립 ◦ 목표달성 측정지표 개발
성과평가	직무 수행 평가	◦ 대외 경영실적 평가 ◦ 부서 평가 ◦ 개인평가(임원, 직원)

□ BSC(Balanced Scorecard, 균형성과관리)

-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으로 전략체계를 구성하고, ① 재무 관점(finance) ② 고객관점(Customer Value) ③ 프로세스관점(Process) ④ 학습과 성장관점(People Development) 등에 의하여 장기.단기, 원인.결과, 외부.내부 등을 균형 있게 관리가능하도록 하는 성과모형

- BSC의 기본 4가지 관점

- ① 재무관점(finance): 기업의 수익과 성장, 주주의 가치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 ② 고객관점(Customer Value): 어떻게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 ③ 프로세스관점(Process): 어떻게 업무 프로세스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가
- ④ 학습과 성장관점(People Development): 어떻게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킬 것인가



그림 68_ BSC의 기본 관점

- CSF: Critical Success Factor, 핵심성공요소

- 조직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주요 성과부분

-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평가지표

- 목표달성도를 측정하는 지표/지수: 조직의 목표를 반영하여야 함
- 조직의 CSF를 반영하는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지표

2. 서울장학재단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프로세스(안)

1) 성과관리시스템

□ 전략실행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효과

- 단계적, 체계적 프로세스 구축으로 서울장학재단의 비전 및 전략 달성을 위한 전략집중형 조직 구현
- 주요 경영목표 달성
- 전사 목표와 부서 및 개인단위의 목표를 일치시킴으로서 효과적인 성과관리체계 구현

- 체계

- 전략개발 → 조직정렬 → 운영기획 및 실행 → 평가 및 모니터링 → 검증·학습 → 전략 업데이트의 순환적 구조
- 환경 변화 및 직원의견 등에 따라 변화를 수용하는 유기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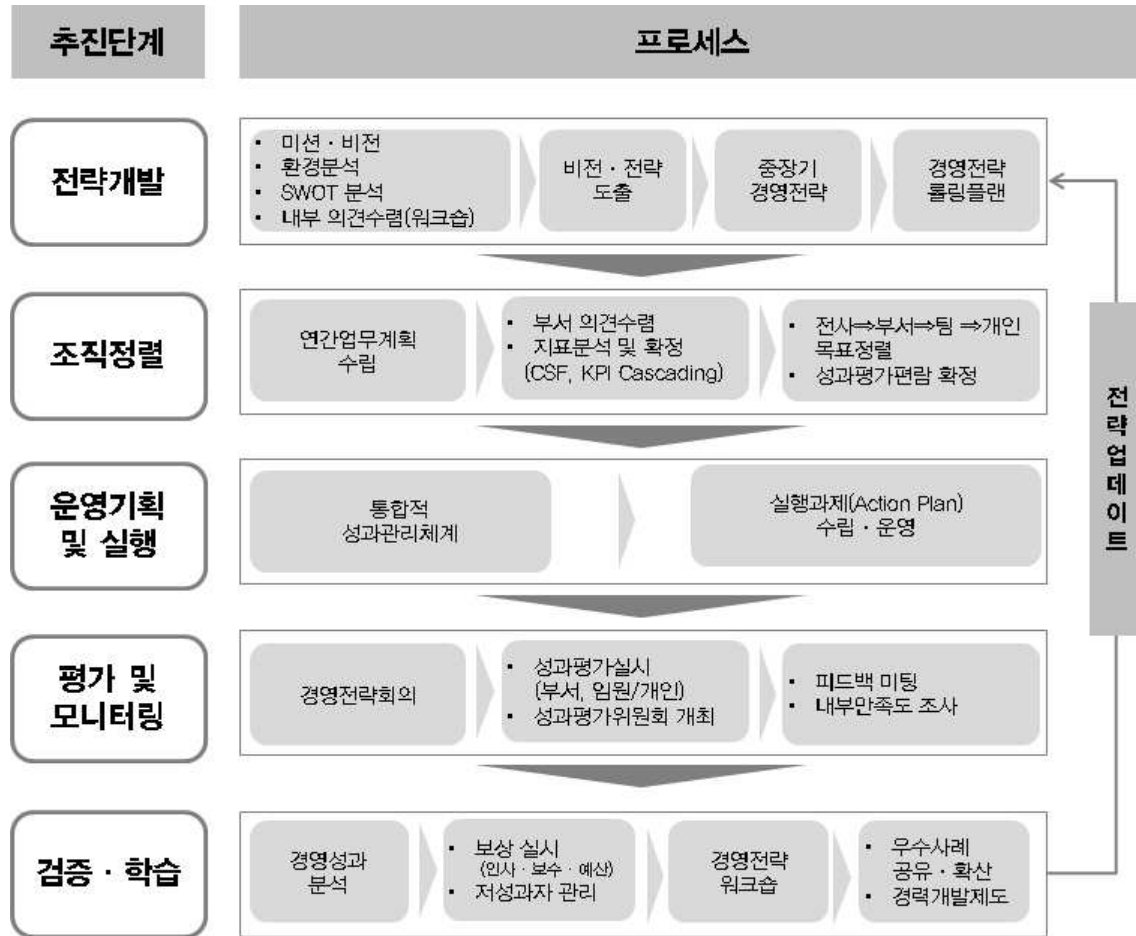


그림 69_ 전략실행 프로세스

□ 경영전략 수립

- 효과

- 예산, 재무, 인력, 경영혁신 추진 등 각종 세부 경영계획 수립의 근거

- 체계

- 서울시, 학생 등 이해관계자의 Needs와 내부역량, 외부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전략 수립
- 직원 및 고객 의견과 기관장 경영이념 등을 반영하고 외부자문 실시
- 경영전략 체계화: 비전 및 핵심가치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 목표 및 전략과제를 Casca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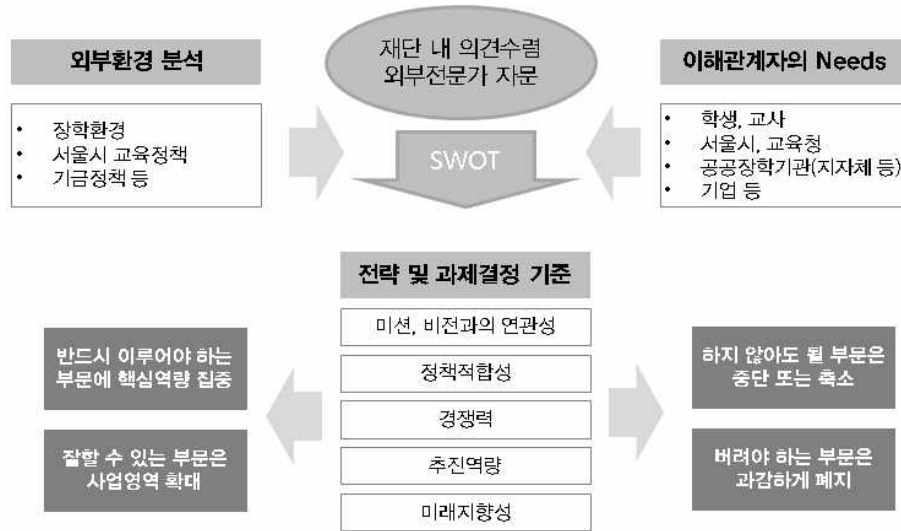


그림 70_ 경영전략 수립과정

□ 경영목표와 평가지표의 전략적 설계

- 효과
 - 비전의 실행력 제고
- 체계
 - BSC 관점의 전략적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전략목표, CSF, KPI의 전개(Cascading) 및 정렬(Alignment) 강화
 - 전사적 CSF 및 KPI와 부서(팀), 개인의 CSF 및 KPI 연계성 강화를 통해 경영목표의 효과적 달성
 - 평가대상 단위조직의 의견수렴 및 피드백 등을 통한 지표의 수용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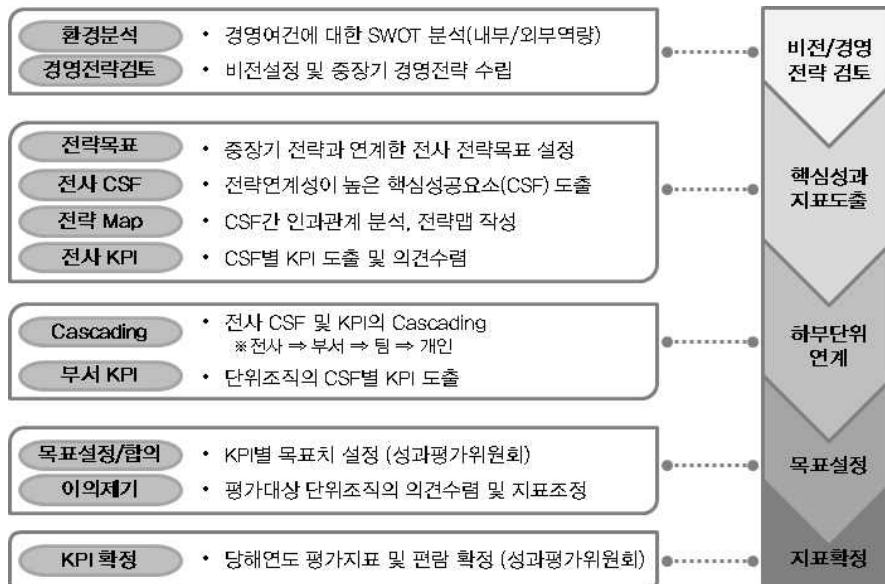


그림 71_ 경영목표와 평가지표의 전략적 설계 프로세스

2) 근무성적 평가제도 Framework

□ 목적

- 재단의 전략 목표와 개인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보상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재단의 전반적인 전략실행능력을 극대화하고, 조직의 장기적인 발전 관점에서 역량 강화
- 개인근무성적 평가를 조직의 성과와 연계된 전략목표 및 고유업무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는 업적평가와 원활한 업무수행 및 목표달성에 요구되는 역량평가로 구성

□ 평가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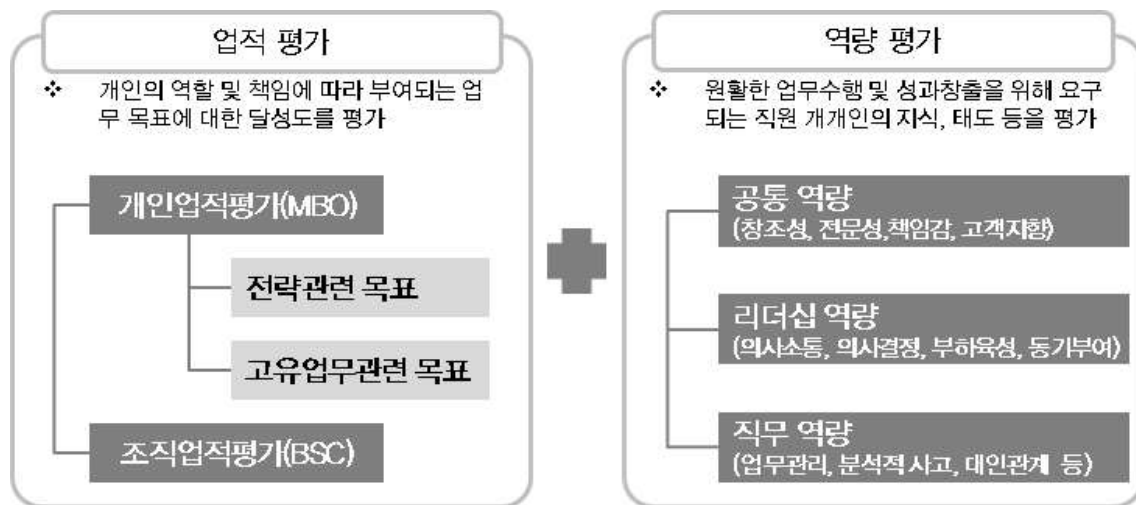


그림 72_ 근무성적 평가요소

【업적평가 : 개인업적평가 + 조직업적평가】

- 개인업적평가는 개인의 역할 및 책임에 따라 MBO 방식에 의하여 개인별 KPI를 설정한 후, 수행실적을 평가
 - 개인별 KPI는 목표 Cascading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
 - 1차 평가자와 피평가자간 면담을 통해 개인별 목표 수립 검토 및 합의
- 조직업적평가(BSC)는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반영

※ MBO 방식

- ① 직원은 차기년도에 달성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상사와 협의하여 목표 확정
- ② 직원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업무 수행
- ③ 수행한 업무에 대한 달성도를 직원 스스로 1차 평가, 상사가 이를 2차 평가

【역량평가 : 공통역량 + 리더십역량 + 직무역량】

- 재단의 비전 및 미션 달성에 요구되는 능력에 대한 평가로, 핵심가치의 공유를 위한 공통역량, 리더십역량, 개별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직무역량으로 구분

표 81_ 역량평가의 구분별 의미와 평가항목

	의미	평가 대상	평가항목
공통 역량	재단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 및 업무에 임하는 자세	전 직원	창조성: 원칙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 방법 등을 개발/소개하는 태도 전문성: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는 능력 책임감: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태도 고객지향: 고객의 기대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
리더십 역량	조직관리 책임이 있는 인력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부서장 팀장	의사소통: 상대의 의사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능력 의사결정: 문제의 본질 이해를 통해 신속/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 부하육성: 직원의 장기적인 육성을 활성화시키려는 태도 및 능력 동기부여: 부하직원의 능력을 고려해 목표를 부여하고 성과창출을 위해 부하직원을 칭찬하고 독려하는 태도
직무 역량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차별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및 태도	팀원	업무관리, 분석적 사고, 경영환경 이해, 대인관계 능력 등

□ 평가 대상별 세부 평가요소

- 부서장·팀장

- (업적평가) 조직성과 극대화를 위해 조직성과평가(BSC평가) 결과를 준용하여 전사 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
- (역량평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직무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직무역량은 평가하지 않고, 관리자로서 리더십역량 위주로 평가

- 직원

- (업적평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조직목표와 연계된 MBO 방식 위주로 평가하되, 조직성과를 일부 반영
- (역량평가) 리더십역량 평가는 배제하고 직무역량 위주로 평가

- 서무직

- (업적평가) 정형화되고 단순·반복적인 업무 특성상 전사적 차원의 전략과 연계성이 낮으므로 '자기신고제' 방식으로 평가
- (역량평가) 리더십역량 평가는 배제하고 직무역량 위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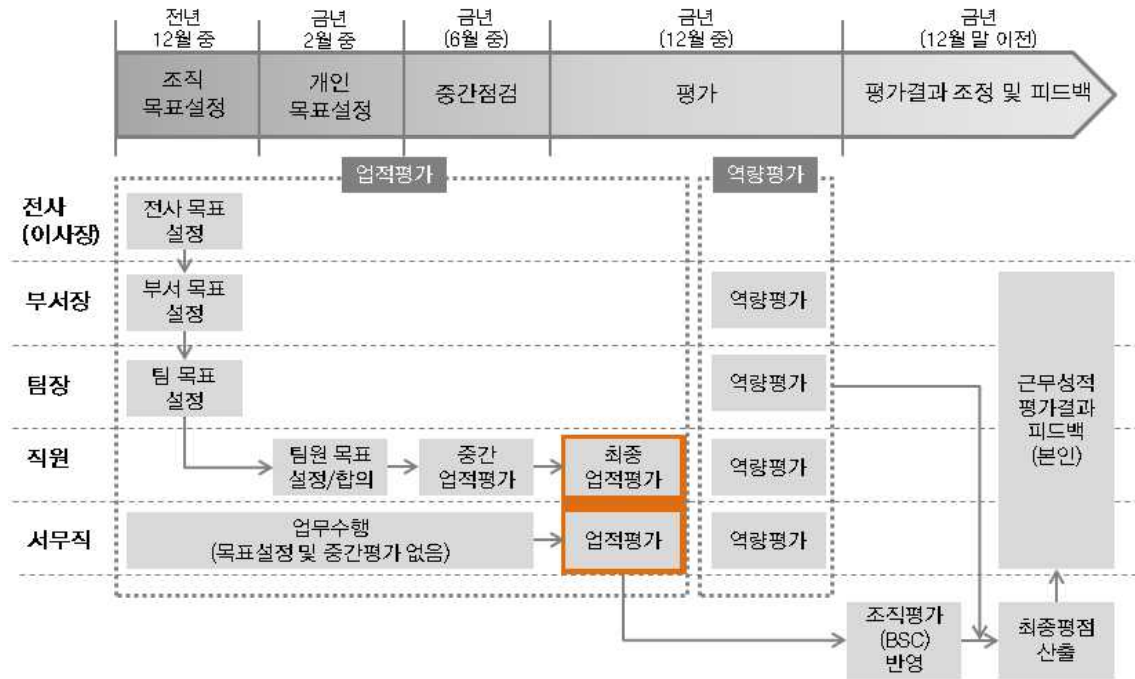


그림 73_ 평가 프로세스(예시)

□ 평가결과의 활용

- 단기적인 업무성과뿐만 아니라 조직의 장기적 발전 관점에서 평가결과를 활용
- 보상(기본급, 성과급), 승진, 이동, 교육 등에 반영
- 평가결과에 따라 기본급 및 성과급을 차등지급
- 개인의 역량평가 결과 부족한 역량에 대해서는 교육을 병행하며, 직무별 요구역량에 부합하는 정도를 판단하여 이동, 배치의 근거자료로 활용
- <그림 71> 평가 Framework를 참고하되, 재단의 경영환경 고려 및 내부직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평가프로세스 및 배점 등을 조정하여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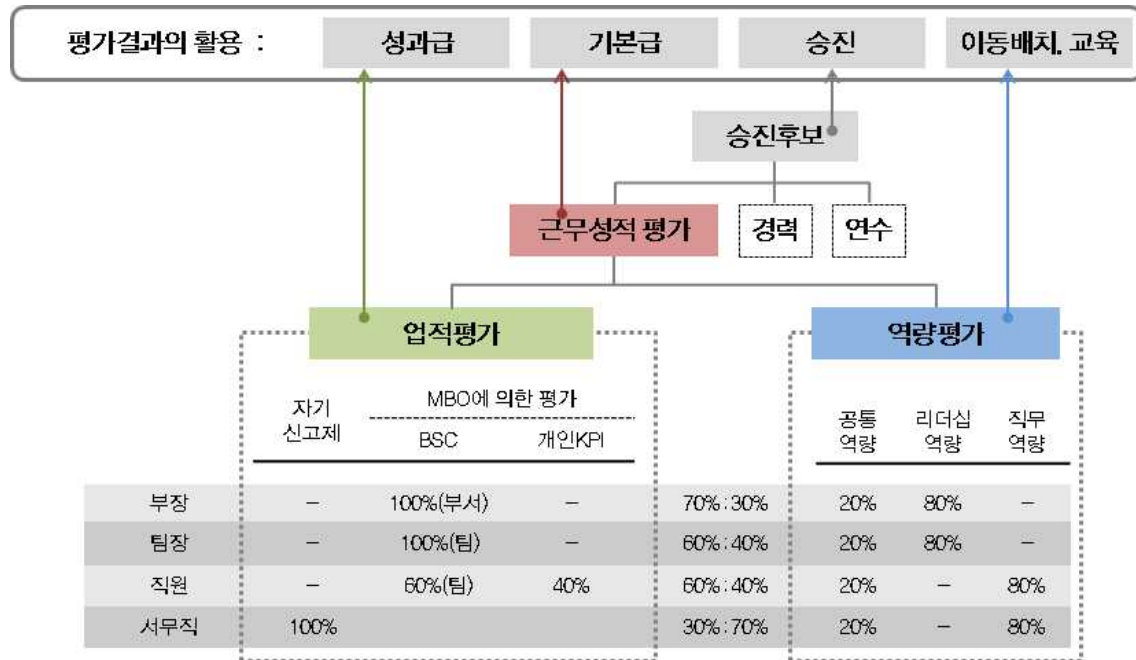


그림 74_ 평가 Framework(예시)

※ 배분 비율은 재단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되, 상급자로 갈수록 업적증가 및 BSC의 반영 비중이 높고, 하급자로 갈수록 역량평가의 비중이 높게 설계함.

부록 2_ 장학수혜자 만족도 조사 설문지

서울장학재단 장학 수혜자 만족도 조사

본 조사는 서울장학재단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답변하신 내용은 본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분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김소은(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2149-1238)

조사기관: 서울장학재단 및 서울연구원 공동 진행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1. 다음은 인구통계처리를 위한 사안입니다.

성 별	① 남 ② 여
연 령 대	① 고등학생 ② 대학생
장학수혜년도	-----년 ~ -----년
수혜 장학금 명칭	① 하이서울 장학금(고등학교) ② 하이서울 장학금(청소년 재능분야) ③ 앱손글로벌 장학생 ④ 하이서울 장학금(대학교) ⑤ 하이서울 장학금(공익인재분야) ⑥ H 점프스쿨 장학금 ⑦ 청춘스타트 장학금 ⑧ 기타(직접기입-----)

2.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나요?

- ① 선생님으로부터
- ② 학교내 게시판 공지나 공고문
- ③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
- ④ 아는 사람의 추천
- ⑤ 신문, 브로슈어 등 홍보자료
- ⑥ 기타()

3. 장학금을 지급받는 동안 서울장학재단에서 개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 ① 예(3-1번으로)
- ② 아니오(3-4번으로)

3-1.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지급 받는 동안 참여했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모두 골라주세요.)

- ① 증서수여식 ② 멘토링 프로그램 ③ 장학생 프로젝트
④ 장학수기 작성 ⑤ 강연/특강 프로그램 ⑥ 봉사활동
⑦ 해외봉사/탐방 ⑧ 기부자와의 만남 ⑨ 기타(자세히)

3-2. 서울장학재단에서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좋았던 순서대로 3가지 골라주세요.)

- ① 증서수여식 ② 멘토링 프로그램 ③ 장학생 프로젝트
④ 장학수기 작성 ⑤ 강연/특강 프로그램 ⑥ 봉사활동
⑦ 해외봉사/탐방 ⑧ 기부자와의 만남 기타 ⑨ 기타(자세히)

3-3.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받는 동안 재단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웠습니까?

- ① 매우 아니다 ② 아니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3-4 서울장학재단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시간이 없어서 ② 관심이 없어서
③ 장학생인걸 알리고 싶지 않아서 ④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⑤ 혼자가기 부끄러워서 ⑥ 몰라서
⑦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렇다면 원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자세히 써주세요.)

4. 서울장학재단에 바라는 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 맞는 장학금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2	보다 다양한 장학금이 있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3	학습, 체험, 봉사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4	진로, 적성, 직업 등과 관련한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5	장학금이 학교나 선생님을 통하지 않고, 부모님이나 학생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5. 서울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장학금과 관련한 부분에 관한 문항입니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비지원만으로도 충분했다.	①	②	③	④
2	학비지원 이외의 경제적인 지원(생활비, 학습보조비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3	수혜기간이 보다 길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4	기타 (자세히 적어주세요.)	①	②	③	④

5-1. 서울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장학금과 관련하여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면 써주세요.

6. 다음은 장학재단에서 장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시해주세요.

		매우 별로이다	별로이다	마음에든다	매우 마음에든다
1	강연	①	②	③	④
2	멘토링(진로, 상담 등)	①	②	③	④
3	장학증서 수여식	①	②	③	④
4	장학생 MT	①	②	③	④
5	장학생 봉사활동	①	②	③	④
6	정기적인 장학생 커뮤니티 활동	①	②	③	④
7	기부자와의 만남	①	②	③	④
8	장학생을 위한 문화활동(영화, 공연 등 관람)	①	②	③	④
9	기타				

6-1. 서울장학재단에서 장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면 써주세요.

7.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관련 만족도와 관련한 설문입니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은 학교를 다니기 위해 매우 필요했다.	①	②	③	④
2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을 받은 것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3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이 없었더라면, 나는 학교를 그만두었을 것(휴학 또는 자퇴)이다.	①	②	③	④
4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이 매우 고마웠다.	①	②	③	④
5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을 받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①	②	③	④
6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추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7	기회가 된다면 서울장학재단의 장학 졸업생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8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서울시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①	②	③	④
9	나도 나중에 필요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다.	①	②	③	④

부록 3_ 장학 담당자 대상 설문지

서울장학재단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장학담당자 조사

본 조사는 서울장학재단의 중장기발전방향 수립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은 본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응답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오직 본 연구와 관련하여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응답해주신 분께는 문화상품권(2만원)을 보내드립니다.

본 조사지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 : 백선희(서울연구원 연구위원, 2149-1294, seonbaik@si.re.kr)

연구담당 : 김소은(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 2149-1283, kseun@si.re.kr)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1. 다음은 인구통계처리를 위한 사안입니다.

성 별	① 남	② 여		
연 령 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소 속	① 고등학교	② 대학	③ 연구기관	④ 장학기관
	⑤ 기타(직접기입-----)			

2. 다음은 서울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사업입니다.

알고계신 모두 장학금을 골라주세요.

자 체	① 하이서울 장학금 고등학교 분야	② 하이서울 장학금 대학분야	
	③ 하이서울 장학금 청소년 재능분야	④ 하이서울 장학금 공익인재 분야	
	⑤ 하이서울 장학금 하나고 분야	⑥ 하이서울 장학금 대학원분야	
기 탁	① 우리아이 희망	② 푸른꿈 희망	③ 희망파티쉐
	④ Citi-KOSBI 여성CEO	⑤ 청춘 Start	⑥ 꿈나무
	⑦ 소나무	⑧ H-Jump 스쿨	⑨ 유명아 학업
	⑩ Epson 글로벌 리더		

2-1. 0000000 장학금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임	만족함	매우 만족함

2-2. 0000000 장학금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중요함	매우 중요함

2-3. 0000000 장학금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2-4 (하이서울 장학금 고등학교 분야를 선택한 응답자에게만 노출되는 문항) 하이서울장학금 고등학교 분야의 경우 장학수혜 대상자라는 걸 밝히기 꺼린다는 의견이 다수 수렴되었습니다. 본 장학금과 관련하여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다음은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수혜 방식과 지급대상 등에 관한 기술입니다.
각각을 평가해주세요.

		매우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하이서울장학금의 학교 행정실을 통한 학비지원 방식은 바람직하다.	①	②	③	④
2	장학금이 학교나 선생님을 통하지 않고, 부모님이나 학생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학비지원 이외의 경제적인 지원(급식비 등)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4	재능개발비, 활동비 등 다른 형태의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5	장학 수혜기간이 분기, 연단위 보다는 최소 2년 정도로 길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6	다양한 장학금을 쉽게 검색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기 타	그 외의 장학(금) 수혜방식이나 지급대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4. 다음은 서울장학재단이 내부 환경분석을 통해 나온 강점/약점 등에 관한 서술입니다. 각각을 평가해 주세요.

서울장학재단은	매우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대외적인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서울시 출연금을 바탕으로 하여 재정이 안정적이다.	①	②	③	④
3 기본재산을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4 서울시 장학담당교사들과의 네트워크가 강점이다.	①	②	③	④
5 경영진이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6 직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7 기부금 모집에 있어 한계를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8 운영상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9 특성화 된 장학 사업(아이템)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10 비상임 이사제도는 재단의 발전에 저해요인이다.	①	②	③	④
11 업무에 비해 사무국 운영인력이 너무 적다(현재 6인).	①	②	③	④
기 타	그 외의 서울장학재단의 조직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5. 다음은 서울장학재단의 미션 및 비전의 키워드로 삼고자 하는 단어들입니다. 전문가 선생님께서는 어떤 키워드들이 서울장학재단에 미션과 비전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미션 : 서울의 미래세대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 양성에 기여
- 현재 비전 : 학생에게 행복한 미래를 설계해주는 꿈과 희망의 멘토
- 제안가능한 키워드(예) : 공평한 배움의 기회, 서울형인재상, 서울시민, 꿈, 청소년 공동체 의식, 배움(교육이 아닌 학습), 시민, 시민성(Citizenship), 나눔, 함께

6. 서울장학재단이 서울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서울형 인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전문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서울형 인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십시오.

7. 서울장학재단에서 앞으로 운영해야 할 장학사업의 영역에 관한 사안입니다.

각각을 평가해 주세요.

서울장학재단은		매우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서울시 산하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장학사업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서울시 자치구의 거버넌스, 커뮤니티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장학자원과 수혜대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한국장학재단이나 서울시 자치구 장학재단 등과의 차별화를 위한 독특한 사업영역의 개발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4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역량을 키워야 한다.	①	②	③	④
5	서울과 관련한 연구, 각종 공모사업의 진행 등을 통해 서울을 탐구하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	①	②	③	④
6	청소년 기초 문화 교육, 정치참여 교육, 진로개발 등 다양한 사회적 자본 함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7	문화공연 체험, 참여 등 학생의 고른 정서적 성장을 위한 문화적 자본 함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8	진로, 적성, 직업 등과 관련한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9	서울장학재단은 장학대상을 서울내 현재 재학생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서울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학생(외국인 포함)으로 확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10	다문화 가정, 미혼모 가정 등 장학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사업을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11	학교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들의 경우 교육청에서 지원이 없는 학습 소외를 지원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8. 다음은 장학재단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장학사업의 종류나 운영방식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장학사업의 예) 강연, 멘토링(진로, 상담 등), 장학증서 수여식, 장학생 MT, 장학생 봉사활동, 정기적인 장학생 커뮤니티 활동, 기부자와의 만남, 장학생을 위한 문화활동(영화, 공연 등 관람)